

이천쌀문화축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이천쌀문화축제 백서

2013년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발 간 사

조병돈
이천시장



예로부터 이천은 임금님께 쌀을 진상하던 쌀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윤기 있고 밥맛 좋은 이천쌀은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물, 기름진 흙이 어우러진 전국 제일의 쌀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자연의 혜택과 인간의 노력으로 영그는 쌀을 추수하는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화합의 잔치를 펼쳐 왔습니다.

이천쌀문화축제장에서 알차게 여문 햅쌀을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어린 세대는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어른들은 옛 추억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방문객들이 축제마당에서 함께 어울리며 뛰노는 모습에서 우리 농경문화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고, 구수한 이천쌀밥에서 인정 넘치는 이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농업인 잔치로 시작한 이천쌀문화축제는 15년이란 세월 속에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대동축제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변화와 발전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자가진단과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는 이천쌀문화축제가 탄생된 배경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우리 축제를 참여 관찰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집담회와 관계자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의견을 담아보았습니다. 그간 집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용인대학교 오순환교수와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사

유승우

대한민국 국회의원



1999년 10월 3일 이천농업인축제로 시작된 이천쌀문화축제는 쌀문화의 중심지인 이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이천의 전통농경문화를 현대 축제문화로 계승·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 단순한 쌀 홍보와 농업인 위주의 단일행사에서 현재는 체험하는 행사, 놀이하는 행사, 판매하는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공간구성 및 서비스 부문에서도 확연히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 더불어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매우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5년 연속 우수축제를 거쳐 올해는 최우수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15주년을 맞이한 올해, 51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천 쌀의 자존심을 대내외에 알리고 쌀이 생명과 안보의 역할을 한다는 중요성으로서의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쌀 산업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이천쌀문화축제가 앞으로도 서비스, 외식, 농촌관광이 복합된 6차 산업으로서 세계 속의 문화축제로 도약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더불어 이천쌀문화축제 백서 발간을 이천 시민과 함께 자축하오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 사

이광희

이천시의회 의장



지난 15년 동안, 이천쌀문화축제는 우리네 소중한 가족,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 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쌀을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한 해 농사로 땀 흘린 농부의 수고를 위로하는 축제의 장이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농산물을 직거래 하는 도시와 농촌 교류의 장을 펼쳤습니다.

국·내외 방문객 여러분과 이천 시민 모두가 어우러져 신명나는 문화의 한마당을 펼쳤고,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행복이, 눈가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파워 1위에 빛나는 임금님표 이천쌀, 그 맛은 더 말하는 것이 낭비이니, 쌀문화축제의 자랑거리도 딱 그만큼입니다.

따뜻한 햇살, 천혜의 맑은 물과 좋은 흙, 그리고 농부의 지극한 정성이 만들어 낸 이천쌀, 그리고 이천의 우수한 농경문화가 맛있게 버무려져 국내 최고의 특산물 축제로 우뚝 선 이천쌀문화축제, 이 모든 것이 불과 15년 만에 이루어 낸 쾌거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천쌀문화축제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이천시민 모두의 정성어린 마음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며, 저희 이천시의회 역시 임금님표 이천쌀과 이천쌀문화축제의 질을 더욱 높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명성을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례

제1편 역대 축제사진 모음

제1회 이천농업인축제(1999)	1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2000)	16
제3회 이천햐쌀축제(2001)	17
제4회 이천햐쌀축제(2002)	19
제5회 이천햐쌀축제(2003)	21
제6회 이천쌀문화축제(2004)	23
제7회 이천쌀문화축제(2005)	25
제8회 이천쌀문화축제(2006)	27
제9회 이천쌀문화축제(2007)	29
제10회 이천쌀문화축제(2008)	31
제11회 이천쌀문화축제(2009)	33
제12회 이천쌀문화축제(2010)	35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2011)	37
제14회 이천쌀문화축제(2012)	39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2013)	41

제2편 이천과 쌀

이천(利川)

자연환경	45
역사	46

유물·유적	46
민속	47
전설	48
산업	49
관광	50
벼와 쌀	
성분	51
재배역사	52
쌀과 주식	53
이천 쌀	
이천의 쌀 재배환경	54
자체쌀	55
이천쌀의 성가	56
민요 속의 이천쌀	57
이천쌀에 대한 구전	59
쌀 산업의 위기	
쌀의 소비변화	60
쌀의 유통	61
쌀값 파동	63
쌀 시장개방	65
쌀의 6차 산업화	66

제3편 이천쌀문화축제의 어제

태동기	
농업인의 날	71
제1회 이천농업인축제	72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	74

도약기

제3회 이천햐쌀축제	77
제4회 이천햐쌀축제	81

성장기

제5회 이천햐쌀축제	84
제6회 이천쌀문화축제	87
제7회 이천쌀문화축제	90
제8회 이천쌀문화축제	95
제9회 이천쌀문화축제	97

성숙기

제10회 이천쌀문화축제	100
제11회 이천쌀문화축제	103
제12회 이천쌀문화축제	106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	109
제14회 이천쌀문화축제	112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114

제4편 이천쌀문화축제의 오늘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정성평가

개요	121
총평	121
풍년마당	122
동화마당	123
문화마당	124
햐쌀거리	124
놀이마당	125
기원마당	126
농경마당	126
쌀밥카페	127
햐쌀장터	128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정량평가

방문객 부문	129
방문객 만족도 부문	131
개별 프로그램 부문	152
경제적 효과 부문	170
요약 및 발전방향	175

역대 이천쌀문화축제와 비교

전제	177
방문객 수	177
외국인 수	178
투입예산	178
현장 판매액	179
지역경제효과	181

2012 문화관광축제와 비교

방문객 만족도 비교	182
방문객 소비지출 비교	184

제5편 이천쌀문화축제의 내일

당면과제 도출을 위한 집담회

개요	189
집담회에서 도출된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190

집담회 주요토론내용

토론내용 요약	191
---------------	-----

일반 관광객의 생각과 바람

한정연	204
최민구	207

제6편 이천쌀문화축제의 회상과 기대

내부 관계자

유상규	211
홍찬의	214
김교환	215
조명호	217
김선우	221
진영봉	224
최갑수	227
연규철	230

외부 전문가

이수범	234
이 훈	237
지진호	239
배만규	241
오훈성	245

일반 관광객

박찬혜	247
주정숙	250
박지혜	252
엄은주	254

언론 보도·기사

MBC-TV	256
경기신문	258
한국경제	264
이천설봉신문	265
농민신문	269
뉴스스	271
연합뉴스	272

참고문헌	275
------------	-----

제1편

역대 축제사진 모음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 (2000)



제3회 이천햄쌀축제 (2001)





제4회 이천햄쌀축제 (2002)





제5회 이천햄쌀축제 (2003)





제6회 이천쌀문화축제 (2004)





제7회 이천쌀문화축제 (2005)





제8회 이천쌀문화축제 (2006)





제9회 이천쌀문화축제 (2007)





제10회 이천쌀문화축제 (2008)





제11회 이천쌀문화축제 (2009)





제12회 이천쌀문화축제 (2010)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 (2011)





제14회 이천쌀문화축제 (2012)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2013)





제2편
이천과 쌀

이천과 쌀

이천시는 경기도의 동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동쪽은 여주군, 서쪽은 용인시, 서남쪽은 충청북도 음성군, 북쪽은 광주시와 접하고 있다. 동경 127°20'~127°38', 북위 37°02'~37°22'에 위치한다. 동서간 거리는 27km, 남북간은 36km이며, 면적은 461.3km²이고, 인구는 20만을 상회한다. 행정구역은 2읍, 8면, 4동, 399통리로 구성되었다.

이천 (利川)

자연환경

이천은 동북쪽의 원적산(천덕봉 634m)을 필두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정개산, 해룡산, 건지산, 대덕산, 마국산, 노성산, 마이산, 팔성산 등을 거쳐 남쪽의 임오산까지 300~400m 높이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반면에 동쪽은 비교적 낮은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다.

이들 산지 사이로 이천의 중심 하천인 복하천(福河川)과 그 지류가 북쪽 또는 동북쪽으로 흘러 여주군으로 향하다가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장호원읍을 휘감아 도는 청미천은 백족산을 끼고 북류하여 충청북도 음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하천유역에는 충적토로 이루어진 작은 규모의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해 있는데, 그 기름진 땅에서 이천쌀이 재배된다.

연평균기온은 11.0℃, 1월 평균기온 -2.8℃, 8월 평균기온 29.8℃로 한서의 차가 30℃를 넘는 대륙성 기후에 속한다. 연강수량은 1,400mm 전후이나 2011년에는 2,045mm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쌀을 비

롯한 농작물 재배에 좋은 환경으로 해석된다.

역사

이천에서 구석기 유물·유적이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인접한 수원과 안성 등지에서 타제석기가 발굴된 것으로 보아 자연환경이 유사한 이천에서도 구석기문화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실제 신둔면 지석리 일대에서 신석기 유물·유적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석리에서 행해지는 고인돌과 소당산 산신제 유습으로 미루어 볼 때 이천시에 사람들이 거주한 역사는 무척 오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이천시는 마한 및 백제에 소속되었다가 남진정책을 편 장수왕대에 이르러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어 남천현이 되었으며, 신라시대에는 남천주, 황무현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고려 태조(王建)가 후백제를 치러 가면서 남천(지금의 복하천)을 건널 때 인근 마을주민인 서목(徐穆)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건넜는데, 이를 기념하여 태조 왕건이 ‘이섭대천(利涉大川, 강을 건너감이 이롭다)’이라고 말한 뒤로 이천이란 지명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이천군, 남천군, 이천현, 이천군을 거쳐 1996년 이천시로 승격되었다.

유물·유적

이천시에는 선사유적으로 신둔면 지석리의 남방식 지석묘를 비롯하여 장동리와 창전동 고분에서 발굴된 토기·철침 등 다수의 신석기 유물이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터로 장호원읍의 설성산설성지, 울면의 망이산성, 사음동의 설봉산성, 신둔면의 원적산고성지 등이 있으며, 그밖에 효양산토성지와 중리동의 증일리토성지, 모가면의 진가리토성지 등이 있다.

불교문화재로는 관고동의 영월암 마애여래입상(보물822호), 마장면

장암리의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보물982호)을 비롯하여 중리동의 이천중리삼층석탑, 장호원읍의 이천어석리석불입상, 모가면의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이천장호원읍미륵불상 등이 유명하다. 그밖에 마장면의 이평리석불입상, 관고동의 오층석탑 및 삼층석탑, 설성면의 자석리 석불입상, 호법면의 동산리마애여래상, 마옥산 부처바위 마애여래좌상 및 마애삼존불상, 영원사석조약사여래좌상 등도 있다.

기타 문화재로는 창전동의 이천향교, 음죽향교지, 설봉서원지, 현암서원지, 충성공사묘, 효산사(조선의 개국공신 조영무 장군을 모신 사당), 충장사(어재연장군을 모신 사당) 등이 있다. 그리고 고전축으로는 기묘사화로 파직된 여섯 선비가 시를 읊고 학문을 논하면서 여섯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고 세웠다는 육괴정(六槐亭)을 비롯하여 안동김 씨고가 등이 있다. 보호수로로는 백사면에 백송(천연기념물 제253호)과 반룡송(천연기념물 제381호)이 있다.

민속

이천시의 주요 민속놀이로는 거북놀이와 줄다리가 있다. 옛날부터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전래되던 거북놀이는 1970년대까지 마을마다 연행되던 이천의 대표적 전통놀이였다. 추석날 보름달이 떠오르면 수숫잎, 각시풀, 짚, 아카시잎 등을 엮어 만든 거북이를 앞세워 질라아비, 깃발잡이, 풍물재비 등 수십 명이 거북이를 뒤따르며, 다드래기, 길군악, 덩덕궁이, 동리삼채 등 가락에 맞추어 길놀이를 한 후 샘굿과 판굿으로 마을의 복을 빈 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굿, 뒤안굿, 조왕굿, 대청굿을 치며 풍년에 감사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민속 신앙적 집단놀이이다.

한편 줄다리기는 이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들까지 가세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예컨대 1921년 3월 18일의 경우 선수

6,000명, 관객 3만 명이 참가하여 줄을 당겼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당시 사망자 3명 중상자 9명이 발생하였는바, 일제는 이를 핑계로 줄다리기를 금지시켜버렸다. 이후 모가면 진가리, 대월면 단월리, 신둔면 용면리 등지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내기 및 김매기를 할 때는 두레놀이를 하였는데, 이는 수십 명의 마을주민들이 풍물을 두드리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기를 앞세우고 일터로 나가거나 작업 중 짬을 이용해 농부거나 풍년가를 부르면서 즐기는 집단적 일놀이였다.

그밖에 동제(洞祭)는 대개 정월 대보름 무렵에 거의 모든 마을마다 지내왔는데, 도시화가 가속된 1980년대 이후 거의 소멸되었다. 다만 아직도 일부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는데, 그 중 유래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둔면 지석리 소당산과 마장면 장암리의 산신제는 격년제로 짝수의 해에 지내며, 보통 음력 2월 초하룻날 자정을 기해 행해진다. 지석리에서는 산중턱의 넓은 바위를 제단으로 삼아,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바치는 등 제물과 절차가 엄격한 관례로 규제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산신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산신제를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다.

전설

옛날 이천이 신라의 통치를 받을 무렵, 남천군주가 진산인 설봉산에서 제를 올릴 때 발산(현, 효양산)에서 캐낸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기로 사용한 뒤 매년 풍년이 들고 잉여농산물로 인해 신라의 국력이 날로 번창하였다. 신라의 팽창을 두려워 한 당나라가 금송아지를 뺏으려 사신을 이천지역에 보냈지만, 이천의 관민이 합심하여 사신이 지나갈 길목의 지명을 바꾸어 부름으로써 사신의 발길을 돌렸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그 때 만들었던 제일역, 오천역, 구만리뜰, 억만리, 보름다

리, 억억다리, 이천역 따위의 지명이 지금도 전래되고 있다.

‘심인연전설(沈印淵傳說)’은 조선 세종 때 청렴한 재상으로 유명한 맹사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가 온양의 어머니를 뵈러 가던 중 이천을 지날 때 진위현감과 양성현감이 장호원까지 마중 나왔는데, 맹사성의 행장이 너무나 남루하여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하는 바람에 당황하여 연못에 현감의 관인을 빠뜨렸다고 하는 설화이다.

그리고 ‘사슴의 보은설화’는 서(徐)처사가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을 숨겨준 후, 사슴의 보은으로 80노령에 훗날 고려의 충신인 서필과 서목을 낳았으며, 서필은 다시 거란의 대군을 담판으로 물리친 서희를 낳아 결국 그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서처사는 이천 서씨의 시조인 서신일(徐神逸)로, 효양산에는 그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그밖에 당나라 시인 두보와 관련된 ‘두무(杜舞)고개전설’, 신라 때 한 장수와 공주의 사랑이야기인 ‘설성산성전설’, 백족산 지네의 정기를 타고 나서 영특하다고 전해지는 ‘남이장군과 백족산지네 퇴치전설’, 고려 공민왕의 피란에 관한 ‘원적산 여기수전설’, 마고할미가 금강산을 만들기 위해 흙과 바위를 나르다 흘린 흙 한줌이 산이 되었다는 ‘도드람산전설’, 군량리에서 비롯된 ‘강감찬장군과 맹꽂이’ 등의 전설이 지금까지 이천지역에 전해지고 있다.

산업

예전에는 쌀을 비롯하여 무·배추와 같은 밭작물, 복숭아와 및 포도와 같은 과실류, 젓소·닭·오리와 같은 가축류 등 1차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간주되었으나,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정비된 지금은 공장과 물류창고 등 2차 산업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양질의 고령토 생산을 계기로 도자기 공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신문면 일대에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예촌이 형성되었다. 그곳에서는 청자를 중심으로 분청백자와 같은 전통자기의 원형을 재현하면서 우리나라 도자기의 메카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 실학자인 서유구가 저술한 임원경제지에 따르면, 이천지역에는 매월 2·7일에 열리는 이천읍내장을 비롯하여 3·8일에 열리는 대월면의 군량장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현재는 이천장(2·7일)과 장호원장(4·9일)이 열리고 있으나 점차 현대적 상설시장 및 대형마트와 같은 할인점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

관광

예로부터 이천은 온천으로 유명하였다. 이천 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이천온천의 수질은 알칼리성 단순천으로 무색·무취·무미하며, 수온은 30~32℃이다. 온천수에 나트륨 성분이 풍부하여 만성습진을 비롯한 피부질환·신경통·부인병·눈병 등에 효과가 있으며, 마시면 위장에도 좋다고 한다. 모가면에 위치한 신갈온천 역시 알칼리성 단순천으로 수온은 27℃ 정도이다.

그리고 신문면 일대에 집중된 도예촌도 매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천은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맵감과 물이 좋으며, 특히 서울과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도예인들이 앞 다투어 요장을 열고 있다. 이천시는 이들을 위해 도자기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바, 1995년에 문화관광시범축제로 선정된 이래 발전을 거듭하다가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로 확대하였고, 지금도 매년 도자기축제를 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년으로 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농촌체험관광의 메카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02

년 대월면 군량리 자채방아마을을 시작으로 2003년에 부래미마을 등이 농촌관광의 성공모델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2011년에는 체험관광마을과 농원 및 개인사업체를 묶은 (사)이천농촌나드리를 설립하여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출범 1년 만에 15만 명의 도시민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벼와 쌀

성분

쌀은 벼 열매의 껍질을 벗긴 알갱이로써 보리·밀과 함께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자원인데,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아시아에서 생산되며,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다.

벼는 벼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20여 종의 품종이 있으나, 가장 흔한 품종은 오리자 사티바(oriza sativa)이며, 이는 크게 일본형(japonica)과 인도형(indica)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먹는 일본형은 쌀알이 둥글고 짧으며 밥을 지으면 찰기가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와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 재배된다.

쌀은 전분이 주성분이며, 단백질은 약 7%, 그밖에 소량의 지질과 회분을 포함하여 미량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쌀의 단백질은 글루테린을 중심으로 소량의 알부민과 글로불린을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질은 호분층(糊分層)이나 배아에 많으며 무기질로서는 인이 많고 칼슘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 B1·비타민 B2·니아신·비타민 E 등이 많은 반면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

한편 쌀밥과 빵의 영양가를 비교해 보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단백질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빵의 단백질가(蛋白質價)는 44로써 쌀(78)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쌀의 단백질이 밀가루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재배역사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농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조들이 쌀을 먹기 전에는 잡곡과 맥류를 주식으로 하였으며, 특히 보리·밀·피·기장·조·수수 등의 재배기술은 인도·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쌀 역시 최초로 재배가 이루어진 곳은 인도의 아삼(Assam)에서 중국 윈난(雲南)에 걸친 넓고 긴 지대로써, 약 6,000~7,000년 전에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쌀은 그곳에서 아시아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는데, 일본의 藤田安仁(1952)은 ‘쌀·벼’라는 단어를 추적함으로써 쌀의 전파경로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도와 벵갈에서 파생된 한 부류는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살리→쌀’, ‘브라스→벼’가 되었고, 또 다른 부류는 인도차이나를 기점으로 대만과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코메→고메(쌀)’, ‘위네→이네(벼)’로 변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벼를 재배한 흔적은 1977년에 여주군 혼암리에서 발굴된 탄화미를 필두로 강화, 광주, 김포, 일산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탄화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2천년 무렵에 다수확 식량작물인 벼를 재배하면서, 고조선이 건국되고 청동기문화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쪽을 통해 들어온 벼 재배기술은 상대적으로 논을 만들기 어려운 호남 및 영남지방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백제와 신라에서 벼 재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하였고, 통일신라시

대에는 쌀이 주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의 주 대상이 쌀로 바뀌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쌀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자 조정에서는 수리강화, 재배기술 혁신, 경지면적 확대, 창고시설 확충 등 쌀의 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초작업의 노동력 절약 및 수확량 증대에 획기적인 재배기술인 이앙법(移秧法)이 고려시대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시설의 미비로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삼남지방 일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그 후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1980년대의 식량증산정책은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특히 과학영농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식량증산정책은 경지정리, 관개시설 확충, 농기계 보급, 농약과 비료의 대량보급 등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의 보릿고개를 타파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반면 농사에 집단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면서 농촌사회 및 농촌문화가 과거의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급속하게 바뀌었다.

쌀과 주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곡식 중에서 쌀이 아시아민족의 주식이 된 이유는 아마도 쌀로 지은 밥의 매력 때문일 것이다. 애초에는 쌀도 다른 곡식들과 마찬가지로 빵아서 먹는 분식(粉食)이 주요 식습관이었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쌀을 밥으로 지어먹는 입식(立食)이 개발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입식으로서의 쌀밥은 싫증이 나지 않는 매력적인 맛이 있다.

쌀은 밥으로 먹는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 예컨대 다른 곡식과 섞어 먹는 혼식, 물을 많이 부어 끓여 먹는 죽, 쌀가루

를 내어 찌먹는 떡, 발효시켜 먹는 술, 증편, 식혜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고추장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쌀을 주식으로 선호하게 된 이유로서 경제적인 면을 빼놓을 수 없다. 쌀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밀이나 보리와 같은 그 어떤 곡류보다 월등하게 많고, 열대지방에서는 한해에 두 번 이상을 재배하여 수확할 수 있으며, 가격도 다른 곡식들보다 비싸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천 쌀

이천의 쌀 재배환경

이천지역은 분지형 지형으로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데 이런 현상은 벼의 결실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이천은 평균기온과 상대습도 그리고 증기압이 낮으며 특히 지온, 관개수온, 토양의 투수성 등이 낮은 편이다. 반면 관개수 중 무기성분의 함량은 높은 편이다.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성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토질보다는 시비와 같은 재배법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질과 관련하여 벼는 생육기간 동안 수온이 40℃를 넘으면 고온장애가 나타나고 15℃ 이하이면 저온장애가 발생하는데, 양분흡수에 적합한 관개수온은 30~32℃로 알려져 있다. 지하수로 관개하는 이천의 관개수에는 K, Mg, Na, Ca 등의 함량이 높아 이천쌀의 품질을 좋게 하는 요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과거 이천쌀의 대명사였던 자채쌀이 미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조생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미질을 기록했던 것은 이천 지역의 평균기온이 낮고 상대습도와 증기압도 낮아 조생종을 재배해도 만생종의 재배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채쌀

이천 자채쌀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이다. 원래 이천 자채쌀은 수확기가 빠르고 식미가 좋으며 점기가 많은 진미의 쌀로 구한말에는 음력 유월 보름(流頭)이면 왕에게 진상하였는데, 그 진상품 경작답을 ‘진상따라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자채벼는 벼잎이 자색을 띠는 극조생의 재래종으로써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적고 재배법이 까다로운 반면 시장에서 항상 높은 값을 받았었다.

이천지역에서 자채쌀을 재배했다는 기록은 1492년에 발간된 『금양잡록(衿陽雜錄)』에 등장한다. 그 책에는 자채의 한자표기를 自蔡로 하였는데 까끄라기가 있고 이삭이 날 때는 색깔이 희다가 성숙하면 황색이 된다고 하였다. 1766년에 간행된 『증보산림경제』에는 자채는 올벼에 해당되는데 이천과 여주 사이에서 생산된 것이 품질이 좋다고 하였다.

보통 자채 벼씨는 양력 4월 하순에 물을 가둔 논에 담수직파하여 키워서 추석에 앞서 조기출하를 하는데, 지은 밥에 기름이 흐르고 밥맛이 아주 뛰어났다고 한다. 어떤 때는 자채쌀이 이질치료 목적의 약재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며, 누룩으로 빚은 자채쌀 술도 일품이었다고 한다.

한편 자채벼라는 것은 벼의 품종이라기보다는 이천·여주 지방에서 생산된 양질의 올벼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1914년에 발간된 조선농회보(朝鮮農會報) 9권 7호에 따르면 ‘자채벼는 경기남부 일부지역에서 재배되는 재래종으로 품질은 좋고 수량은 적으며 성숙기가 매우 빨라 햅쌀 시장에서 항상 10% 이상 높은 값을 받고 있는 벼이다’라고 기술되었다. 이처럼 이천에서 재배되는 자채를 自蔡 또는 細稻로 표기하였으나 반면에 충북 진천, 강원도 고성, 황해도 해주 등지에서는 줄기와

앞에 紫色의 줄이 많은 벼를 紫采라고 불렀다고 한다.

어쨌든 자채벼는 8~9월에 출하되는 밥맛이 좋은 극조생종이다. 그러나 토질이 비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한 유기질 비료성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확량이 차이가 나고, 직파를 해야 하는 까닭에 제초 및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 때문에 점차 재배면적이 줄어들다가 급기야 단종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화려한 자채쌀 명성에 힘입어 지금도 이천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우호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천쌀의 성가

이천쌀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쌀로 평가받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조선시대부터인 것으로 추측한다. 왜냐하면 고려와 다르게 조선의 수도는 이천과 가까운 한양(서울)이었으므로 남한강의 수운(水運)을 이용한다면 이천에서 짧은 시간에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어떤 농특산물에 대한 성가(聲價)는 한양에 사는 고관 대작들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추석 전에 수확된 이천의 자채쌀이 여주의 양화진을 통해 빠른 시간에 한양으로 대량 운송되면서 그들 여론 주도층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들었을 것은 자명하다. 이는 한강 수계에 위치한 이천과 여주뿐만 아니라 김포, 양평, 광주 등지에서 수확한 햅쌀 즉, 경기미도 역시 우호적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세종대왕의 맏형인 양평대군이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에서 15년간 양배생활을 하면서 군량리와 양평리 일대의 ‘군들’이라는 드넓은 식읍(食邑)을 받았는데, 그는 여기서 거둔 자채쌀로 밥을 먹다가 훗날 한양으로 복귀한 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해 조선의 권력 핵심부에 이천쌀에 대한 좋은 평가가 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손자인 성종은 여주에 있는 할아버지의 능에 여러 번 행차를 하였는데, 능행길에 반드시 이천을 거치거나 이천에서 묵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이천부사였던 복승정(卜承貞)은 영릉 참배 후 환궁 길에 큰비를 만나 이천부에 유숙하던 성종과 그 수행원들에게 이천햅쌀로 밥을 지어 바쳤는데, 꿀맛과도 같은 밥맛에 반한 문무백관과 수백 명의 군사들에 의해 그 명성이 한양에 널리 알려졌고, 임금이 환궁하자마자 이천쌀은 곧 진상미로 바쳐졌다고 한다.

민요 속의 이천쌀

농촌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는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서민들의 삶을 노래한 것이다. 이천과 여주 일대에 전래되는 민요 ‘방아타령’과 ‘자진방아’의 가사 속에 다음과 같이 이천의 자채쌀에 관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바, 이를 통해 이천 자채쌀의 실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방아타령 -

산으로 올라서 산신방아
 들로 내려서 디딜방아
 여주이천 자채방아
 광주부남 땅새기방아
 경신월 경산시 강태공에 조작방아
 사시장천 걸언뚝고
 떨거덩 떨거덩 쫓어보세

- 자진방아 -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 이 방아가 어디 방아냐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 여주이천에는 자채방아	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강태공에는 조작방아	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이논 저논 다 고만두고	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여주이천에 자채방아로	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덜커덕 쿵당 쫓어나 보세	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잘도 쫓네 잘도 쫓네	에히여라하 방아호
어~ 금상따래기에 자채방아를	쿵닥쿵닥 잘도 쫓네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히여라하 방아호
에히여라하 방아호	

이들 노래에 여주이천의 자채방아가 여러 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천지역에 자채벼가 널리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상따래기에 자채방아’라는 구절에서 금상따래기는 진상미를 재배하는 논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천쌀에 대한 구전

강화도의 특산물인 순무가 강화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재배하면 특유의 향과 맛이 크게 사라지듯이, 이천과 여주의 특산물인 자채쌀도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면 그 특유의 맛을 잃는 듯하다. 이는 지역마다 독특한 기후환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비록 과거 화려한 명성을 지녔던 자채쌀이 사라졌지만, 이천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고품질 쌀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이를테면 예전 자채벼를 대신한 추청벼를 이천과 인접한 광주, 음성 등지에서 재배해보면 이천에서 생산한 쌀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보다 품질과 맛이 훨씬 좋다는 거듭된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오대쌀 역시 철원군의 샘통 일대에서 재배된 쌀을 최고로 쳐주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쌀은 그만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이천지역의 벼 재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한강의 수운도 이천쌀의 밥맛을 좋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로 쌀의 수분함량이 17% 내외일 때 밥맛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천에서 갓 찹은 쌀이 남한강을 통해 한양까지 운송된 후 소비자 밥상까지 오르는 시간이 대략 1주일에 불과하므로 이천 햅쌀로 지은 최상의 밥맛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영호남 지방에서 생산된 쌀은 육로나 해로를 거쳐 한양까지 수송되는데 대략 1달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쌀이 지나치게 건조되거나 변질되어 미질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쌀 산업의 위기¹⁾

쌀의 소비변화

우리나라에서 쌀밥이 보편화된 시기는 3~4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삼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옥하고 너른 평야지대를 확보한 백제에서 쌀밥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에 여러 곡물 중에서 가장 귀한 식량으로 취급되어왔다.

결국 고대의 쌀은 지배계급이나 고소득 계층에서 주로 소비되었고, 피지배계급이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보리와 잡곡 등을 주식으로 삼았다. 이런 현상은 조선 말기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까지 쌀은 주로 지배계급인 양반에 의하여 소비되었고, 농민들을 포함한 피지배계급은 명절 때나 제사 때 등 특수한 날에나 쌀밥을 지어 먹을 뿐 보통날에는 잡곡을 주로 소비하였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역시 쌀은 지배층이 주로 소비하였다. 그 때 농민들은 애써 생산한 쌀을 대부분 전량판매하거나 공출당한 까닭에 그들의 주식은 맥류와 조 등의 잡곡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릿고개’라는 말로 짐작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쌀의 증산이 목표인 녹색혁명이 성공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민들 식생활의 서구화 및 소득향상에 따라 쌀의 소비가 양보다 질로 바뀌고 있다. 예컨대, 쌀의 1인당 연간소비량 추이를 보면 1910년에 101kg에서 1965년에는 122kg으로 증가하였고 그 뒤 1970년에 최고수준인 136kg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급속한 쌀 소비증가로 인해 수급불균형이 나타나면서 1970년에 54만톤에 달하는 외국산 쌀을 수입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1)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내용을 인용하였음.

외국산 쌀 도입을 줄이기 위해 혼식과 분식 등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한 쌀 소비억제 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에는 대체로 120kg대 중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쌀막걸리 허용 등 쌀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쌀 소비가 급증한 1979년(136kg)을 정점으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컨대, 1988년도 122.2kg이었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2% 가까이 감소하다가 1998년에는 99.2kg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002년에 87.0kg, 2012년 69.8kg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쌀 소비의 감소경향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식품소비구조의 다양화·서구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향상으로 인해 축산물, 수산물, 과일, 채소 등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전통적 식용곡물인 쌀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의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쌀의 유통

벼를 재배하기 시작한 신석기시대의 쌀은 자급자족의 대상이었으므로 쌀의 유통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동기를 활용한 농기구가 개발되면서 쌀 생산이 증대됨에 따라, 농가에서 소비하고 남은 여분의 쌀을 다른 재화와 물물교환 방식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직접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쌀을 중심으로 했던 물물교환 방식은 점차 화폐를 매개로 하는 상품거래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즉,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쌀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구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양자

간 거리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중간(상인)조직이 나타나면서 쌀의 유통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조선 말기까지의 쌀 유통은 국가의 직접 통제가 없는 자율시장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제가 쌀 유통에 강력한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조선미곡배급령 및 조선식량관리령 등에 의거 조선의 양곡자유시장을 폐쇄하고 양곡배급제도와 공출제도를 심화시켰다. 강제 공출된 쌀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반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농민들의 소작쟁의로 표출되었다.

광복 후 1950년대의 쌀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수집단계로서 생산자→되장이→수집상을 거쳐, 중계단계인 지방도정업자→대중계상인으로 유통되었고, 분배단계로서 대중계상인→위탁상 또는 도매상→판매상을 거쳐 소비자에 도달되는 복잡한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정부와 농업협동조합이 양곡시장에 적극 개입함에 따라 쌀의 유통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즉, 쌀의 유통구조는 자유시장을 통한 유통경로와 정부조직을 통한 유통경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자유시장을 통한 경로는 다시 상인조직을 통한 경로와 농협조직을 통하는 경로로 구분되었다.

1980년대까지 쌀의 총유통량 중 수매에 의한 정부미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자유시장 유통량은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일반 상인조직에 의한 도매시장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더욱이 정부가 정부미의 수매·방출의 경로로 농협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민간상인에 의한 유통비중은 1990년의 67.8%에서 1996년에 30.3%로 급감하였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도시핵가족화 및 식생활의 서구화 등이 심화되면서 쌀의 소비량이 줄어들었고, 이는 쌀의 소포장화, 브랜드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쌀의 판매장소가 과거의 허가 받은 싸전에서 이제는 동네구멍가게까지 다양한 경로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택배를 이용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비중도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쌀값 파동

전통적으로 쌀은 우리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식품으로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특히 산업화 이후 쌀값의 상승은 도시 근로자의 가계비에 큰 압박요인이 되며, 나아가서는 노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일반물가의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쌀값이 너무 비싸 도시소비자, 특히 서민층의 가계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쌀값이 너무 낮아져도 안 된다는 양면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쌀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은 격심한 가격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1949년 정곡 한 섬당 196환(1환=100원) 하던 것이 1950년에는 906환으로 약 4배가 올랐다. 1951년에는 2,570환으로 다시 3배 상승하였으며 1952년에는 9,300환으로 거듭 3배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1960년대 초반에도 되풀이 되었다. 이러한 쌀값의 급격한 상승은 전체물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조성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1950년에 쌀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곡관리법’을 제정하여 시장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0년까지 정부의 쌀 수매가격은 대체로 생산비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수매가 아니라 지방행정계통을 통한 강제수매 방식으로 양곡관리를 하였다.

이렇게 낮아진 쌀값은 생산농가의 증산의욕을 감퇴시킨 반면 소비자의 쌀 소비를 조장함으로써 식량부족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식량부

족의 만성화로 말미암아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국가적 과업인 공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낮은 쌀값은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1969년부터 이중곡가제(二重穀價制)를 실시하였다. 즉, 수확기에 증산촉진을 위하여 시중가격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였다가, 곡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게 되었다.

동시에 통일벼와 같은 다수확 품종을 육종·보급하여 증산을 독려한 끝에 1970년 35만 톤에 불과했던 정부 수매량이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130만 톤을 넘었으며, 이후 1980~1990년대는 전체 쌀 생산량 대비 정부 수매비율이 14~30% 선을 유지하였다.

한편 정부의 증산정책에 부응하여 통일벼의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났지만 밥맛이 좋은 일반 쌀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 산업화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도시소비자들이 일반미를 선호하면서 일반미 값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일반미 가격을 잡기 위하여 정부미를 수매가보다 싼값에 다량으로 방출하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쌀 시장을 기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일반벼 계통의 쌀로 급선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은 양질미보다는 정부가 동일가격으로 수매해주는 다수확의 통일벼를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양곡재고 및 양특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었다.

급기야 정부는 1989년부터 통일계와 일반계 품종에 대한 수매가격을 차별화하는 차등수매제도를 도입했고, 1992년부터는 통일계 품종을 정부수매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그리고 2005년부터 수매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대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쌀 시장개방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이어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들은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되 당분간 관세를 매겨 개방충격을 줄이되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국·일본·필리핀 등의 쌀은 그 예외성을 인정받아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이후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그 대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TRQ)을 7.96%로 늘리되, 과자와 같은 가공용 쌀 이외에 밥쌀용 쌀을 전체 수입량의 30%까지 확대시키기로 협정을 맺었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1979년의 연간 136kg에서 2012년에 69.8kg으로 거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되었다. 특히 1인당 연간 쌀 소비가 100kg 이하로 감소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쌀값은 거의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아래의 <표 1> 참조). 같은 기간 전체 물가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쌀 전업농의 소득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표 1> 연도별 물가지수 비교

연도	전체	쌀값	연도	물가	쌀값
1980	24.3	31.6	2000	73.1	109.1
1985	34.2	43.6	2005	86.1	107.8
1990	44.5	61.5	2010	100	100
1995	60.2	76.5	2012	106.3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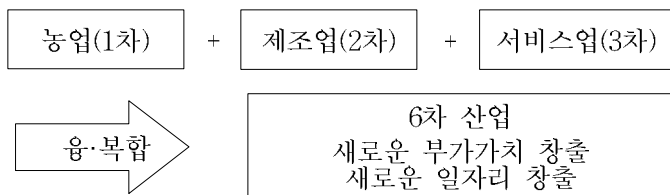
한편 최근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농가에 미칠 득실은 어떻게 될까? 불과 2010년까지 중국은 쌀 수

출국에 속했었으나 2011년에 58만 톤을 수입하더니 2012년에는 전년 대비 3.7배 늘어난 213만 톤을 수입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쌀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인구증가 및 가공용 쌀 수요 증가로 인해 소비량이 생산량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질미가 부족한 중국의 시장특성을 감안하고 또한 중국의 부유층을 겨냥한 고품질 쌀을 브랜드화 하여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쌀의 6차 산업화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쌀 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의 정체, 식생활의 서구화, 풍부한 대체식량의 등장 등으로 인해 쌀 소비가 감소하고 가격이 정체내지는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꾀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에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복합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농업의 6차 산업화

원래 농업의 6차 산업화란 1990년 일본 국토청 지방진흥국에서 발행한 ‘신농촌디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핵심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1차)을 중심으로 가공과 특산물 개발활동(2차)을 더하고 여기에 직

판장·식당·숙박·체험(3차) 등을 결합시키는 과정이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농민이 콩을 생산한 후, 도시민이 농촌에 찾아와 숙식을 하면서 함께 메주를 만들고, 다시 장을 담아 가는 등의 체험·교류활동을 6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민은 콩을 판매할 때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숙박과 체험활동으로 인한 새로운 소득원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농촌에서 도시민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농촌관광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2002년부터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농업농촌에 체험·숙식 등의 서비스를 결합시킨 농촌관광사업으로써 대표적인 6차 산업에 속한다. 이천시에서도 2002년에 대월면 군량리에 자채방아마을을 조성하였고, 2003년에는 울면 석산리에 부래미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에 이천농촌나드리를 설립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마을 단위의 농촌관광사업과는 다르게 추진되는 6차 산업도 있다. 예컨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천시가 가장 먼저 추진한 도자기축제와 2001년부터 시작한 이천쌀문화축제 같은 관광축제사업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을 관광축제로 승화시킴으로써 수십만의 도시민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해당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면서 농·특산물까지 판매하는 축제야말로 6차 산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제3편

이천쌀문화축제의 어제

이천쌀문화축제의 어제

보릿고개 시절, 쌀은 생명이었다. 밥주걱에 붙은 밥알을 떼어 먹던 흥부의 모습은 바로 쌀의 가치를 반증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식생활도 바뀌면서, 예전에 입도 선대하던 귀한 쌀이 어느덧 창고에서 하염없이 낫잠을 자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였다. 이제는 쌀의 생산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쌀의 소비축진을 꾀하고 나아가 제값받기를 통해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천시는 이천쌀의 이미지 제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축진은 물론 이천쌀과 관련된 고유문화를 재창조하고 보존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태동기

농업인의 날

정부는 한 해의 농사, 특히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 추수를 마치는 시기인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농업인의 날은 수확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는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킴으로써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¹⁾

농림부 주관으로 1996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주요 행사로는 농업·농촌의 재도약 선언, 수출농가 및 쌀증산왕 등 농업인의 성공사례 발표, 유공자 표창, 우리 농산물 전시장 시찰 등을 들

1)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은 한자로 土月土日로 농업과 관련이 깊은 흙(土)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날을 전후로 약 2주간을 ‘농업인 주간’으로 정하여, 농업 및 축산단체의 주관으로 농수산물대축제, 농업인정보이용 경시대회, 우리농수산물 품평회, 국제학술대회, 농업아이디어박람회, 심포지엄, 음악회 등 각종 부대행사가 열린다.

제1회 이천농업인축제 (1999년)

전술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이천시도 1999년부터 이천농업인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농업·농촌 관련단체들이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각종 기념행사를 하나로 묶어 통합된 농업인축제로 승격시킨 것이다.

1999년에 이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이천 농업인축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기 : 1999년 11월 10~11일
- 목적 : 농업인들의 친목도모 및 농업기술교류
- 장소 : 이천시민회관
- 행사 : 우수농축산물 전시회 및 시식코너, 전시된 농특산물의 도매가격 판매, 농업기술화보집 배포, 류달영박사 초청강연
(구제금융시대의 농업발전 방향)

제1회 이천농업인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일부 참여하는 자족적 행사라는 점이다. 즉, 1995년 1월에 출범한 국제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화, 1997년에 불거진 IMF 외환위기 등에 지친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자족적 축제에 일부 시민들을 초청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 (2000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천시민회관에서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가 열렸다. 그러나 1회 축제와 비교할 때, 농업인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행사를 꾸민 점이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즉, 시민차원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천시, 농협, 축협,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문화원, 이천시어머니합창단 등 농업관련 기관은 물론 일반 사회단체까지 참여하였다.



2000년 이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기 : 2000년 11월 7~8일
- 목적 : 농업인들의 친목도모 및 농업기술교류

- 장소 : 이천시민회관
- 주최 : 이천농업인축제추진위원회
- 행사 : 제1회 농업인 대상 시상식, 전통민속경연, 옛모습 재연경기, 음식만들기 경연, 축산물 할인장터, 우리꽃 전시판매, 우리음식 전시회 등

특히 첫날 개막식에서는 제1회 농업인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주요시상은 쌀단지부문, 쌀개인부문, 원예부문, 과수부문, 축산부문, 여성농업인부문, 생산자단체부문 등이었으며 그밖에 농협이천시지부에서는 우수영농조직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한편 멥석만들기, 새끼꼬기, 용마름쥘기, 쫄신삼기, 허수아비만들기, 인절미·송편 만들기, 전통연 만들기, 사과 길게 깎기, 오징어 모

양내기 등의 경연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또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와 화훼전시회 등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 천 소 식

2000년 11월 25일 (토요일)

이천농업인 축제...농민 한자리 화합

지난 7일과 8일, 시민회관에서 농업인의날 행사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열리는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가 이천농업인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유시중) 주최로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이천 시민회관에서 관내기관장과 단체장 그리고 농업인등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시민차원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천시, 농협, 이천축협,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문화원, 이천시어머니합창단 등 관내 농업기관과 단체에 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농업인 축제는 7일 개막식행사를 시작으로 펼쳐졌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제1회 농업인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쌀단지부문에 올랐던 본죽리가 차지했으며 쌀개인부문에 설성면 제요리의 오명호씨가 수상, 각각 상패와 함께 15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또 원예부문에는 백사면 모전리의 임지순씨, 과수부문에는 장호원을 선율리의 이재봉씨, 축산부문에는 설성면 장천리의 안래역씨, 여성농업인부문에는 대월면 군량리 정태선씨, 생산자단체부문에는 진리동의 이천한우회(대표 윤두현)가 수상, 각각 6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와함께 농협시지부에서 선정하는 우수영농 조직으로 모가면 진가리부녀회와 대월면 부필리 작목반, 장호원 선읍3리 영농회가 각각 선발돼 50만원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이번 제2회 농업인 축제는 전통민속경연 및 옛모습 재연경기와 음식만들기 경연, 이벤트행사와 문화행사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농업인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농산물을 산지보다 30%가량 싸게 판매하는 농축산물 장터와 이천화훼협회에서 우리꽃을 전시 판매했으며 20여점의 향토음식이 전시되는 우리음식 전시회가 열렸다. 전통민속경연 및 옛모습 재연경기는 멍석만들기, 새끼꼬기, 용마를 엮기, 짚신만들기, 전통원 만들기, 풍물놀이경연, 허수아비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및 시연회가 열려 옛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음식만들기 경연으로 사과 길게 깎기, 오징어 모양내기, 송편만들기 등이 펼쳐졌다.

<某 지역신문>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 기사, 2000.11.25.

도약기

제3회 이천햅쌀축제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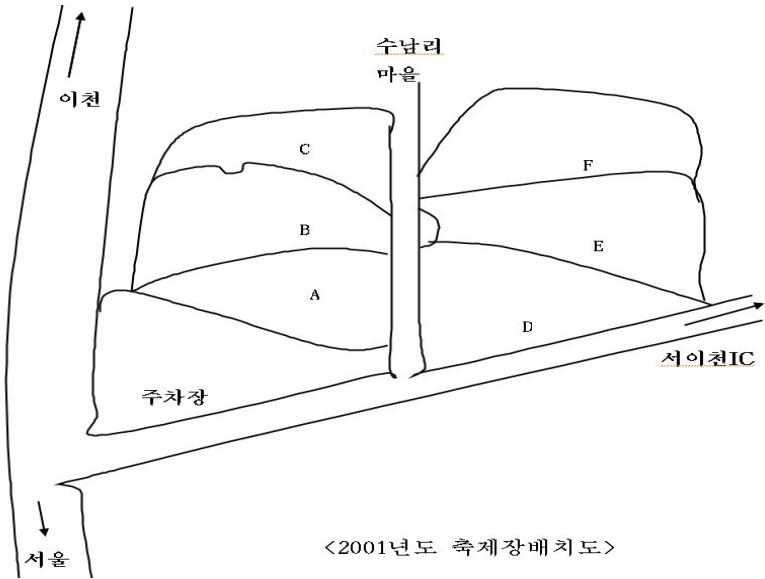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자족적 행사로 치러졌던 이천농업인축제는 3년차 되던 해부터 대변신을 꾀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농업인과 일부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존의 ‘내부축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제를 꾸미는 ‘열린 축제’ 방식으로 체질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특히 쌀시장 개방에 따른 위기감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었기에 택한 시도였다.

한편 이천시에서는 1987년부터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리고 있었으며, 그 축제는 1995년도 문화관광시범축제를 거쳐 1996년부터 8대 문화관광축제로 급성장해 갔다. 급기야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 간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라는 국제행사로 확대되었는데, 당시 600만 명의 입장객 중 절반 이상이 이천시를 방문하였다. 이로 인해 이천시는 우리나라 도자기의 메카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전국내지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 이천쌀의 명성을 되살려 쌀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한 각종 대안을 탐색하고 있던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당시 유용식소장, 유상규과장, 연규철담당 등의 관계자들이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경기도’의 연계관광프로그램을 기획·연출한 오순환박사의 자문을 받아 기존의 이천농업인축제를 이천햅쌀축제로 개칭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열린 축제를 표방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1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된 제3회 축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2001.8.10.~10.28. 80일간)의 부대행사로 긴급 편성된 까닭에 제대로 된 축제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신문면 수남리 일대의 3번 국도변에 위치한 논 6필지를 임차하여 행사장으로 사용하였다(아래의 그림과 사진 참조).



<2001년, 질척한 논바닥에 짚을 깔고 축제장으로 사용>

비록 논바닥에 차려진 행사장은 초라했지만 예년과 달리 일정별·주제별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한 까닭에 관광객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하지만 농업인과 시민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므로, 평일에는 농업인과 시민을 위한 행사로 편성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외지 관광객을 위한 축제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여 배치하였다.

- 시기 : 2001년 10월 25~28일
- 목적 : 풍년농사 자축 및 농산물 직거래
- 장소 :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일대의 논
- 주관 : 이천햐쌀축제추진위원회
- 행사 : (24일) 농업인을 위한 풍년잔치 - 시상식 겸 자축행사
(25-26) 학생과 주부를 위한 가을운동회 같은 행사
(27-28) 일반관광객 대상의 햐쌀잔치 및 프로그램

한편 축제공간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마당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예컨대 타작마당에 농경문화의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옛날마당에는 농촌의 생활문화를 응용한 달구지, 경운기, 장치기, 용싸움 등을 배치하였으며, 솜씨마당에는 농기만들기를 비롯하여 솜씨자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배치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마당은 어울마당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놀이전문단체가 장치기, 지게놀이 등 각종 전통놀이를 응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방문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밖에 고향의 맛 코너에서는 이십대천 시음회, 한우·돼지고기 시식회, 배·사과 시식회 등을 운영하였고, 시골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전시·판매하면서 이천쌀밥과 빈대떡 등으로 막걸리도 마실 수 있는 주막거리도 설치하였다. 자세한 공간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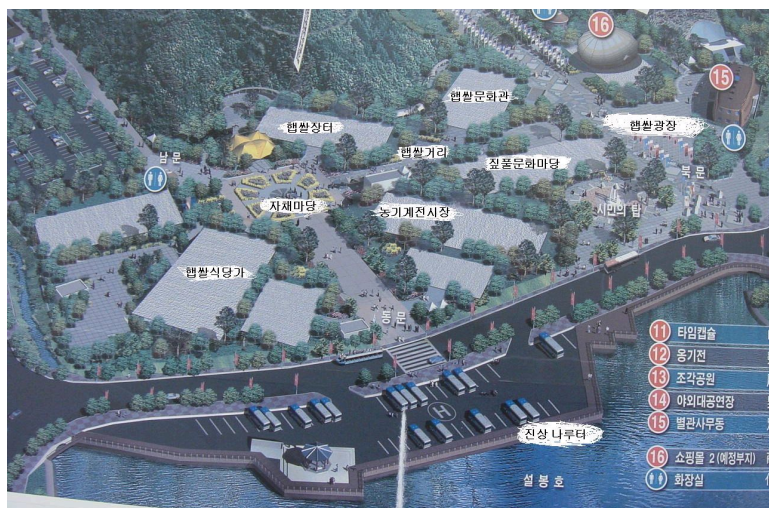
이천해쌀축제 2001 공간별 프로그램

주제/공간	프 로 그 램
농업인의 날 (10: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24, 농업인대상 시상식 ○10/25, 4-H 경진대회 겸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10/26, 농협작목반 연찬회 ○10/27, 농촌지도자회 연찬회 ○10/28, 쌀전업농 연찬회
읍면동의 날 (11: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24, 신문면·장호원읍·관고동 ○10/25, 백사면·설성면·창전동 ○10/26, 호법면·율면·중리동 ○10/27, 마장면·모가면 ○10/28, 부발읍·대월면
타작마당 (13: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당질(탈곡) ○해쌀짚기(가정용정미기) ○인절미 만들기 ○명석·가마니 짜기 ○이영·용마름 엮기 ○각종 농기계 전시
옛날마당 (13: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월:장치기 놀이 (27/28일, 오후 1시·3시) ○신문:용싸움 놀이 (24/27/28일, 오후 5시) ○율면:거북놀이 (24일, 오후 4시) ○호법:달구지 (24/25/26/27/28일, 13:00~18:00) ○백사:경운기 (24/25/26/27/28일, 13:00~18:00)
솜씨마당 (13: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옴집 만들기 ○가마니 높이 쌓기 ○농기(農旗) 만들기 ○우리 가락 한 마당 (품물)
고향의 맛 (13: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섭대천 시음회 ○한우·돼지고기 시식회 ○배·사과 시식회
어울마당 (마춤형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동서남북 ⇒ 단체 기마전 ⇒ 닭싸움 ○새끼꼬기 (⇒ 줄씨름 ⇒ 줄넘기 ⇒ 풍년 줄다리기) ○논빼미 3중 경기 (굴렁쇠⇒자전거⇒지게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장치기 (골프식)
대동놀이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놀이⇒줄다리기⇒농기싸움⇒달집태우기·강강술래
시 골 장 (상설운영)	<p>난장 - 쌀값 널뛰기, 각종 농작물, 뽕튀기, 품바 등</p> <p>주막 - 밥(쌀밥·국밥·추어탕), 국수·빈대떡·막걸리 등</p>

제4회 이천햅쌀축제 2002

행사장소가 마땅치 않아 논바닥에서 개최했던 2001년과 달리 2002년도 이천햅쌀축제 2002는 설봉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개최를 계기로 잘 갖춰진 설봉공원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공간별로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배치하였다.

우선 설봉공원입구에 햅쌀광장을 마련하고 이천시에 거주하는 예술단체 또는 직능단체별로 하여금 추수감사제와 마당공연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안쪽으로 짚풀문화마당과 햅쌀문화관을 설치하여 짚공예 체험과 전시, 쌀품평회 및 쌀요리전시 등을 하였다. 햅쌀장터에서는 햅쌀 판매를 하였고, 자채마당에서는 읍면별 경연과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햅쌀식당가에서는 햅쌀로 지은 음식을 판매하였다. 설봉호수에는 진상나루터를 설치하고 진상미 지게지기, 진상미 운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02년도 이천햅쌀축제장 배치도>

반면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의 연계행사로 치렀던 전년과 다르게 2002년 축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0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다. 첫날은 생산자의 날로 지정하고 농업인의 자축행사 겸 추수감사제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이튿날은 소비자 감사의 날, 마지막 날은 어울림의 날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도록 진행하였다.

- 시기 : 2002년 10월 25~27일
- 주제 : 하늘의 美 + 땅의 味 = 이천의 米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협쌀축제추진위원회
- 행사 : (25일) 생산자의 날
(26일) 감사의 날
(27일) 어울림의 날
- 후원 : 농촌진흥청, 경기도, 이천시농협

한편 2002년부터 축제의 주제를 매년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의 경우 ‘하늘의 美 + 땅의 味 = 이천의 米’라는 주제를 설정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이천쌀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자 하였다. 즉, 아름다운 하늘과 기름진 땅에서 생산된 최상의 이천쌀을 축제방문객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다.

그밖에 자채마당 놀이프로그램을 담당한 사단법인 문화마을 들소리 단원을 야간에 대월면 군량리 ‘자채방아마을’로 유도하여 축제장과 농촌관광마을을 연계하는 광역적 행사로 이천협쌀축제를 운영해보는 실험을 하였다. 비록 외지관광객도 일부 참여하였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

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당 축제가 안정된 후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숙박방문을 할 경우에 야간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인하였다.



<2002년, 자채방아마을의 연계관광 및 야간프로그램>

이처럼 2002년도 축제는 다양한 실험의 연속이었다. 공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공간별로 책임 운영제를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인근마을과 연계하여 야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축제와 차별화된 신선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였는바, 연말에 문화관광부가 선정·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기 위해 각종 개최 결과를 집대성하여 문화관광축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2년 12월 23일. 이천햐쌀축제가 진주남강유등축제, 산청지리산한방약초축제, 온양문화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정읍전국투우축제, 합천팔만대장경축제 등과 함께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비록 문화관광 예비축제는 국비 지원은 없었지만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다.

성장기

제5회 이천햐쌀축제 2003

호사다마. 2002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이천햐쌀축제는 2003년이 시작되면서부터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님 아나라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동시에 치러지게 될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 일정이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로 확정되는 바람에 제5회 이천햐쌀축제가 설봉공원을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어쩔 수 없이 대체장소를 물색하게 되었으나, 2001년에 사용했던 논은 비가 오기만 하면 쓸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궁여지책으로 흙먼지가 날리던 행정타운 부지(지금은 그 자리에 이천청사가 들어섰음)를 축제장으로 선택하였다.



<현재 이천시청사가 들어선 2003년도 이천햐쌀축제장>

한편 2003년도 축제의 주제는 ‘러브 미 이천 쌀’로 정하였다. 수도작 관련 문화와 놀이를 통해 쌀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그런 주제를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마당질체험, 쌀밥 맛보기 등을 통해 이천의 맛을 느끼도록 하였고, 추수를 끝낸 들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연의 멋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리고 쌀문화·역사관을 통해 민족의 쌀을 추억하도록 하였다.

- 시기 : 2003년 10월 23~26일
- 주제 : 러브 米 이천 쌀
- 장소 : 이천시 행정타운 부지
- 주관 : 이천협쌀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경기도, 이천시농협

주제	Love 米, 이천 쌀! 수도작 관련 문화·놀이 통해 쌀에 대한 사랑 느끼고 소비 촉진하는 축제		
연출 방향	이천의 맛 (利川味)	자연의 멋 (自然美)	민족의 쌀 (民族米)
핵심	▪ 기름진 땅 깨끗한 물 깊은 맛	▪ 추수를 끝낸 들판의 마을축제	▪ 우리 겨레의 영원한 에너지원
예시	▪ 마당질, 방아찰기 ▪ 쌀밥, 농산물장터	▪ 가을 논 장치기 ▪ 햅쌀 대등놀이	▪ 쌀요리 · 농업유물 ▪ 쌀 문화 · 역사관

하지만 야간 부대행사로 기획한 자채방아마을의 연계프로그램은 예

산과 인력의 제약, 모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행단계에서 보류되었다. 대신 축제장으로 사용된 행정타운 바닥 전체에 지푸라기를 깔음으로써 어느 정도 농촌의 분위기를 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축제장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농촌의 들판풍경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재미난 추억을 쌓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6회 이천쌀문화축제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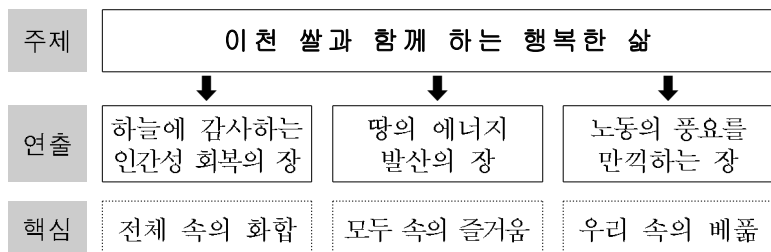
과거 지역축제의 틀에서 탈피하여 2003년에 처음으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문화관광축제’ 브랜드로 축제를 개최한 결과, 축제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즉, 보다 폭 넓은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축제명칭을 ‘햐팍’에 한정시키지 말고 ‘쌀문화’로 확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2004년부터 축제명칭을 이천쌀문화축제에서 ‘이천쌀문화축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축제장소 역시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행정타운 부지를 벗어나 2004년부터는 다시 설봉공원으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축제행사를 치르고 있다.

- 시기 : 2004년 10월 21~24일
- 주제 : 이천 쌀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농촌진흥청·경기도·한국관광공사·이천농협

2004년도 정부가 정한 ‘쌀의 해’를 기념하여 ‘쌀은 생명이다’라는 명제 하에 쌀 생산국과 연계행사를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그 해의 주제는 ‘이천쌀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으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인간성 회복의장(화합), 땅과 함께 한 일 년의 에너지 발산의 장(즐거움), 그리고 삶의 근간인 노동의 풍요를 만끽하는 장(배품)으로 구분하여 공간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6개로 구분하였다. 첫째, 공식행사로써 개폐막식 및 국제쌀문화관 개관식을 들 수 있으며 둘째, 기획행사로써 임금님 진상행렬 및 추수감사제, 세상에서 가장 긴 가래떡 만들기 등이며 셋째, 체험행사로써 이천쌀 이천명 공짜를 비롯하여 각종 전통놀이체험이 운영되었다. 넷째, 전시·판매행사로써 햅쌀장터와 주막거리 등이 있었으며 다섯째, 참여행사로써 시민과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경연대회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계행사로써 농업인단체행사, 사진촬영대회, 풍물경연대회 등이 준비되었었다.



2004 이천쌀문화축제의 공간구성은 공식행사 및 공연이 이루어지는 어울마당을 비롯하여 이천의 문화를 구경할 수 있는 솜씨마당, 짚과 관련된 놀이와 타작을 체험할 수 있는 풍년마당, 국제쌀문화전시관, 그리고 주막거리와 난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예년과 색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임금님 진상행렬과 세상에서 가장 긴 가래떡을 들 수 있다. 임금님 진상행렬은 옛날 한양의 임금님께 이천 쌀을 진상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천시민들이 참여하는 진상행렬로 재현한 행사였다. 진상행렬은 개막식에 맞춰 이천시내를 거쳐 축제장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긴 가

래떡은 이천쌀로 가래떡을 뽑아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나눔의 행사로써 기획되었다. 이때 가래떡은 600m를 뽑아내어 이천명의 사람들이 각자 30cm씩 나누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이천(利川)의 동음이의어인 ‘2000’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나눔의 행사였다.



<2004년 이천쌀문화축제의 임금님 진상행렬 및 개막식>

제7회 이천쌀문화축제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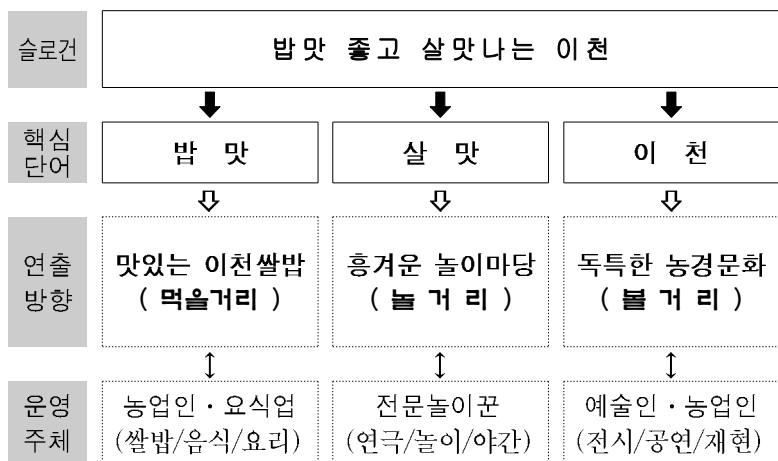
이천쌀문화축제가 2003년과 2004년 연속 예비 문화관광축제로써 손색 없이 치러진 결과 2005년부터 유망 문화관광축제로 승격되었다. 그간 변변한 축제장도 없이 질편한 논바닥과 흙먼지 흩날리는 주차장을 오가며 곳곳하게 축제를 준비한데 대한 보상이었다. 특히 문화관광축제에 진입한지 2년 만에 이룬 쾌거였기에 승격의 의미가 남달랐다.

이러한 유망축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을 개발하기로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가마솥밥 이천명! 이천원!’이었다. 한번에 이천 명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대형 가마솥을 준비하고 여기에 밥을 지어 2천원의 식대를 받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원래 가마솥밥 이천명! 이천원!은 매일 오후 1시에 한번만 배식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방문객들의 인기에 힘입어 이제는 하루에 두 번씩(낮 12시와 오후 2시) 배식을 하고 있다. 가마솥밥을 맛본 방문객들은 한동안 행사장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솥바닥에 늘어붙은 ‘누룽지’를 움켜지고는 만세를 부르며 즐거움을 만끽하곤 하였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표방한 제7회 이천쌀문화축제는 밥맛 좋고 살맛나는 이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대대적 혁신을 도모하였다.

- 시기 : 2005년 10월 6~9일
- 주제 :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경기도·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전술한 대표프로그램 이외에 이천쌀밥 명인전, 가족인형극, 땅거미 판굿 등의 전략적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이천쌀밥 명인전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천쌀밥을 홍보하기 위해 2시간 간격으로 작은 가마솥에 밥을 짓고 방문객들에게 시식하게 하는 행사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가족인형극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농업·농촌과 관련된 인형극을 보여줌으로써 농촌에 대한 추억을 쌓아가도록 기획되었으며, 땅거미 판굿은 방문객들의 야간체류 증대 및 소비지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야간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여기서 땅거미 판굿의 경우 이천쌀문화축제가 축제의 기본에 해당되는 ‘대동난장’을 형성

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으나 이듬해부터 축제개최시기가 10월말로 환원되는 바람에 쌀쌀한 날씨로 인해 2005년과 같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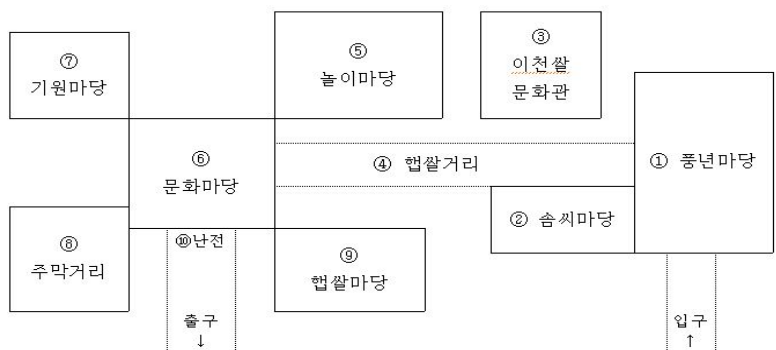


<가족인형극, 옥수수 올라리 너머로 구경하는 아이들>



<이천쌀밥 명인전>

한편 2005년부터 이천쌀문화축제의 운영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이천쌀문화축제의 핵심공간에 해당되는 풍년마당·문화마당·기원마당에 대해 공간별 책임운영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즉, 전문놀이단체로 하여금 해당 공간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결과적으로 공간별 행사 완성도가 현저하게 향상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공간별 운영방식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05년도 이천쌀문화축제장 배치도>



<기원마당에서 관광객과 함께 하는 극단 '갯돌'>

제8회 이천쌀문화축제 (2006년)

제8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전년도에 이어 유망 문화관광축제로 개최되었으나 개최시기는 10월 하순으로 환원되었다. 비록 이천이 예로부터 조생종인 자재쌀로 유명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중만생종인 추청쌀을 생산하는 까닭에 농업인들이 추수를 모두 끝내고 축제를 하자는 의견을 피력해 내린 결정이었다.

- 시기 : 2006년 10월 26~29일
- 주제 : 멋스러운 이천, 맛깔스러운 쌀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경기도·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주요 공간으로는 농업인들이 풍년을 자축하는 풍년마당을 비롯하여 맛있는 밥짓기와 인형극을 즐길 수 있는 솜씨마당, 이천쌀에 대한 홍보와 농경문화체험이 가능한 문화마당, 농경문화와 관련된 전통놀이를 즐기는 놀이마당, 이천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장으로 쓰이는 햅쌀마당, 마당극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는 기원마당, 이천쌀로 지은 쌀밥과 약주 한잔을 걸치는 주막거리, 이천에서 생산된 햅쌀과 각종 농특산물을 맛보고 사는 햅쌀장터, 그리고 난전과 햅쌀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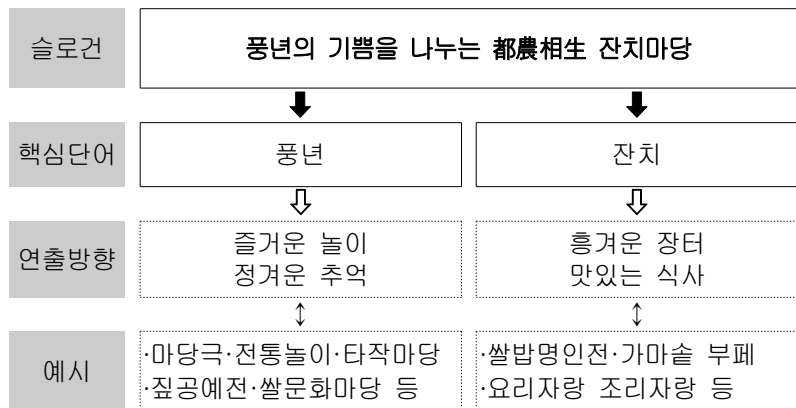
한편 2003년에 ‘이천쌀 2000명 공짜’라는 프로그램은 일종의 스탬프 릴리로써 경품응모권을 가지고 축제장 곳곳을 다니며 확인도장을 찍어 오면 특정 시간에 추첨을 하여 소정의 이천쌀을 증정하는 행사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많아지고 있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이천쌀문화축제 경품응모권에 기록된 방문객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이용하여 훗날 농산물 직거래 또는 초청장을 발송하기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제9회 이천쌀문화축제 (2007년)

‘흐드러진 풍년마당 멋들어진 잔치마당’이란 주제로 열린 제9회 이천쌀문화축제는 풍년과 잔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즉, 풍년을 축하하는 즐거운 놀이와 정겨운 추억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고, 흥겨운 장터와 맛있는 식사를 잔치로 엮음으로써 도농상생의 축제를 표방하였다.

- 시기 : 2007년 10월 25~28일
- 주제 : 흐드러진 풍년마당 멋들어진 잔치마당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경기도·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원마당과 놀이마당에서는 전문놀이꾼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질과 몰입도를 높이고 있었다. 더불어 쌀밥카페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보다 품격 높은 이천쌀밥 시식코너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2007년 이천쌀문화축제장의 놀이마당과 기원마당>

성숙기

제10회 이천쌀문화축제 (2008)

이천쌀문화축제가 여타 문화관광축제와 다른 점은 시간중심의 무대전개형 운영방식이 아니라 공간중심의 독립적·동시다발적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시간대에 여기저기서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는 까닭에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바빠지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재미난 프로그램을 다 보지 못하게 된 방문객들은 아쉬움을 간직한 채 내년에 다시 재방문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별다른 홍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쌀문화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운영방식 덕분에 이천쌀문화축제가 유망축제로 승격한지 3년 만에 한 단계 높은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승격되었다. 이를 기념하고자 제10회 축제에서는 ‘풍요의 땅 생명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한층 격조 높은 축제를 선보이게 되었다.

- 시기 : 2008년 10월 23~26일
- 주제 : 풍요의 땅 생명의 씨앗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무엇보다 우수축제로 승격되면서 국비 지원금이 다소 늘어났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으로 축제의 품격과 내실을 기하는데 투자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과거 예산제약으로 인해 획일적인 몽골텐트 밖에 설치할 수 없었던 행사부스를 농촌미를 살린 부스로 바꿔 설치함으로써 축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설치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강풍에 약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제10회 축제부터 야외무대 앞의 공터에 씨름판을 설치하고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씨름대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꽃 나눔 행사, 다문화 솜씨경진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소통하고 함



<2008 이천쌀문화축제의 가마솥의 누룽지>

게 어울리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제11회 이천쌀문화축제 (2009)

제11회 이천쌀문화축제의 주제 겸 슬로건은 ‘행복이 넘실거리는 흥겨운 풍년잔치’로 정하였다. 축제장을 찾은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도움으로써 행복을 나누고, 더불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흥겨운 놀이를 즐기는 잔치마당을 꾸미려는 의도의 발로였다. 세부적으로는 행복(도농상생), 흥겨움(즐거운 난장), 풍년(맛있는 음식)을 키워드로 행사장을 구성하였다.

- 시기 : 2009년 10월 22~25일
- 주제 : 행복이 넘실거리는 흥겨운 풍년잔치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쌀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슬로건	행복이 넘실거리는 흥겨운 풍년잔치		
핵심단어	행 복	흥겨움	풍 년
연출방향	도농상생	즐거운 난장	맛있는 음식
운영주체 (형태)	도시민 + 농업인 (직거래/어울마당)	전문 놀이꾼 (공간별 책임운영)	농업인단체 (요리/시식/판촉)
예시	직거래장터 타작공예체험	마당극/전통놀이 대동놀이	쌀밥카페 무지개가래떡

전년도와 다르게 축제장을 11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각 공간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예컨대 풍년마당의 경우 거북놀이와 같은 향토문화를 시연함으로써 축제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하였으며, 동화마당은 어린이와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해 구성하였고, 문화마당은 이천쌀을 홍보하기 위해 농경문화체험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놀이마당과 기원마당은 전문놀이꾼으로 하여금 축제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였다.



<기원마당에서 열리는 극단 갯돌의 마당극>

한편 2009년부터 이천쌀문화축제장의 제일 안쪽에 설치된 농경마당을 극단 ‘청계’의 배우들로 하여금 마당 전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계약함으로써 또 하나의 독립적 운영공간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써 놀이마당, 기원마당, 농경마당, 풍년마당 등이 당 축제의 핵심공간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축제장 입구 오른쪽 뒤편에 위치한 야외무대 공연장에 이천시민들을 위한 이천씨름왕 선발전과 농심풍년 큰잔치를 배치하였다.



<농경마당에서 공연하는 극단 청계>

예년에 비해 달라진 또 다른 점은 햅쌀장터를 축제장 외곽으로 과감하게 이전한 것이었다. 축제장을 둘러보고 나가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햅쌀장터에 들러 햅쌀을 비롯한 각종 농특산물을 사가도록 배려한 것이다. 바로 옆에 도로가 있었으므로 배달서비스도 무리 없이 제공할 수 있었다.



<축제장 출구 쪽에 설치한 햅쌀장터>

제12회 이천쌀문화축제 (2010)

‘예스런 잔치마당 탐스러운 이천쌀’이라는 주제로 치러진 제12회 이천쌀문화축제는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즉, 도입단계인 풍년마당을 시작으로 전개단계인 문화마당·동화마당, 절정단계인 놀이마당·기원마당·농경마당·대공연장을 거쳐 결론단계인 햅쌀카페·주막거리·햅쌀장터 등의 공간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시기 : 2010년 10월 21~24일
- 주제 : 예스런 잔치마당 탐스러운 이천쌀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특히 햅쌀카페의 경우 대기자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하루 두 번씩 제공하는 대형 가마솥밥은 물론 이천쌀밥 명인전에서 제공하는 쌀밥까지 동이 날 정도로 방문객들의 호응이 좋았다. 본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

기에 충분하였다.



<길게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리는 쌀밥카페 손님들>

한편 축제장 입구 후미에 있는 대공연장에서는 이천시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이천시 씨름왕 선발전과 같은 시민참여형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입지적 특성상 외지방문객들의 동선에서 약간 벗어난 까닭에 이천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자족적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대공연장에서 이루어진 이천시 씨름왕 선발대회>

그러나 최근 외지방문객들이 당 축제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족 요인으로 연계관광의 부족이 꼽히고 있다. 지나치게 도시적인 설봉공원에서 논과 허수아비 등이 연상되는 쌀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황금들녘 또는 추수하는 들판의 이미지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자채방아마을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된다.



<자료사진 : 김제지평선축제의 논바닥 축구>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 (2011)

2011년에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30일간 설봉공원에서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겸 제25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렸다. 따라서 양 행사가 종료된 후 시설물을 철수해야 하는 까닭에 동일한 장소에서 거행되는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는 부득이 11월 초순으로 개최시기가 순연되어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치러졌다.

- 시기 : 2011년 11월 4~7일
- 주제 : 고향의 정취 어머니의 손맛!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열린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

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풍년마당에서 막걸리와 빈대떡을 나누는 사람들부터 기원마당에서 마당극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놀이마당에서 각종 전통 놀이에 푹 빠진 사람들은 바로 ‘축제인(祝祭人)’ 그 자체였다.



<축제의 성공을 비는 기원마당의 고사>

또한 추위와 긋은 날씨를 대비해 대형천막을 설치한 쌀밥카페와 주막거리 안에서는 모든 방문객들이 풍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햅쌀밥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고 있었다. 특히 ‘고향의 정취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다양한 음식이 선을 보였으며, 다문화 주부들의 음식솜씨도 방문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햅쌀거리와 같은 길거리에서는 조랑말 타기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도 아주 좋았다. 주로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조랑말을 타고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이천쌀문화축제에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의 주막거리 풍경>

그러나 예년의 축제와 다르게 제13회 축제에서는 햅쌀장터를 기존의 축제장 앞 일주도로에서 시립박물관 앞 주차장으로 옮겼다. 축제장 공간의 최대 활용 및 설봉호수 일주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내린 조치였다. 비록 예년의 햅쌀장터에 비해 배송거리가 다소



<햅쌀장터 풍경>

늘어났지만 이는 다양한 배송수단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반면 햅쌀장터 안쪽에 품바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동선을 햅쌀장터 깊숙이 유도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축제장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전체적으로 공간의 짜임새가 향상되었다는 평을 듣게 되었다.

제14회 이천쌀문화축제 (2012)

2012년에 개최된 제14회 이천쌀문화축제는 문화관광축제의 진정한 위상을 느끼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 당 축제가 지난 수년간 대단히 우수한 문화관광축제로써 평가를 받은 까닭이었는지, 축제기간 내내 끊임없이 밀려드는 방문객들로 인해 주변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 시기 : 2012년 10월 25~28일
- 주제 : 쌀로 빛은 구수한 세상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단풍에 물든 설봉공원 - 축제장 위쪽>

우선 축제 개최일자가 전년도의 11월초에서 10월말로 환원되면서 축제장 일대가 곱게 물든 가을단풍으로 뒤덮였다. 그로 인해 가을걷이 축제의 분위기가 한껏 살아났다. 향후 축제개최시기를 조금 앞당기면서 황금들녘과 연계한 축제로 확장시킨다면 당 축제의 대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을단풍과 잘 어우러진 농경마당 무대>

2012년도의 축제의 특징은 예년과 달리 마당별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당 축제의 핵심을 이루는 기원마당의 경우 축제방문객과 언제든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발전하였고, 농경마당도 주변 가을환경과 어우러진 무대를 배경으로 수준 높은 진행을 선보였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마당인 풍년마당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운영의 묘도 함께 향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당 축제를 대표했던 놀이마당의 운영자였던 (사)문화마을들소리가 그들의 사정에 의해 다른 팀으로 대체되었다. 자연적으로 놀이마당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새로 투입된 극단 열쭉가 훌륭히 제몫을 하면서 마당간 균형 및 유기적

연계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놀이마당에서 이뤄진 극단 얼쑤의 공연모습>

이처럼 축제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상승하였는바, 이는 2012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천쌀문화축제를 우리나라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2013)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체 42개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김제 지평선축제 등 2개의 ‘대한민국대표축제’에 이어 다음 등급인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이천쌀문화축제가 선정된 것이다.

- 시기 : 2013년 10월 30~11월 3일
- 주제 : 맛스런 내음이 너울~ 흥겨운 어깨는 등실♪
-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최우수축제 선정기념으로 예년과 달리 축제기간을 하루 늘려 5일간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맛스런 내음이 너울~ 흥겨운 어깨는 등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이천쌀밥의 참맛과 함께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특히 이천쌀밥명인전의 경우 남자들도 출전하여 가마솥밥을 지으면서 방문객들에게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남자들이 출전한 이천쌀밥 명인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는 장터에서도 실감할 수 있었다. 다른 아니라 방문객들이 햅쌀장터에서 구입한 이천쌀에 대한 택배 요청물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매일 11톤 트럭이 이천쌀과 다른 농산물을 가득 싣고 배달을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11톤 택배 트럭에 실리고 있는 이천쌀>

한편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고 있었다. 당 축제는 오래전부터 이천에 소재한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이 되다시피 하였는바, 최근에는 외국인들까지 밀려들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 축제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보람찼다고 말했다.



한편 예년과 달리 2013년도에는 햅쌀카페를 완전히 이천쌀로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었다. 2005년에 시작된 <가마솥밥 이천명 이천원> 프로그램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었다. 낮 12시와 오후 2시 매일 2회씩 가마솥에 밥을 지어 방문객에게 제공하였는데, 매번 대기하는 사람들이 수십 미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곤 하였다.



<가마솥으로 짓 지은 이천쌀밥을 배식받는 관광객>

하지만 2011년에 이어서 2013년도도 축제가 예년보다 1주일 정도 늦게 개최되었다. 축제장소인 설봉공원이 이천도자기페스티벌이 10월 20일에 종료되었는바 시설 철수문제로 인해 이천쌀문화축제 개최시기가 늦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그 기간에 날씨가 따뜻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지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향후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4편

이천쌀문화축제의 오늘

이천쌀문화축제의 오늘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바로 오늘날 이천쌀문화축제의 모습이다. 우리의 축제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2013년에 즈음하여, 다른 사람들 눈에 이천쌀문화축제가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 축제장을 찾은 축제전문가의 참여관찰 기록을 살펴본 후 이어서 방문객의 만족도를 비롯하여 축제공간과 프로그램 그리고 제반 효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어서 전국에서 개최된 문화관광축제와 비교하여 우리 축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정성평가

개요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의 축제장을 누비며 최고의 현장전문가로 활동해 온 축제경영연구소 정신 소장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이천쌀문화축제의 공간,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실었다. 그는 제15회 축제기간에 4일 동안 축제장에 체류하면서 세밀하게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총평

농경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이천의 쌀문화축제는 처음에는 쌀을 중심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물산전 형태를 띠기도 하였으나, 이후 축제장을 마당형식으로 구성하며 큰 변화를 보였고 이제는 본격적인 가을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풍년제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풍년제 형식에 축제성을 갖춘 거북놀이, 용줄다리기, 쌀밥카페, 무지개가래떡 뽑기, 주막거리 등의 프로그램이 진가를 발휘하며 특산물축제가 아니라 풍요를 나누는 장터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천 쌀문화축제의 성공 요인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좋은 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 그리고 수도권에서 나들이하기 좋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축제장이 도움이 된 것과 더불어 즐기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갖춰진 것도 빼뜨릴 수 없다.

이천 쌀문화축제는 풍년마당, 동화마당, 문화마당, 햅쌀거리, 놀이마당, 기원마당, 농경마당, 쌀밥카페, 햅쌀장터, 주막거리로 테마마당으로 운영되며 각 마당마다 성격에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각 마당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잘 운영되었다. 어느 순간 어느 마당에 있더라도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졌다. 그래서 축제장 전체가 동시에 떠들썩하고 즐거움에 넘쳤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각 마당의 특징이 불분명한 프로그램이 해당 마당의 프로그램에 구성되어 있었고 각 마당의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차별화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 각 마당의 특징을 분명히 하고 해당 마당에 알맞은 축제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것이다.

풍년마당

풍년마당에서는 거북이 길놀이를 시작으로 거북이 주막, 거북놀이 체험, 거북이 홍보관, 거북이 만들기, 포토존 등의 상설놀이, 그리고 전통혼례, 농사체험-춘하추동, 남사당놀이-줄타기, 풍물연합굿판, 사물놀이 한판, 이천풍물놀이 등이 펼쳐졌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인 거북놀이는 길놀이 형식으로 펼쳐졌지

만 마당극 형태도 갖춰 방문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거북놀이와 관련하여 홍보관과 만들기 체험도 갖추어서 거북놀이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주었다.

한편 거북이 주막은 전통의 주막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편안함을 제공하였으나 축제장 정문에 위치하여 방문객에게 축제장의 첫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규모면에서 작아서 오히려 별도의 공간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적정규모의 주막을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적합장소로는 주막거리 주변이 좋겠다.

농사체험-춘하추동은 퍼포먼스 형식을 갖췄으나 동화마당의 모내기 체험장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마당 구성에서 겹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 포토존의 경우도 풍년마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구성이다. 전통혼례도 자체로는 좋은 볼거리이나 풍년마당과 적절한 구성의 프로그램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풍년마당은 거북놀이를 중심으로 전통의 연희가 펼쳐지는 마당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사물놀이나 풍물놀이의 경우도 공연형태를 벗어나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겠다.

동화마당

동화마당은 축제소비자의 중심인 가족동반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며,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가족인형극인 개미와 베짚이를 중심으로 마임과 마술 등의 공연을 펼쳐보였다. 방문객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한편으로 무대 없이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마당극 형식의 공연 형태는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마당에 모내기 체험장과 벼탈곡 체험장이 있는데 동화마당과 잘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 구성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농경마당으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 또 인절미 만들기, 서경들, 천연염색 등의 프로그램 부스도 동화마당과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동화마당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다. 특히 축제와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펼쳐진 마당에서 함께 온 부모와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당하다. 가급적 농촌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면 금상첨화이겠다.

문화마당

문화마당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곳이다. 통기타라이브, 7080라이브에서 한국무용, 민요한마당, 신명의 두드림과 같은 국악 공연과 힙합댄스, 비보이댄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하지만 문화마당이 실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공간이었고 가을의 정취 속에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들을 불러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연의 종류가 비슷비슷하고 수준도 일정하여 관심을 끌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전통과 일반적인 공연 콘텐츠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로운 콘텐츠를 확보해야 할 것 같다.

문화마당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불러들인 프로그램은 스탬프앨리이다. 이천 쌀문화축제의 스탬프앨리는 타 축제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각 마당을 돌며 스탬프를 받아오면 문화마당에서 추첨을 통해 이천쌀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축제장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농경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헵쌀거리

헵쌀거리는 축제장의 여러 마당을 이어주는 중심 통로이다. 이곳에서

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용줄다리기, 진상마차 등이다. 그리고 농촌의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허수아비 전시가 펼쳐진다. 이 햅쌀거리를 중심으로 각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방문객에게 엿을 나눠주는 엿장수 퍼포먼스는 마치 시골장터를 온 것과 같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용줄다리기는 이천의 읍면동이 참여하는 용줄다리기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용줄다리기로 나눠 치러졌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주었다. 특히 용줄다리기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한국의 역동적인 전통놀이에 참여하는데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용줄다리기에 치중하여 용줄을 옮기고 비너목을 쫓는 등의 흥미로운 퍼포먼스가 생략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놀이마당

놀이마당은 민속놀이터, 마당놀이터, 다양한 전통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속놀이터는 제기, 투호, 널뛰기, 새끼줄씨름, 외줄타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 방문객 스스로 체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지만, 가끔은 별도의 진행자가 운영을 맡기도 했다. 자율과 집중을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적인 체험을 즐기는 광경은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 어떤 방법이 적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팽이만들기, 달고나, 대나무물총, 난타체험의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소홀한 듯하다. 체험을 유도하는 운영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충분히 체험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특히 난타와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체험을 마치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한편 해마다 같은 아이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마당놀이터에서 펼쳐지는 난타공연은 일반적인 공연뿐만 아니라 방

문객이 공연에 참여하게끔하여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놀이마당, 기원마당, 농경마당 등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각 마당의 특징을 살리면서 즐거움을 더해주는 콘텐츠로 손색이 없다.

기원마당

기원마당의 특징은 마당극-이천천지밥과 같은 거리공연에 있다. 농촌의 풍경과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고 소원지를 통해 소망을 기원하는 기원마당은 정적일 수 있는데 마당극-이천천지밥, 동냥놀이-품바품바, 타악즐감-김치의 일생, 세시풍속놀이체험, 햅쌀 대동놀이 등으로 축제성을 풍부하게 한다.

장승체험은 기원마당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인데 전문가의 장승 조각 시연 외에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서 보기에 좋았다. 그런데 날카로운 칼과 고무망치를 다루는데 부모와 함께 좁은 공간에 엉켜서 자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쌀탈만들기, 매직쌀방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농경마당으로 옮기고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장승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원마당의 성격에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겠다. 어찌되었든 기원마당은 다양한 공연으로 축제 전체 일정 동안 방문객을 즐겁게 해주었던 공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농경마당

농경마당은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체험 그리고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농기구전시관, 가마니짜기, 짚풀공예 등과 뽕튀기, 달고나, 가래떡굽기의 프로그램도 있다. 또 노래방, 마당극, 팔씨름대회 등과 같이 별도의 공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상설 프로그램으로 지게꾼, 쌀가마들기, 새끼줄씨름, 짚단던지기 등도 운영되었다. 전반적으

로 농촌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농경마당에서도 별도의 진행자가 몇몇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여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해주었고 방문객이 자율적으로 전시나 체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적절한 시간이 배분된다면 운영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경마당에는 각 마당에 포함되어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구성되었으면 한다. 앞서 말했듯이 모내기체험, 벼탈곡체험, 천연염색, 쌀탈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쌀밥카페

쌀밥카페의 프로그램으로는 2000명분의 쌀밥, 쌀밥 명인전, 세계쌀요리경연대회, 외국인 송편만들기 등이 있다. 그리고 쌀과 관련된 판매부스들로 구성되었다. 이 쌀밥카페 공간에도 다른 마당과 같이 작은 음악회라는 공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당의 활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

2000명분의 쌀밥은 최근 양양송이축제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천 햅쌀로 대형 가마솥에서 밥을 지어 열갈이배추와 고추장만으로 비벼먹는 프로그램이다. 가격은 2,000원이다. 보기엔 소박해 보이지만 농촌의 장터에서 밥을 먹는 정취를 느끼게 해주고 특히 이천 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어서 인기가 높다.

그런데 세계쌀요리경연대회, 외국인송편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다. 쌀밥 명인전 프로그램도 썩 나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2,000명분의 쌀밥과는 별도로 외국인인인 짓는 쌀밥, 명인의 쌀밥으로 프로그램을 명명하여 쌀밥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쌀밥카페에서는 2,000명분의 쌀밥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외국인과 명인이 짓는 쌀밥을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 특징짓는 것도 좋을 듯하다.

두부 판매부스에서 두부만들기 체험을 병행하는 것과 인절미 판매부스에서 떡메치기 체험을 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축제에서 판매부스가 하고 있는 시음, 시식을 넘어서 부스 운영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햅쌀장터

햅쌀장터는 몇 년 전만해도 축제장 입구 근처에 부스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당 축제가 물산전과 같은 분위기로 비춰졌다. 그런데 지금의 시립박물관 주차장으로 옮기고 난 뒤로 축제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는 택배 시스템을 갖추고 CD기를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각 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경품권을 햅쌀장터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여 방문객의 햅쌀장터로의 방문을 유도한 것도 돋보인다.

또한 햅쌀거리에서 펼쳐졌던 무지개가래떡 뽑기를 매일같이 햅쌀장터에 실시하여 햅쌀장터의 축제성을 높여주었다. 무지개가래떡뽑기는 인기 만점의 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곡물로 떡을 만들어 600m 길이로 뽑아내고 기네스에도 도전하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도 준다. 빠른 시간에 떡을 뽑아낼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노하우도 갖추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떡을 맛본 사람은 드물다. 순식간에 뽑아놓은 떡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떡을 나눠먹을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점이 이 프로그램의 색다른 매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나눠먹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정량평가

개요

2013년도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부문별 만족도, 프로그램별 만족도, 소비지출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술하자면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장을 찾은 이천시민 및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일과 주말에 걸쳐 개별면접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88매이었으나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53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235매를 정량적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한편 설문통계의 외적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대상은 응답이 가능한 성인(만 20세 이상)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제한적 표본 확보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축제를 즐기고 퇴장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회수된 설문지는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방문객 부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주요한 인구통계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연령층이 26.7%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가 25.9%로 차지하였고, 40대(22.0%)와 30대(15.9%)가 뒤를 이었는데 이들이 전체의 90.5%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이천쌀문화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은 비교적 고른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방문객들의 직업은 주부(19.1%)를 필두로 학생(18.3%), 사무직

(14.0%), 전문직(13.2%), 자영업(11.1%) 등이 뒤를 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59.9%였고 대학 이상이 39.9%였고, 그들의 소득은 200만원~500만원이 전체의 62.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이천시가 28.9%였고 인접지역을 제외한 경기도가 21.3%, 서울시 20.4%, 용인·여주·광주·음성 등 인접시군이 16.2%, 인천시 6.8%,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이 6.4%로 나타났다.

<표 1>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여자	132	56.3
연 령	50대	62	26.7
결혼여부	기혼	162	69.2
직 업	주부	45	19.1
학 령	대재/대졸	139	59.7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61	29.2
거주지역	이천시	68	28.9
	인접 시군	38	16.2
	기타 지역	129	54.9

그들 방문객들이 이천시를 방문한 동기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이천쌀문화축제를 즐기기 위해 왔다고 응답한 비율이 71.5%로써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당 축제의 인지도를 그대로 표현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한편 그들의 동반유형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 경우가 53.6%였고, 친구와 함께 온 경우도 31.5%를 차지하였다. 즉, 전체의 85.1%가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지인과 함께 방문하고 있었다.

한편 그들의 이천시 방문일정은 당일인 경우가 전체의 81.7%였으며, 축제장내 체류시간은 3~4시간 48.5%, 5~6시간 24.9% 등으로써 전체의 73.5%가 4시간 전후 축제장에 체류하고 있었다. 축제장까지

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70.1%였고, 관광버스 17.5%, 셔틀버스 7.3%, 노선버스 1.3%, 도보 등 3.8%의 순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천쌀문화축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로는 주변사람의 추천이 26.9%였고, 이어서 축제홍보물(25.6%), 인터넷 검색(21.8%), 과거 방문경험(13.7%), TV·신문 등 언론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방문경험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5.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들 중 2번째 방문이 22.1%, 5회 이상이 8.9%, 3회 8.5%, 4회 5.5% 등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15회 이천 쌀문화축제에 대한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추천의사, 재방문의도를 조사한 결과 대단히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특히 재방문 의사에서는 매우 우수한 값인 5.44(리커트 7점 척도, 7점 만점)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반적 만족도는 5.36이었고,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5.42, 재방문 의도에 5.44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방문객의 일반적 특성 대표값 요약

구 분		빈도(명)	비율(%)
이천시 방문동기	축제참여	168	71.5
	축제 아님	67	28.5
축제참가동기	공연/체험 등	58	24.7
동반자	가족	126	53.6
체류시간	3~4 시간	113	48.5
정보획득	주변사람	63	26.9
방문경험	처음 방문	129	54.9

방문객 만족도 부문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문화관광축제 평가지침에 열거된 18개 공통평가항목을 중

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다(7점)에서부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1점)에 이르기까지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보통이다’라는 중앙값은 4점이며, 그 4점을 넘으면 우수한 것이고, 4점 이하면 저조한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표 3〉 문화관광축제 공통평가항목 비교분석

항 목		이천쌀 문화축제	‘12문화관광 축제평균	비고
축제장 접근성		5.47	5.26	우수
홍보 안내	사전홍보	4.90	4.84	양호
	안내시설	5.12	4.93	우수
	팜 플렛	5.11	5.00	우수
	친절안내	5.09	5.01	우수
행사 내용	행사재미	5.35	5.04	매우 우수
	행사다양	5.50	5.03	매우 우수
	체험행사	5.23	4.93	매우 우수
	문화이해	5.22	4.89	매우 우수
축제 상품	상품다양	4.71	4.54	우수
	상품품질	4.86	4.59	매우 우수
	상품가격	4.70	4.41	매우 우수
음식	음식다양	4.85	4.46	우수
	음식가격	4.83	4.35	대단히 우수
연계관광지 방문		4.52	4.70	미흡
편의 시설	주차시설	4.45	4.42	우수
	휴식공간	4.59	4.59	보통
	화 장 실	4.71	4.66	우수
전반적 만족도		4.96	4.76	우수

<표 3>에 나타난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행사내용의 다양성’ 항목이 5.50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접근성’ 부분이 5.47, 세 번째로 ‘행사내용의 재미’가 5.35, 네 번째로 ‘체험프로그램’이 5.23으로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즉, 이천쌀문화축제의 행사내용에 대한 방문객 만족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행사장 안내시설의 만족도와 팸플릿에 대한 만족도도 5.12와 5.11로 우수한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밖에 기념품 품질, 음식종류, 음식가격,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식 공간, 연계관광, 주차시설 이용에 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주차장에 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불만을 제기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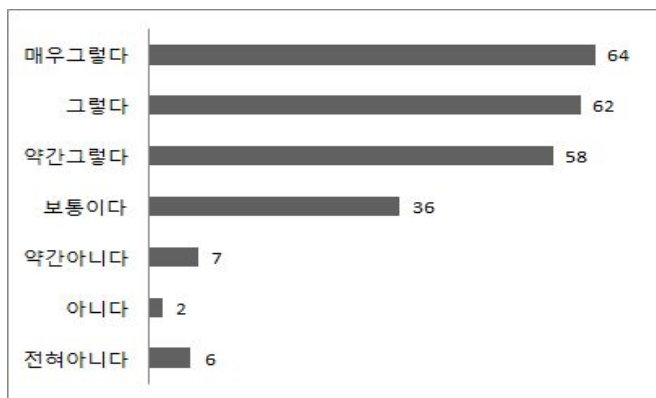
이제부터는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만족도 18개 공통평가항목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로 한다.

접근성

제15회 이천 쌀문화축제 방문객들의 ‘축제 행사장까지의 접근성’에 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5.47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18개 항목 중에서 2번째로 높은 만족도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접근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축제장으로 사용한 설봉공원의 기반시설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3번국도 등 수도권에서 이천시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우수한 것도 일조를 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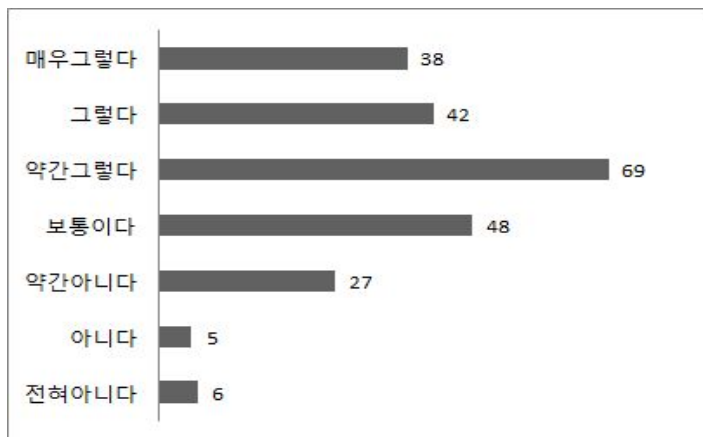
<설문 1> 축제장까지 쉽고 편안히 찾아올 수 있었다

또한 주최 측에서 이천시를 처음 방문하는 초행자들을 위해 축제장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교통결절점마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으며, 축제장 인근 도로에는 축제장까지 남은 거리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접근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였다. 더불어 추진위원회 측에서 대중교통 이용객 및 이천 시민을 위해 버스터미널이나 임시주차장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하였다.

사전홍보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 행사 내용 및 일정’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90로 나타났다. 재방문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방문객들이 축제에 대해 미리 알

고 있음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구전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 2012년도에 개최된 문화관광축제의 평균값 4.84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설문 2>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내용 및 일정을 알았다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

제 15회 이천쌀문화축제

축제소개

프로그램

축제정보

열린마당

이천관광

일일표 행사장안내 축제마당 이벤트



확산글	일일표	자료실	입장정보	문의답하기
[사전 다운로드]2012...			13-02-19	
결과지			12-03-27	
제13회 쌀문화축제 사전 리포트...			12-03-27	
[사전 다운로드]2011...			12-02-01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 포스터...			11-06-09	
제12회 이천쌀문화축제 리플렛...			11-04-11	
제12회 이천쌀문화축제 리플렛...			11-04-11	
이천시 로고비밀...			11-02-22	
쌀축제 로고비밀입니다....			11-02-22	
이천시 캐릭터			11-0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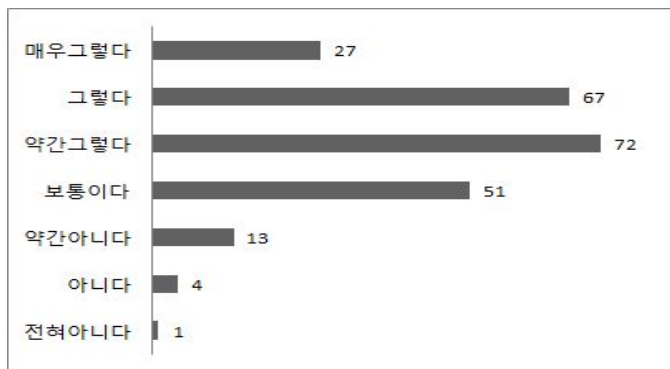


안내시설

‘축제 행사장 내 안내시설’에 관한 만족도를 구한 결과 평균 5.12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18개 측정 항목 중에서 6번째로 높은 값이었으며 문화관광축제에 비해서도 우수한 값이었다.

축제장 곳곳에 설치된 마당들의 가장 앞쪽에 마당이름을 설치해놓아 관광객이 이름을 통해 위치를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마당마다 스탬프 찍는 곳을 마련하여 안내부스로 활용하였다.

또한 외국인 참여가 많은 만큼 외국인 안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구에서 놀이동산 입장과 같은 형식으로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도 신선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장료를 내야하는 것처럼 보여 헛갈렸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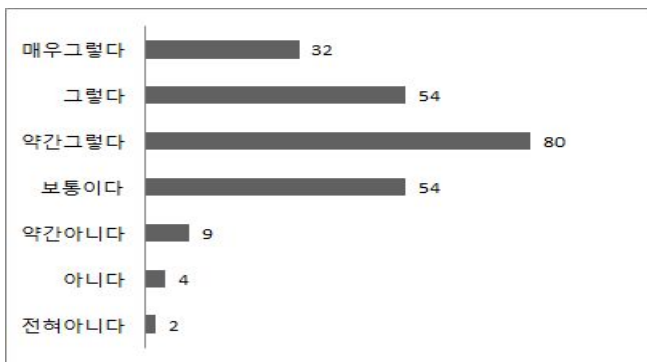


<설문 3> 행사장 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있었다



팜플렛

‘축제행사 팜플렛’에 관한 만족도는 5.11을 기록하였다. 이는 홍보물의 휴대성과 수록한 내용이 좋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축제 팜플렛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고 완주자에게 쌀 추첨권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축제장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한 점도 높은 만족도를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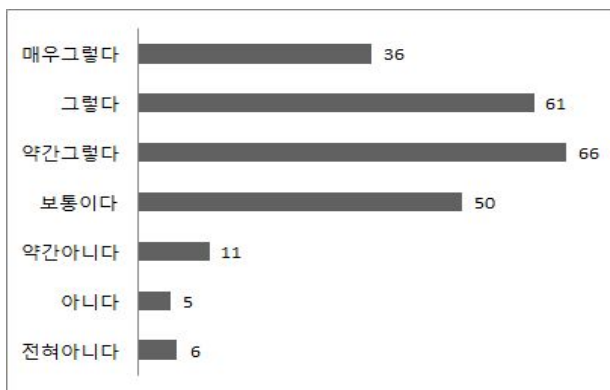


<설문 4> 행사안내 팜플렛이 잘 되어있었다



친절안내

전체 평가항목 중에서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관한 만족도는 5.0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내요원들의 적극적인 서비스 정신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각 마당을 담당하는 배우나 공연자가 직접 안내요원 역할을 하거나 놀이를 주도하는 모습은 타 축제장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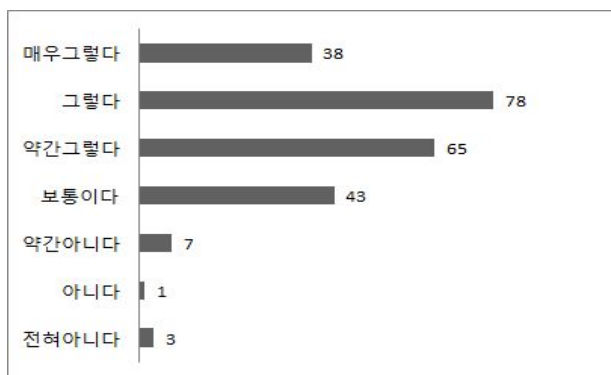


<설문 5> 행사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행사재미

‘행사내용의 재미’에 대한 만족도는 5.35로써 높은 값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8개의 만족도에서 3번째로 높은 값이었으며, 2012 문화관광축제 재미부문 평균 만족도인 5.04보다 매우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마당별로 준비된 프로그램이 이천의 전통문화를 학습하고 즐기는 데에 어렵지 않게 동화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참여자나 진행자 모두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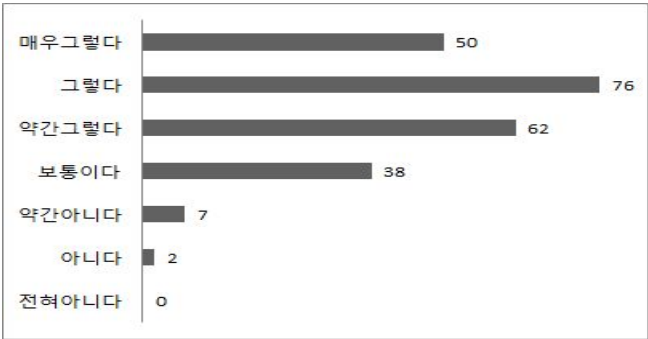
<설문 6> 행사내용이 재미있다



행사다양

‘행사내용의 다양성’에 관한 만족도는 5.50으로 전체 18개 측정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값은 2012 문화관광축제 재미부문 평균 만족도 5.03보다 훨씬 높은 값이었다. 당 축제의 성공을 상징하는 값이었다.

행사내용의 다양성과 재미는 모든 축제의 핵심사항에 해당되므로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었다. 이천쌀문화축제의 경우 두 가지 모두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 대부분의 마당이 축제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고 각 마당의 명칭에 걸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배분이 잘 맞아 관광객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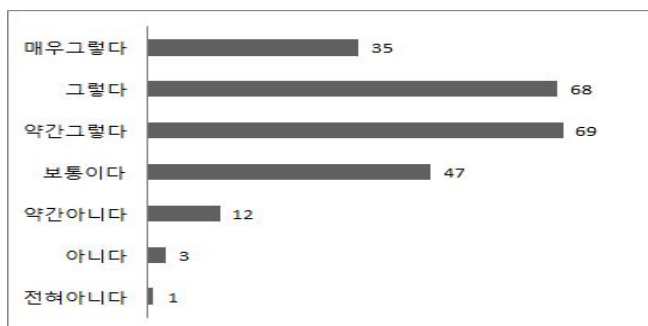


<설문 7>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체험행사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 역시 5.23로 여타 문화관광축제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지개가래떡 만들기와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용줄다리기 등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천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일수록 축제방문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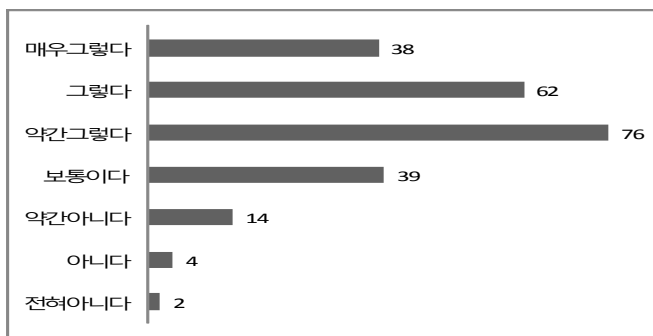


<설문 8>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한다.



문화이해

‘행사내용을 통한 지역문화 이해도’에 관한 만족도는 평균 5.22로서 높게 평가되었다. 여타 축제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평점이 5.0이하로 형성되는데 비해 이천쌀문화축제의 경우 아주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축제의 소재와 프로그램, 명칭 모든 것이 쌀에 맞춰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께 진상했던 쌀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잘 결합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쌀 전시관을 입구에 위치시킴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이천쌀에 대한 내용을 인지시킨 뒤 축제장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도 일조를 한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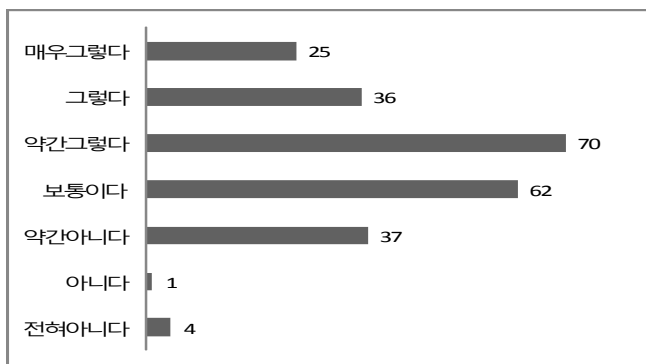


<설문 9> 행사를 통해 이 지역문화를 잘 알게 되었다



상품다양

‘상품 종류의 다양성’ 즉, 축제장에서 준비한 상품에 관한 만족도는 4.71로써 무난한 값을 보였다. 비록 이천쌀을 비롯한 각종 농·특산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보였지만 의외로 설문결과는 낮게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개최된 전국의 문화관광축제의 값(4.5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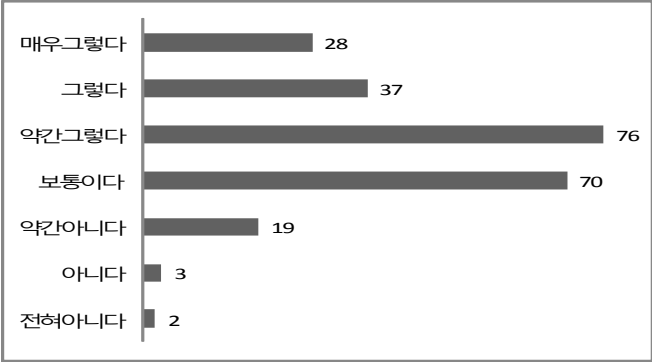


<설문 10> 축제관련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상품품질

‘상품 품질’에 관한 만족도는 4.86으로써 상품의 다양성 문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무난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다양성’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으로써 구매한 상품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음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상품이 쌀과 관련이 있고 가공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인절미만들기와 같이 체험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면 관광객의 기억 속에 더 오래 남게 될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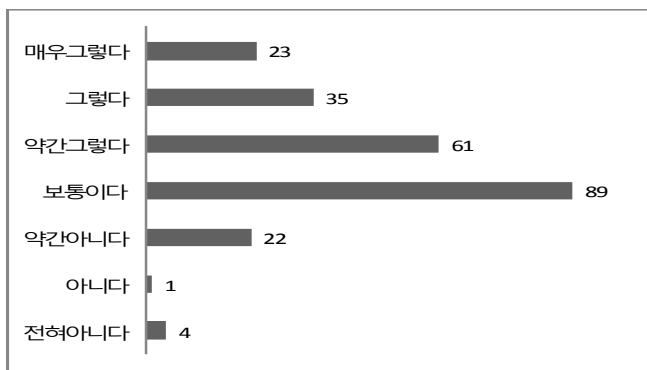


<설문 11> 축제관련 상품의 품질이 좋다



상품가격

‘상품 가격’에 관한 만족도는 평균 4.70으로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2012 문화관광축제는 4.41), 상품가격으로 관광객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미끼’상품과 더불어 상품포장디자인 등에 신경을 씀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구매하게 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낫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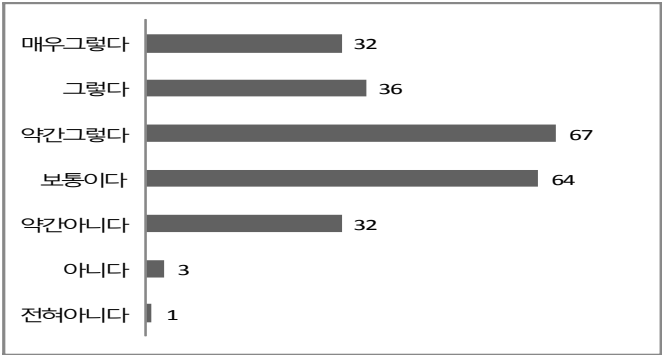


<설문 12> 축제관련 상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음식다양

‘음식 종류의 다양성’에 관한 만족도는 4.85로 무난하게 나타났다. 축제장에서 음식은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천쌀문화 축제의 경우 쌀밥을 중심으로 평가가 좋게 나타났다. 한편 음식의 다양성 보다는 음식의 품질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며, 가마솥밥 이천명 이천원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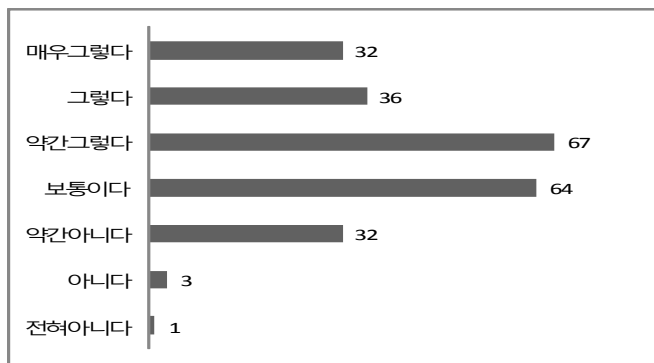


<설문 13> 음식종류가 다양하다



음식가격

‘음식 가격’에 관한 만족도 값은 평균 4.83로 나타났다. 상품가격과 마찬가지로 음식가격으로 관광객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으나 2012년 문화관광축제의 4.35에 비해서 이천쌀문화축제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천원에 가마솥밥을 제공한데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어쨌든 관광객에게 이천쌀을 저렴하게 시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당 축제의 홍보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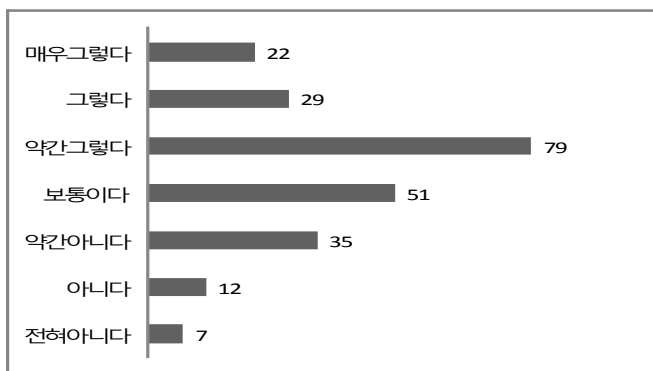


<설문 14> 음식 가격이 적당하다

주막거리메뉴 Jumak Geori Menu	전원식당 Jaewon Restaurant	이천쌀 가마솥밥정식 Ichon Rice Ironpot meal 6,000원	장터국밥 6,000원 도토리묵 6,000원 오뎅탕 6,000원	모듬전 6,000원 해물파전 6,000원	순대 8,000원 닭꼬치 6,000원
	한길식당 Hangil Restaurant	이천쌀밥 한식부페 Ichon Rice Korean Buffet 6,000원	소내장탕 6,000원 어묵우동 5,000원 해물야채전 6,000원	홍합탕 5,000원 골뱅이무침 15,000원 도토리묵 6,000원	수제돈가스 6,000원 닭튀김 10,000원
	자재방아마을 Jachabang Village	이천쌀밥 주여당 Ichon Rice Juchedang 6,000원	묵밥 6,000원 파전 6,000원	묵무침 6,000원	미꾸라지튀김 10,000원
	자유총연맹 477	이천쌀밥 순대국 Ichon Rice Sundaeguk 6,000원	해물파전 6,000원 불고기덮밥 6,000원 죽밥 15,000원	골뱅이무침 15,000원 양파어묵볶음 6,000원 계육덮밥 6,000원	토종순대 15,000원 바베큐 20,000원
	관고동새마을회 Gwanggong Saeaul	이천쌀밥 사골우거지국 Ichon Rice Saengjukguk 6,000원	편육 15,000원 해물야채전 6,000원 돼지껍데기 6,000원	순대 6,000원 도토리묵 6,000원 두부김치 6,000원	홍합탕 6,000원 삼합 25,000원

연계관광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들의 ‘주변 관광지 방문’에 관한 만족도는 4.52로써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의 만족도인 4.70보다도 낮은 값으로써 향후 적극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사)이천농촌나드리의 회원들과 연계관광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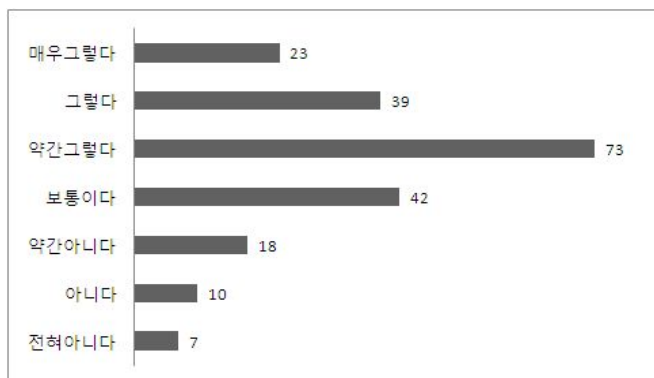


<설문 15> 이곳 주변의 관광지도 방문할 것이다



주차시설

‘주차 이용’에 관한 만족도는 4.45로써 전체 18개 측정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봉공원 내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빚어진 현상이었다. 하지만 공간적 제약 때문에 설봉공원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장기주차를 하는 입점상인이나 이천시민 등이 솔선수범하여 주차장에서 차를 뺌으로써 외지관광객에게 주차공간을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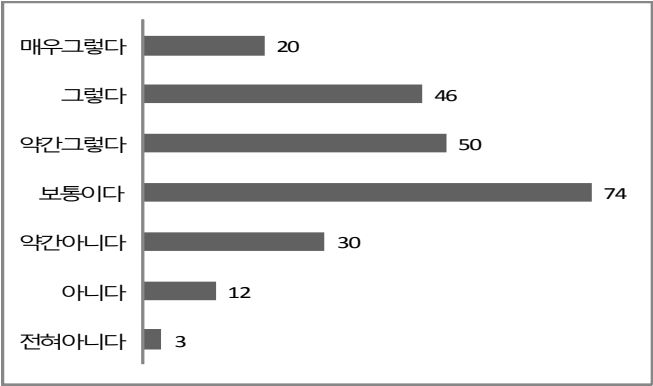


<설문 16> 주차시설 및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휴식공간

‘휴식 공간’에 관한 만족도는 4.59로써 전체 18개 항목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설치된 휴식 공간은 몽골텐트 안의 벤치와 설봉공원의 기본벤치 정도였다. 하지만 축제장에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축제의 기본정신에 위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름지기 축제장은 대동난장의 놀이공간이지 편안한 휴식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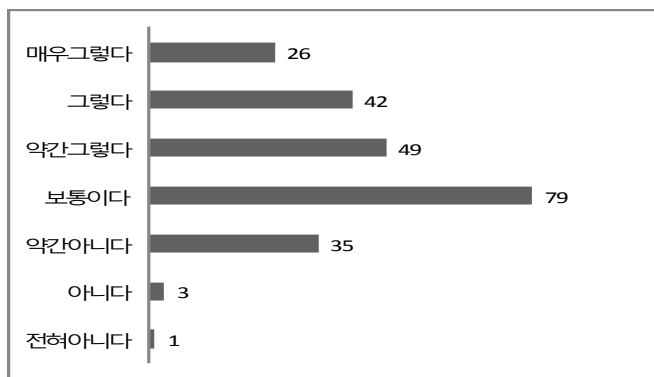


<설문 17> 휴식공간이 잘 되어있다



화장실

‘화장실 청결도’에 관한 만족도는 4.71로써 문화관광축제의 화장실 만족도 4.66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주최 측에서는 설봉공원의 기존 화장실을 중심으로 방문객들의 동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임시화장실을 추가하였으며, 모든 화장실에 대한 관리와 청소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들의 불편이 크게 초래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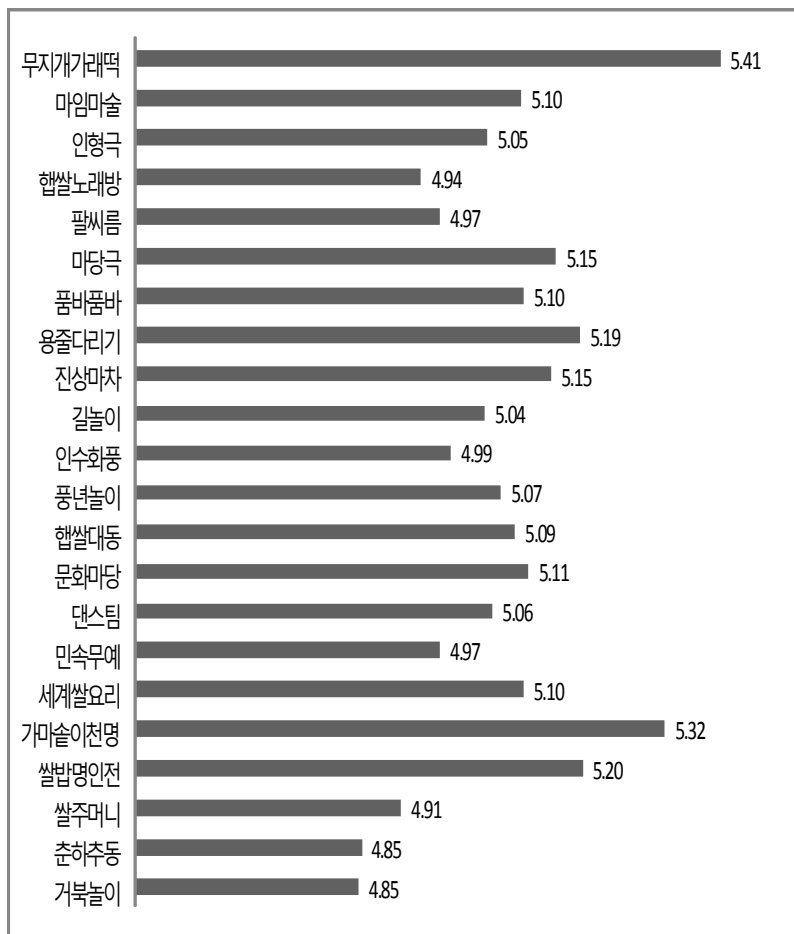


<설문 18> 화장실이 청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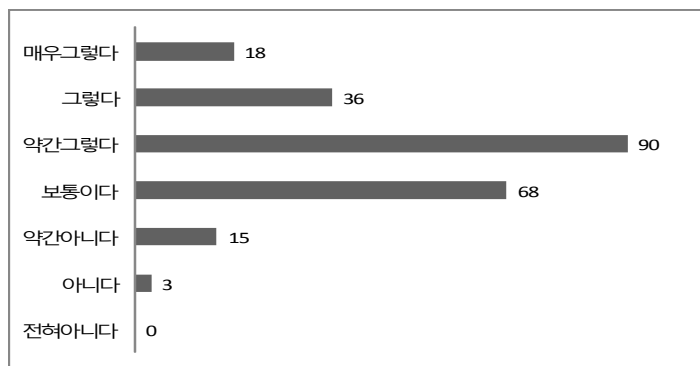
개별 프로그램 부문

2013년에 개최된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에서 준비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무지개가래떡 만들기’와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거북놀이와 춘하추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북놀이

‘이천거북놀이’에 관한 방문객 만족도는 4.85으로써 전체 22개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낮았다. 거북놀이 공연장이 축제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까닭은 놀이꾼과 관중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놀이방식이 참여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천의 고유문화인 거북놀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연행방식의 큰 변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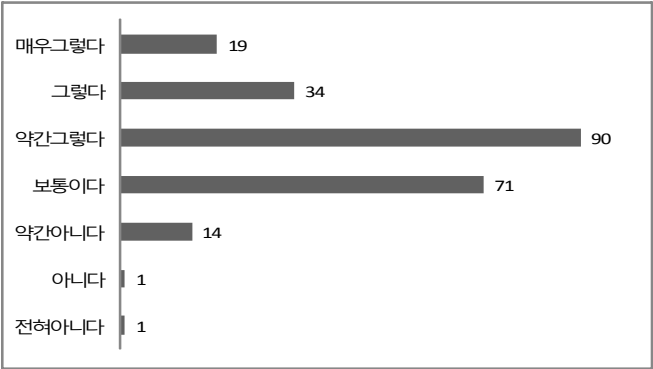


거북놀이에 만족한다



농사체험 - 춘하추동

농사체험프로그램인 ‘춘하추동’에 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4.85으로써 이천 거북놀이와 함께 아주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비록 당 프로그램이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본 축제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농경마당으로의 이전을 포함한 개선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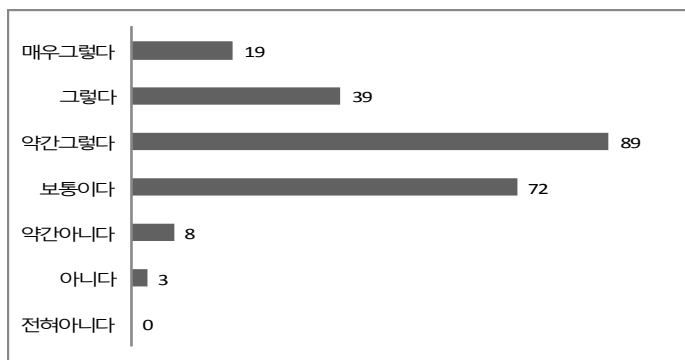


농사체험 - 춘하추동에 만족한다



쌀 주머니 받기

‘쌀주머니 받기’에 관한 만족도는 평균 4.91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22개 프로그램 중에서 20번째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풍년마당에 있는 다른 놀이들도 전체적으로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당 축제와 관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았는데, 앞으로 재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영방법의 개선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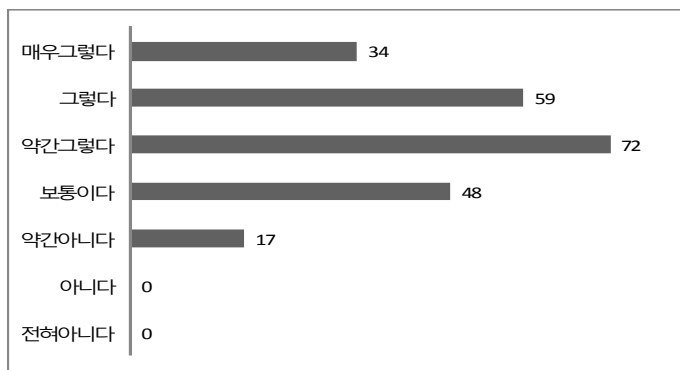


쌀 주머니 받기에 만족한다



이천쌀밥 명인전

‘제15회 이천 쌀문화축제’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천쌀밥명인전’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5.20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22개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항목 중 앞에서 3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각 읍면동의 대표들이 출전하여 가마솥으로 쌀밥을 잘 짓는 명인을 가리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높은 흥미를 유발하였다. 또한 명인의 밥을 맛볼 수 있는 시식회도 좋은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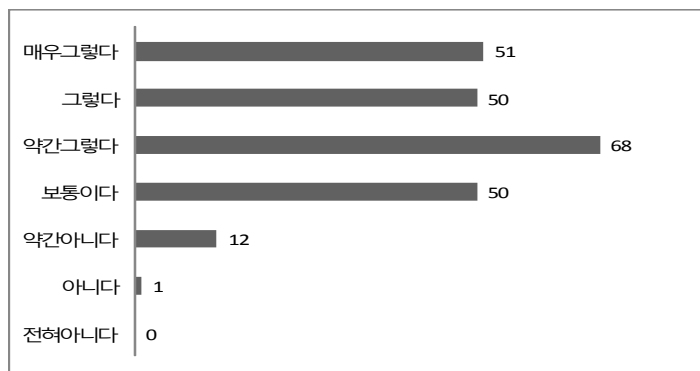


이천쌀밥 명인전에 만족한다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이번 제15회 이천 쌀문화축제 방문객들이 아주 좋아한 프로그램으로써 만족도는 5.32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22개 프로그램 중에 2번째로 높은 값이었다. 가마솥이천명이천원은 ‘이천’의 지역명과 ‘이천명’, ‘이천원’이라는 의미를 결합하여 만든 의미 있는 행사였다. 가마솥에서 갓 지은 쌀밥을 열갈이와 고추장으로 비벼 먹는 맛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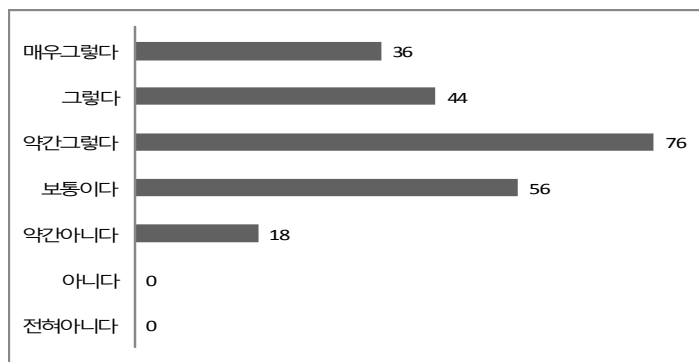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에 만족한다



세계 쌀요리 경연대회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계쌀요리경연대회’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1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22개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항목 중 8번째로써 비교적 높은 만족도였다. 이천쌀과 다른 나라의 쌀을 비교하며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투표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쌀밥명인전과 형태는 같지만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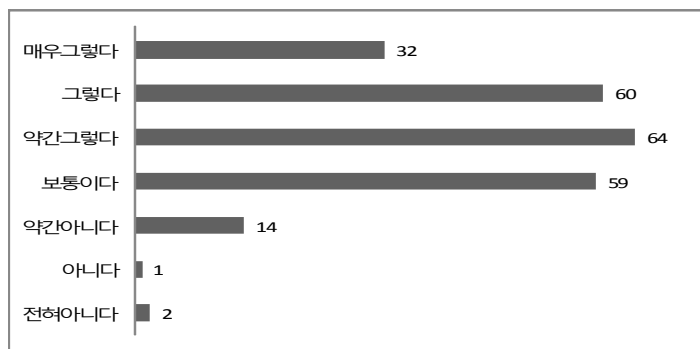


세계 쌀요리경연대회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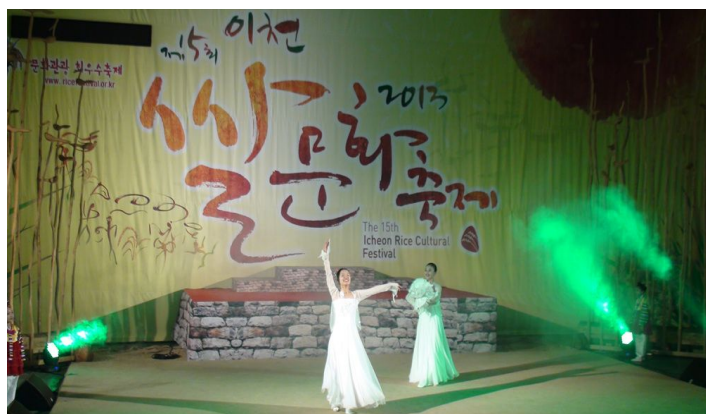


문화마당 공연 (민속무예·댄스·판소리·국악·무용)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태권, 댄스, 기타 문화마당 공연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5.11로 조사되었다. 전체 22개 프로그램 중에서 7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문화마당공연은 전체적으로 무대공연 형태를 취하였고 다른 마당과는 달리 돐 안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조명효과 등에서는 장점을 가졌으나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측면에서는 실외마당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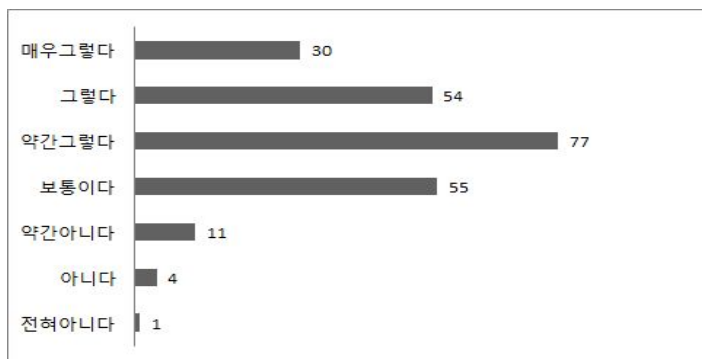


문화마당 공연에 만족한다



햄살대동놀이

‘햄살대동놀이’에 관한 만족도는 5.09로써 전체 22개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항목 가운데서 중간 수준인 11번째를 기록하였다. 단체줄넘기나 율놀이, 소쿠리 뒤집기 등을 활용하여 편을 짜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면서 한 마당에서 노는 프로그램이었으며,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다. 앞으로 이천쌀문화축제의 대표적 대동놀이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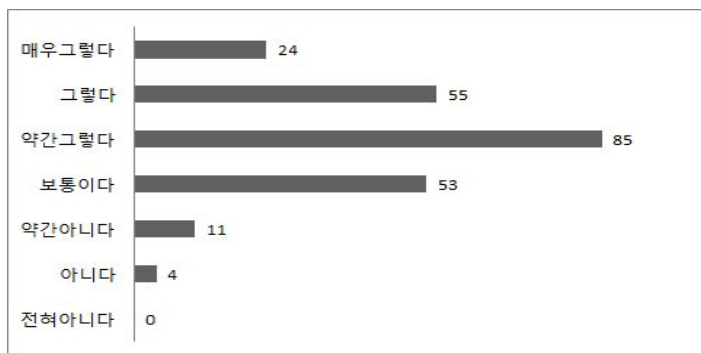


햄살대동놀이에 만족한다



풍년놀이 (꼬리잡기·줄넘기·동차)

방문객을 대상으로 ‘풍년놀이’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07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22개 주요 프로그램 중에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값이었다. 한편 놀이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인 만큼 나무로 만든 동차나 새끼줄을 꼬아 줄넘기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놀이마당 진행팀이 전문사회자를 배치하여 관광객과 함께 노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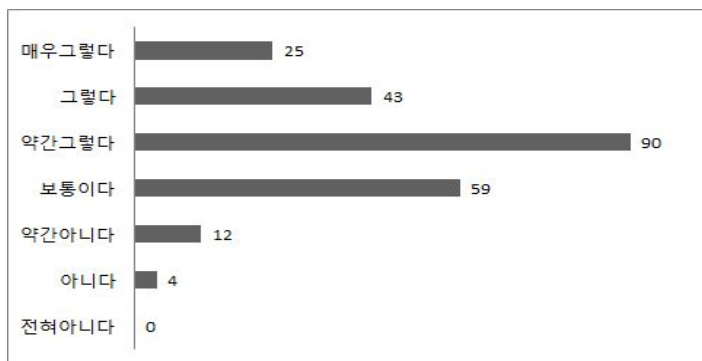


풍년놀이에 만족한다



타악 인수화풍

방문객들이 느끼는 ‘타악 인수화풍’에 관한 만족도는 4.99로써, 전체 22개 프로그램 중에서 16번째로 비교적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두드림을 중심으로 물과 불을 이용해 신나는 난타공연을 보여준 타악 인수화풍은 놀이마당에서 직접 참여한 관광객들의 직접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이름이 제대로 기억되지 않아 이처럼 만족도 값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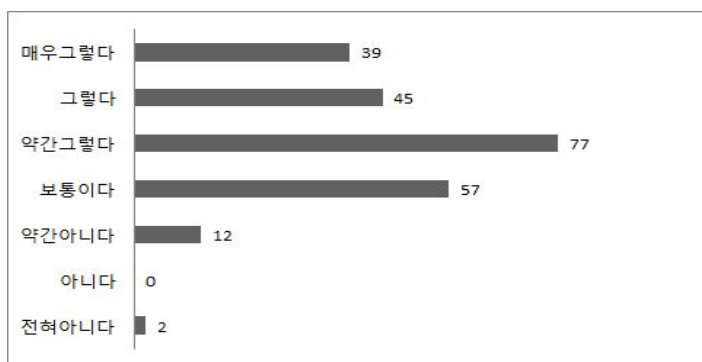


타악 인수화풍에 만족한다



진상마차 재현

방문객들이 응답한 ‘이천쌀 진상마차 재현’에 관한 만족도는 5.15로써, 전체 22개 프로그램 중에서 6번째로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진상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진행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이천쌀의 진가를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방문객들은 햅쌀 거리를 오가는 진상마차를 타고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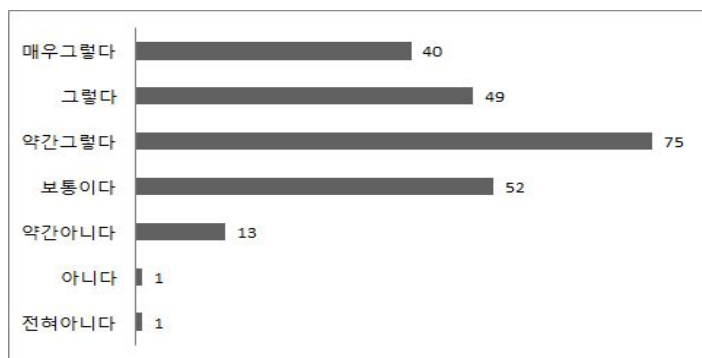


진상마차재현에 만족한다



용줄다리기

방문객들이 느끼는 ‘용줄다리기’에 관한 만족도는 5.19로써, 전체 22개 프로그램 중에서 4번째로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줄다리기가 풍년을 의미하는 만큼 용줄다리를 통해 다음해 풍년을 기원하고 서로 편을 나누어 응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본다. 그러나 한쪽으로 사람들이 쏠리면 놀이의 흥미가 반감되므로 양편에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운영하면 더 재미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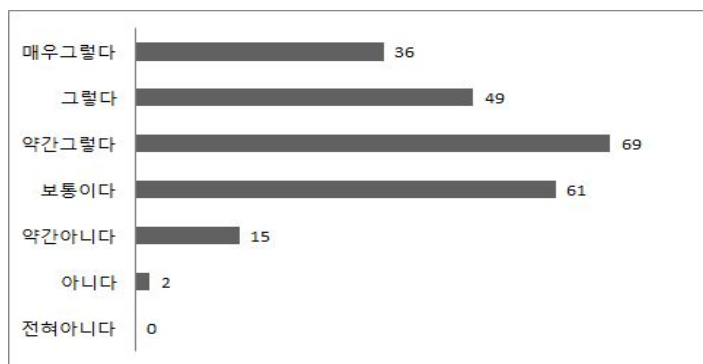


용줄다리기에 만족한다



동냥놀이 품바품바

‘동냥놀이’ 만족도는 5.10이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에서는 5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다. 동냥놀이 품바품바는 전통 퍼포먼스의 일종으로 광대들의 신명나는 놀이판을 토대로 관객을 무대로 끌어들이며 순간 다른 무대가 만들어지기도 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모습이 좋았다. 또한 자연스러운 입담을 통해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끌어간 것도 성공요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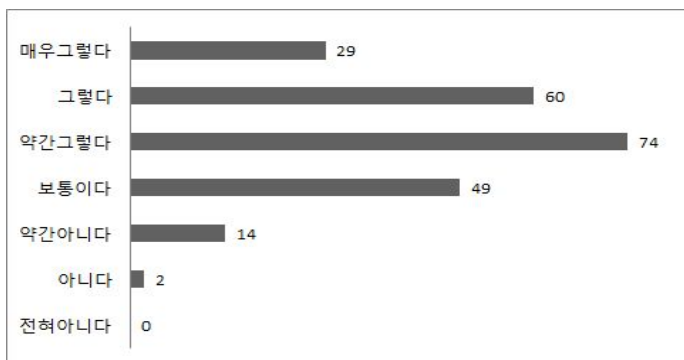


동냥놀이 품바품바에 만족한다



마당극 - 이천천지밥·김치의 일생

방문객들이 느끼는 ‘마당극’에 관한 만족도는 5.15로써, 전체 22개 프로그램 중에서 5번째로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이천 쌀과 관련된 내용을 마당극으로 엮었으며, 김치의 일생의 경우 김장을 담구는 과정을 난타와 엮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형태였다. 이들 마당극이 끝나면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되어 강강술래로써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독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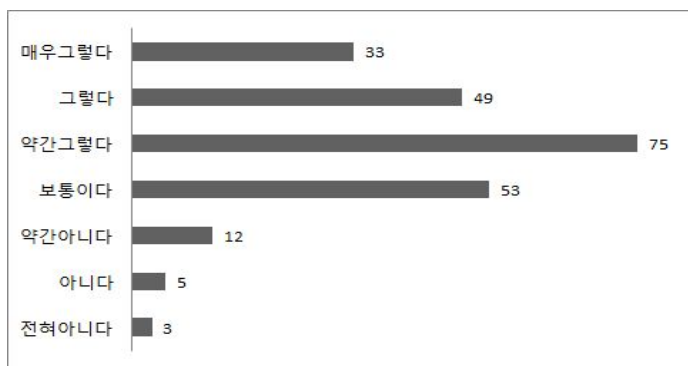


이천 천지밥-김치의 일생에 만족한다



어린이 인형극 - 흥부와 놀부 등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들이 느끼는 ‘어린이인형극’에 관한 만족도는 5.15로써,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다. 어린이 인형극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마임이나 마술을 진행하여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배가하였다.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무대를 설치한 것은 좋았으나 천막과 의자가 ‘동화세상’의 이미지를 반감시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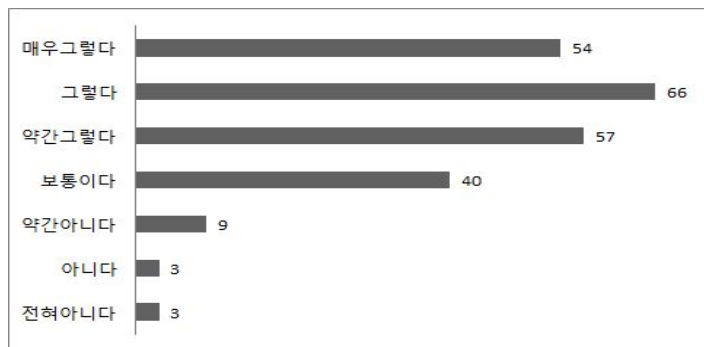


어린이 인형극에 만족한다



무지개 가래떡 뽑기

올해 이천쌀문화축제를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5.41)를 기록한 프로그램이 바로 ‘무지개가래떡 만들기’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에서도 2번째로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무지개가래떡 만들기는 이천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30cm정도를 맛보기로 제공해 줌으로 흥미와 맛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무지개가래떡 뽑기에 만족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방문객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프로그램이 무엇이었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이 16.4%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지개 가래떡 뽑기’가 12.6%로 뒤를 이었다.

<표 4>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프로그램

명칭	빈도(명)	비율(%)
거북놀이	4	2.5
농경체험- 춘하추동	3	1.9
이천쌀밥 명인전	12	7.5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26	16.4
세계쌀요리경연대회	6	3.8
민속무예공연	5	3.1
문화마당 공연	4	2.5
햅쌀대동놀이	3	1.9
풍년놀이	5	3.1
타악 인수화풍	1	0.6
햅쌀길놀이	1	0.6
진상마차	8	5.0
용줄다리기	8	5.0
품바품바	9	5.7
마당극(이천천지밥 등)	15	9.4
어린이 인형극	7	4.4
마임·마술	5	3.1
무지개가래떡 뽑기	20	12.6
인절미 만들기	8	5.0
7080 라이브	2	1.3
당나귀 타기	1	0.6
장승 만들기	1	0.6
전통 결혼식	3	1.9
천연염색	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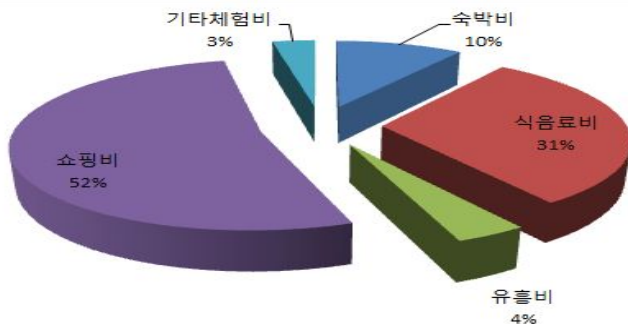
경제적 효과 부문

경제적 효과는 보통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뉜다. 직접효과는 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규모를 파악한 후 여기에 방문객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간접효과는 방문객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 시스템에서 순환하면서 파급되는 부차적 승수효과를 추정하여 산출한다.

한편 우리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원칙적으로 교통비 항목은 축제 개최지인 ‘이천시’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기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전체 교통비용(거주지→경유지→축제장)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교통비 항목은 지출비용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방문객 1인당 지출금액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평균 지출금액은 40,449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적어진 금액이었다. 그리고 지출항목별로 방문객 1인당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쇼핑비가 21,184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식음료비 12,306원(31%), 숙박비 4,005원(10%), 유희비 1,607원(4%), 기타 체험비 1,347원(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 소비지출
(단위:원/인)

항 목	전체평균	관광객	이천시민
숙 박 비	4,005	5,620	588
식음료비	12,306	13,774	8,703
유 흥 비	1,607	1,507	1,853
쇼 핑 비	21,184	21,717	19,874
체험비·기타	1,347	1,549	850
합 계	40,449	44,167	31,869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천시민보다 38.6% 많은 소비지출을 기록하였다. 특히 쇼핑비의 경우 관광객과 이천시민 모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방문객들이 축제장에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흥비의 경우 이천시민이 외지관광객보다 조금 많은 돈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이천시민들이 당 축제를 여가선용의 기회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방문객 수

방문객 수 집계를 위해 축제기간인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일까지 5일간 축제장소인 설봉공원으로 통하는 일방통행의 진입로에서 매시간 정각부터 15분씩 진입하는 차량과 탑승인원을 실측한 후 이를 토대로 시간별 방문객수를 추정하였다. 설봉호수 양측의 도로를 통해 걸어 들어오는 도보·자전거·오토바이 방문객도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집계결과 제15회 이천 쌀문화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501,700명으로 집계되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6,070명을 차지하였다. 한편 예년

의 경우 토요일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입장하였는데, 올해는 하루 종일 비가 온 까닭에 평일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방문하였다. 다행히 축제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날씨가 쾌청하여 무려 172,000명의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다.

<표 6>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 수

날짜 및 날씨	합계(외국인포함)	외국인
10.30(수) 맑음	82,500명	170명
10.31(목) 맑음	86,300명	2,140명
11.1 (금) 맑음	97,200명	1,570명
11.2 (토) 비	63,700명	1,630명
11.3 (일) 맑음	172,000명	560명
합 계	501,700명	6,070명

직접 경제효과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기간에 방문한 인원(501,700명)에 방문객들의 1인당 평균 지출금액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의 직접 경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표 7>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의 직접 경제효과

	객단가(원)	지출액(원)	비율(%)
숙박비	4,005	2,009,308,500	9.9
식음료	12,306	6,173,920,200	30.4
유흥비	1,607	806,231,900	4.0
쇼핑비	21,184	10,628,012,800	52.4
체험/기타	1,347	675,789,900	3.3
합 계	40,449	20,293,263,300	100.0

간접 경제효과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이 이천 지역경제 시스템에 투입되면서 각종 파급효과 즉, 간접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러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승수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이천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려면 케인지안 승수(Keynesian multiplier)의 일종인 아드혹(ad-hoc) 승수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예산 관계상 그 조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그 대신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산업연관분석은 원래 국가단위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이천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지역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아예 생산을 하지 않으므로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원용하여 계산한다.

<표 8> 경기지역의 산업별 유발승수

	생산유발	소득유발	부가가치유발
숙박부문	1.5931	0.3817	0.9083
식음료부문	2.1795	0.3386	0.8446
유흥오락부문	1.6174	0.3243	0.9539
도소매(쇼핑)	1.7165	0.3570	0.9276
기타(관광평균)	1.7860	0.3629	0.8919

자료 : 경희대학교, 연천구석기축제 평가보고서, 2011.

전술한 제 15회 이천쌀문화축제의 지출항목별 금액에 항목별 산업연관분석 유발승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간접경제효과를 도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 1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은 501,700명의 방문객들이 총 20,293백만 원의 비용을 축제장에서 지출하였으며, 이 비용이 이천 지역경제시스템에 투입되면서 37,409백만 원의 생산유발효

과를 비롯하여 7,158백만 원의 소득유발효과 그리고 18,271백만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천시는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20,293백만 원의 직접 경제효과와 62,838백만 원의 간접 경제효과를 합쳐 전체적으로 83,131백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다.

<표 9>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의 간접경제효과

	직접효과	부문별 유발효과		
		생산유발	소득유발	부가가치
숙박비	2,009	3,200	767	1,825
식음료	6,174	13,456	2,091	5,215
유흥비	806	1,303	261	769
쇼핑비	10,628	18,243	3,794	9,859
기 타	676	1,207	245	603
합 계	20,293	37,409	7,158	18,271



요약 및 발전방향

요약

올해의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처음 치러진 행사로써 예년에 비해 완성도가 높았다. 그리고 전체 방문객의 71.1%가 외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의 71.5%가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방문객이었음을 감안할 때, 당 축제는 이제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즉, 명실상부한 최우수 관광축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축제방문객의 구성을 보면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재방문’과 ‘첫 방문’의 비율은 45:55로써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재방문을 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축제장에서 3~4시간 머물면서 각종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문화관광축제에 공히 적용되는 18개 공통평가항목을 2012년에 개최된 44개 문화관광축제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천쌀문화축제가 0.2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사내용의 재미와 다양성,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지역문화의 이해 등 행사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 문화관광축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 축제가 놀이성이나 대동성 등 축제의 본질을 잘 구현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당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축제장 내부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한 공급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1,236백만 원의 매출액이 집계되었다. 둘째, 축제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장을 포함한 이천시내에서의 소비지출 규모를 조사한 결과 방문객 1인당 40,449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전년 대비 88.6% 수준이었으며,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의 평균값인 56,721원에 비하면 71.3%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셋째, 전체 501,700명의 방문객의 소

비지출로 인해 축제장을 포함한 이천지역에서 발생한 지역경제효과는 20,293백만 원이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62,838백만 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직접경제효과와 간접경제효과를 합쳐 총 83,131백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다.

발전방향

비록 당 축제를 2012년도 44개 문화관광축제와 비교할 때 축제의 핵심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방문객의 소비지출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쌀을 중심으로 직거래하는 1차 산업적 차원에서 벗어나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식품의 개발과 같은 2차 산업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당 축제가 열리는 설봉공원은 나름대로 쾌적하고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완비된 곳이지만 반면에 ‘농촌다움’은 다소 부족한 장소였다. 앞으로는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들이 이천의 농촌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제장의 분위기를 보완하던가 아니면 농촌마을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올해 처음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또는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운영시스템이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당 축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적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축제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축제운영조직의 상설화 및 자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요구된다.

역대 이천쌀문화축제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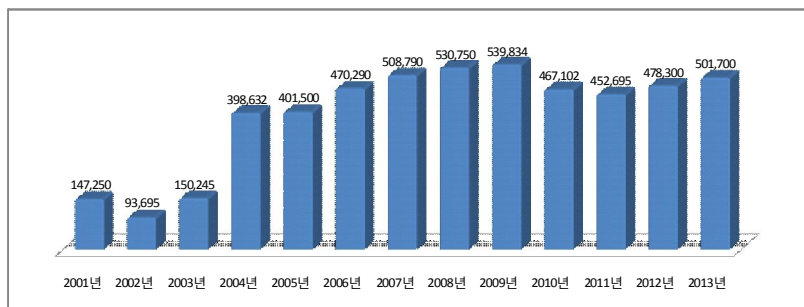
전제

1999년과 2000년에 개최된 이천농업인축제는 이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자축행사’로 치러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축제’로 치러진 2001년 이후의 축제만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를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방문객 수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의 연계행사 겸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한 열린 축제 형태로 처음 치러진 ‘이천햐쌀축제 2001’에 무려 147,250명의 방문객이 운집하여 대성공을 기록하였다.

이후 2002년에 설봉공원에서 단독행사로 축제를 치르면서 방문객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문화관광(예비)축제에 진입한 2003년에 150,245명을 기록한 이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축제장으로 사용하는 설봉공원의 수용력으로 인하여 매년 50만 명을 전후하여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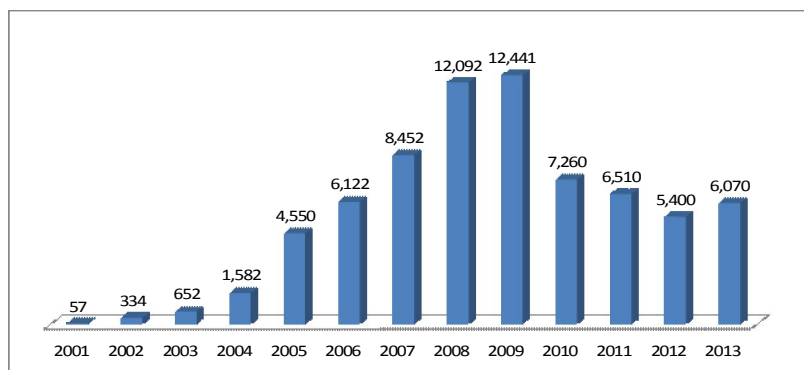


<역대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 수 (명)>

외국인 수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은 외국인 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방문을 예약한 인원 이외에 축제장 입구에서 목측(目測)한 인원을 합산하여 집계하였다. 그러나 목측인원의 집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외모가 확연히 구별되는 서양인과 달리 일본인과 중국인 등 동양계 외국인은 외모로 구별하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공식적 집계자료만 아래의 표에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외국인이 축제장을 방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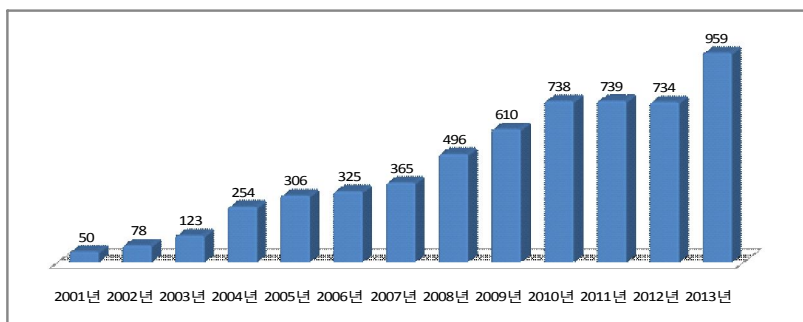
투입예산

2001년 이천햐쌀축제로 치러질 당시의 축제예산은 50백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문화관광(예비)축제로 지정된 2003년에 1억 원을 돌파한 이후 이듬해에 거의 2배로 증액되었고, 2004년에 다시 2배 가까이 증액되었다.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치러진 2013년에 투입된 예산 959백만 원은

예비축제였던 2003년에 비해 약 7.8배 증가한 규모였다. 그러나 2013 이천쌀문화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의 평균 예산인 1,671백만 원과 비교하면 당 축제의 예산은 불과 57%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예산의 많고 적음이 축제의 성공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는 아닐지라도 현재 이천쌀문화축제의 예산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최하위급에 속한다. 앞으로 대표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화천산천어축제와 같은 선도축제는 이천쌀문화축제보다 3배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물론 세계적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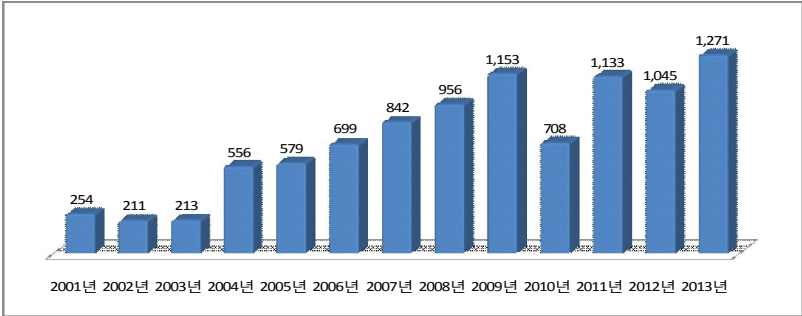


<역대 이천쌀문화축제 소요예산 (백만원)>

현장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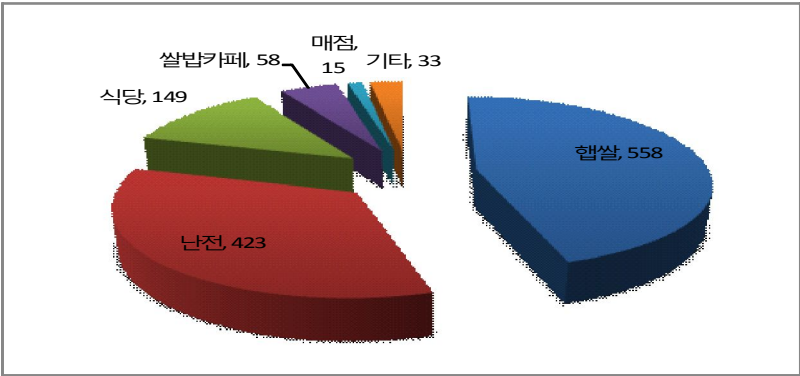
매년 이천쌀문화축제장에서는 이천 햅쌀을 비롯하여 이천에서 생산된 각종 농·특산물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관광축제로서 당 축제가 처음 개최된 2001년에 254백만 원어치의 농·특산물이 판매되었으나 2013년

에는 1,271백만 원어치가 판매됨으로써 약 5.0배의 매출신장을 기록하였다.



<역대 이천쌀문화축제 현장판매액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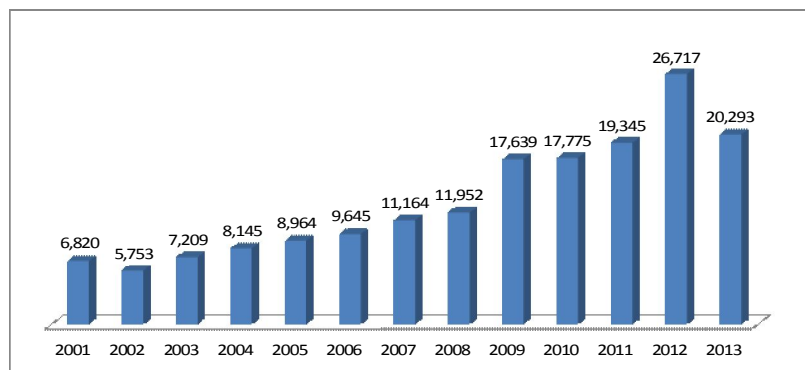
특히 2013년도 판매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햅쌀이 전체 판매액의 45%를 차지하였다. 2013년의 경우 농·특산물 구매고객에게 택배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호평이 줄을 이었다. 다음으로 장터 난전에서 판매된 일반 농산물이 34%, 주막거리에서의 매출이 12%, 그리고 쌀밥카페에서 5%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지역경제효과

지역경제효과는 흔히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된다. 직접효과는 축제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금액에 방문객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반면 간접효과는 앞서 산출한 직접효과에 산업부문별 관광승수를 구하여 각 부문별 유발효과를 구하고 이를 합산한 것을 지칭하는데, 연구방법에 따라 I·O승수와 케인지안 승수로 나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직접효과만 비교하기로 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이천쌀문화축제의 지역경제효과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2년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에 교통비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방문객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천시내’에서 지출한 교통비를 적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부터 지출한 총합금액’을 쓰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대치가 나타나므로 본고에서는 교통비를 제외한 지역경제효과를 산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수년전부터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서 교통비항목을 제외시키고 있다.



(단위 : 백만 원)

2012 문화관광축제와 비교

방문객 만족도 비교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항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문화관광축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만족도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다. 접근성부터 홍보와 안내, 프로그램, 상품과 음식, 연계관광,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항목

설문조사내용	약칭
축제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접근용이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다	사전홍보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있다	안내시설
행사안내 팸플렛이 잘 되어있다	안내책자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요원친절
행사내용이 재미있다	행사재미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행사다양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한다	체험프로
행사내용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를 잘 알게 되었다	문화이해
축제 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상품다양
축제 관련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상품품질
축제 관련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상품가격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음식다양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다	음식가격
행사장 주변의 유명 관광지도 방문했다(방문할 것이다)	연계관광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차편리
휴식공간(벤치, 휴게실)이 잘 되어있다	휴식공간
화장실이 청결하다	화장실

문화관광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 만족도 비교

2012년에 개최된 전국의 문화관광축제와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특히 이천쌀문화축제가 향후 대한민국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축제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표 11> 문화관광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 만족도

항목 \ 등급	2012 문화관광축제				15회 이천쌀	대표축제 대비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평 균	5.09	4.93	4.67	4.72	4.96	-0.13
접근용이	5.78	5.53	5.20	5.14	5.47	-0.31
사전홍보	5.23	5.00	4.78	4.79	4.90	-0.33
안내시설	5.36	5.11	4.78	4.92	5.12	-0.25
안내책자	5.46	5.13	4.88	4.98	5.11	-0.35
요원친절	5.46	5.15	4.85	5.01	5.09	-0.37
행사재미	5.31	5.23	4.92	5.01	5.35	0.04
행사다양	5.25	5.25	4.95	4.97	5.50	0.25
체험프로	5.09	5.19	4.80	4.89	5.23	0.14
문화이해	5.41	4.98	4.75	4.89	5.22	-0.19
상품다양	4.69	4.73	4.50	4.48	4.71	0.02
상품품질	4.80	4.76	4.54	4.54	4.86	0.06
상품가격	4.54	4.52	4.40	4.36	4.70	0.16
음식다양	4.67	4.46	4.52	4.41	4.85	0.18
음식가격	4.49	4.40	4.37	4.31	4.83	0.34
연계관광	5.09	4.73	4.60	4.71	4.52	-0.57
주차편리	4.67	4.70	4.33	4.35	4.45	-0.22
휴식공간	5.05	4.84	4.42	4.55	4.59	-0.46
화 장 실	5.32	4.95	4.39	4.63	4.71	-0.61

대한민국대표축제와 비교했을 때 이천쌀문화축제는 행사의 재미와 같은 프로그램 측면, 상품과 음식 등 소득원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행사장으로서의 접근성, 안내와 홍보, 지역문화의 이해, 연계관광,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천쌀문화축제가 앞으로 대한민국대표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축제장에서 친절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이천쌀 관련 농경문화를 놀이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촌관광마을과 같은 곳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 더불어 주차장을 비롯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문객 소비지출 비교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1인당 소비지출은 총액은 40,449원으로써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의 평균값(56,721원)의 7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축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와 비교하면 5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쌀을 비롯한 인삼, 송이, 도자기, 김치 등 산업형 축제의 평균(63,490원)보다도 훨씬 낮은 소비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이천쌀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쌀 이외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이천의 특산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이나 도심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설봉공원 행사장에서는 방문객들의 체류시간 및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12> 문화관광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 방문객 소비지출

(단위 : 원)

<div> <div>등급</div> <div>항목</div> </div>	2012 문화관광축제				산업형 축제	15회 이천쌀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숙박비	11,661	9,156	9,728	12,973	11,002	4,005
식음료	25,010	19,851	17,823	16,302	17,459	12,306
유흥비	6,887	4,160	6,496	7,802	5,350	1,607
쇼핑비	25,158	28,790	15,596	9,965	24,866	21,184
기 타	10,022	4,058	4,389	5,765	4,813	1,347
합 계	78,737	66,013	54,032	52,807	63,490	40,449

제5편

이천쌀문화축제의 내일

이천쌀문화축제의 내일

1999년, 농업인들의 자족잔치로 치러진 이천농업인축제는 2001년 이천햐쌀축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본격적인 관광축제로 탈바꿈하였다. 2004년에 다시 이천쌀문화축제로 명칭을 바꾼 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였고, 드디어 2013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당 축제를 앞으로 세계적 축제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였고 그를 통해 당면과제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당면과제 도출을 위한 집담회

개요

때 : 2013년 10월 31일(목) 16:00~17:40

곳 : 이천쌀문화축제장 VIP 접견실

참석 : 이수범 교수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이 훈 교수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지진호 교수 - 건양대학교 호텔관광학부

배만규 교수 - 국립안동대학교 유럽문화관광학과

정 신 소장 - 축제경영연구소

유상규 소장 -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연규철 팀장 -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팀

오순환 교수 - 용인대학교 문화관광학과

방법 : 집담회를 개최하기 전 참가자들이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장을 둘러본 후 회의실에서 오순환교수의 사회로 자유토론

집담회에서 도출된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 대한민국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천시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와 실질적 지원이 필요
- 주차장 확충 대신 시민과 관계자들의 차량이용 자제하고 외곽주차장을 확보한 후 셔틀버스 운행
- 매년 주제를 정하고 그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함
- 경기도 주관의 도자비엔날레 및 이천도자기축제와 개최시기 중첩되지 않도록 조치
- 품물 이외의 방법으로 농촌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 쌀축제와 분위기 어울리는 황금들녘을 연계관광코스로 개발
- 쌀의 생산과정을 한눈에 보도록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
- 방문객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공간 또는 프로그램
- 시내 곳곳에 축제분위기를 복돋는 조형물 설치
- 도심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
- 셔틀버스 무료이용 및 친절하게 노선안내
- 시범적이라도 불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야간 프로그램의 확대는 일종의 의지문제, 시도해 보자
- 농경마당, 동화마당 등에 벚짚 등으로 농촌분위기 조성
- 가마솥 이외에도 ‘맛있는 밥’을 제공함으로써 이천쌀에 대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 명석을 활용한 주막 등 시골스러운 축제장 분위기 조성
- 젊은 층을 겨냥한 SNS 활용 및 홈페이지 민원 신속 대응

집담회 주요 토론내용

유상규소장 : 이천 쌀문화축제에 많은 발전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01년 논바닥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최우수 축제로 처음 개최하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 축제가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순환교수 : 바쁘신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우수축제로서 치러진 올해의 이천쌀문화축제에 대해 여러분의 가감 없는 느낌을 듣고자 함이고, 둘째는 본 축제가 향후 어떻게 발전방향을 잡아야할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의 객관적인 말씀을 수렴하여 더 좋은 축제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쓰겠습니다.

연규철팀장 : 저희 축제는 즐겁게 노는 대동놀이 축제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개최합니다. 처음에 일부 농업인은 쌀 축제니까 쌀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축제가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입구 쪽 도로변에 장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만 점차 축제는 즐거워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몇 년 전부터 축제장 후면의 박물관 주차장에 햅쌀장터를 마련한 후 즐겁고 재미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전면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범교수 : 근본에 충실해야 축제가 더 재미있어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렇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이천

쌀을 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규철팀장님의 축제전략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제가 유망축제 때 왔었는데, 그 때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이천시장님의 육성의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산천어축제에 전력투구하는 화천군수님 덕분에 화천이 오늘날처럼 단시간에 활성화되었거든요. 반면에 남양주시의 경우 축제가 13개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이천쌀문화축제가 앞으로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 만으로서는 어렵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차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지만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마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주차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 지평선축제와 이천은 콘셉트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김제는 진짜 농촌들녘이기 때문에 시골풍으로 꾸밀 수 있어요, 하지만 접근성은 떨어지죠. 반면 이천은 서울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니까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한다면 더 훌륭한 최우수축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훈교수 : 교통부분은 그래도 이천이 잘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시청과 터미널 등지로 많이 다니므로 저는 항상 시청에 주차하고 셔틀버스를 타는데 괜찮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일인데도 이렇게 방문객이 많으니 토·일요일에는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미리 사전점검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규철팀장 : 방문객들이 안내요원의 지휘에 따라주면 되는데 잘 따르지 않죠. 최대한 축제장 가까이 차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충은 어렵습니다.

이훈교수 : 올해 이천쌀문화축제의 주제인 <맛스런 내음이 너울 흥겨

운 어깨는 동실>. 운율도 있고 좋긴 합니다만, 여기에 맞는 주제관이나 주제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지금 주제로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젠 주제보다는 슬로건으로 간주하고, 주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플롯을 바꿀 순 없지만 기본 플롯은 그대로 가더라도 매해 변화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작년이랑 같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관광이나 여행을 할 때는 특별한 것 중 신비성 같은 게 필요합니다. 즉, 새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주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을 보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도자비엔날레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쉬움을 줍니다. 그리고 농촌문화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풍물을 애용하던데 앞으로는 약간 실험적인 것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팽과리만 쳐서 표현하는 것보다 발레를 통해 독창적인 것을 표현해내는 실험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정신 소장 : 처음에는 물산전과 농경문화 체험으로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풍년축제로 바뀌었어요. 전체적인 특징은 이 축제가 마당이 핵심인 겁니다. 풍년마당, 놀이마당, 햅쌀장터 이런 식으로 마당이 구성되면서 각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개 충실하게 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축제가 가져야할 축제성에 관한 부분들을 전통에서 많이 끌어내더라고요. 거북놀이나 용줄다리기처럼. 한편 이천의 특산물인 쌀을 바탕으로 해서 풍년을 나누는 거라면 황금들녘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들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봉공원의 가을단풍이 축제에서 풍성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때 ‘이천은 나들이하기 좋은 곳’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수도권 사람들 입장에서 누구나 좋게 느끼고 경험한 후 집으로 돌아갈 때 이천 쌀밥집에서 마무리가 되면 이것이야말로

축제 소비자들에게는 기가 막힌 상품이죠. 그런 면에서 이천쌀문화축제는 흠잡을 데 없고, 여러 특산물축제들이 배워야할 모범적 축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햅쌀장터가 뒤로 배치될 때 쌀 파시는 분들이 시비도 많이 걸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이것은 장사하는 분의 시각과 문화를 파는 사람의 시각이 축제에 잘 녹아들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수범교수 : 대부분의 축제에서 주막거리하면 탁자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명석을 깔아 놓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았어요.

정신 소장 : 그런데 공간이 너무 적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딘가에 넓게 자리를 잡고 목욕탕 의자와 상을 차려놓는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수범교수 : 명석으로 자리를 넓혀서 둥글게 한다면 거기가 만남과 뒤풀이 장소로 괜찮겠어요.

오순환교수 : 그런데 문제가 10월말이나 11월초에는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한번 비바람이 와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엄두가 안 나게 됩니다.

배만규교수 : 햅쌀장터를 저 뒤로 배치한 건 굉장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상주 이야기축제를 갔는데 축제장 들어가자마자 판매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이야기를 팔면서 상품도 팔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면 다 사가거든요. 그러니 핵심 공간에는 그 축제에 맞는 것을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 축제 홍보영상을 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안정적이었습니다만, 이왕이면 벼의 파종부터 생산과정별로 어떻게 농사짓고 활용하는지를 하나의 그림에 표현한 후 각 공간에서 해당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햅쌀마당이나 농경거리의 공간을 확대해서 쌀 문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동놀이의 경우 제가 생각하는 대동놀이는 다함께 즐기는 대동난장을 떠올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같이 노는 개념일 뿐이더군요. 재미는 있지만 뭔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대동놀이도 꾸며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안동 탈춤대동난장도 괜찮았고요. 명석에서 술만 먹을 게 아니라 거기서도 배출구를 마련하는 거죠. 일본에서 소고기 먹고 고탐치르기처럼 여기 와서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수범교수 : 그렇지만 춘천마임처럼 도깨비난장이 먹히는 곳은 모르겠지만, 이천쌀문화축제에서는 난장이 너무 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배만규교수 : 그 정도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글썄요 제가 자료화면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폐막 때 대동놀이를 한다든지 하루에 두 번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발산 측면에서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약해보였습니다.

이수범교수 : 하긴 지금은 정적인 느낌이 다소 있긴 합니다. 하여간 부족하긴 한데 만약에 그런 난장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경우 축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배만규교수 : 제 고민 중의 하나가 그거입니다. 이게 임금님표 쌀이잖아요. 원래 임금님은 경박스럽게 안 놀거든요. 여하튼 경기미 특히 이천쌀이 예전부터 대단한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천쌀밥 이천명 이천원’ 이외에 다른 한편으로 이천쌀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품격에 맞게 먹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

나 싶습니다. 여기 축제장에서 구현이 가능할까요?

이수범교수 : 임금님식단, 머슴식단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배만규교수 : 물론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임금님표 이천쌀이니까 그 격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연규철팀장 :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제장에 일단 식당이 들어오려면 기본적인 수입이 전제가 되어야하는데 품격 있는 정식을 차리려면 도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기를 보조해 줄테니 들어와라 해도 안와요. 지금 그분들 가게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 축제장까지 일부러 짐 싸들고 와서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수범교수 : 저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도자기랑 같이 한다는 거예요. 축제장에서 보면 홍보물 같은 게 헛갈리게 되어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시기를 달리하던지 같이 동시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규철팀장 : 도자비엔날레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 거기서 결정해버리면 시군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자비엔날레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여기 온 김에 도자비엔날레에도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천 도자기축제가 바로 9일 전에 끝나는 바람에 저희들은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쌀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도자기축제 시설이 철거도 안 된 상태에서 쌀축제 시설을 밤새 설치했는데 그런 것들이 힘이 듭니다. 내년부터 도자기축제가 봄에 개최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천의 양대 축제인 도자기축제와 쌀축제를 봄가을에 나눠하면 좋을 텐데 왜

한꺼번에 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오훈성박사 : 저는 홈페이지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홈페이지를 보면, 불만사항 게시판에 축제기간에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는 글 등 4가지 정도 읽어 봤습니다. 그런 질문에 즉시 응답을 해야 그분의 오해를 풀 수 있고 다른 분들이 봐도 축제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홍보의 문제로 지금 농경문화를 홍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층도 옛날의 농경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나 향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 대상으로 SNS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홍보매체로서 다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도시 분위기가 썰렁한 느낌을 받았어요. 셔틀버스도 18분 정도 기다렸고, 타려고 하니까 요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걸 사전에 알았다면 준비를 했을 텐데 보통 무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되겠지만 먼저 정보를 주면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축제행사를 설봉공원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보입니다. 분위기가 여기만 쏠려있으니 도심은 흥도 없고 홍보나 안내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 오다보니 터미널에는 현수막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첫 이미지를 좋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 이천쌀문화축제가 올해 처음 최우수축제가 되었지만, 조만간 일몰제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규철팀장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터미널 주변에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싶어도 불법광고가 되어버려서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안 지켜버리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게시판 댓글은 그분이 ‘체험후기’란에 글을 써놓으셔서 댓글을 달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치를 했는데 아마 셔틀버스 불만일 겁니다. 주차문제로 기분 나쁘게 들어오면 축제를 즐기기 어렵죠.

배만규교수 : 셔틀버스는 몇 대를 얼마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규철팀장 : 평상시에는 3대씩, 주말에는 4대씩 운행합니다. 금년에 한 대당 34만5천원에 낙찰됐죠.

배만규교수 : 얼마 전 단양의 온달문화축제를 가니까 셔틀택시가 있더라고요. 택시는 사람 태워서 바로 출발하니까 색다른데요. 셔틀택시가 유리하면 검토해볼 텐데, 버스가 훨씬 저렴하네요.

연규철팀장 : 아무리 도로를 통제해도 어떤 곳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도 같이 정체되므로 배차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입장에서는 지루할 겁니다. 셔틀버스 요금은 무료로 하고 싶지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관광객들께 설명해드리면 이해를 하시지만 처음에는 의아해 합니다.

이수범교수 :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축제장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되돌아나가 멀리 주차했더니 셔틀버스에서 돈 내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겁니다.

이훈교수 : 그럼 명칭을 달리해버리면 되죠. 이를테면 ‘축제 사랑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금 낸 사람에게 쿠폰을 주고 축제장에서 할인해주면 안 되나요.

정신 소장 : 그래도 선거법 위반은 위반이죠.

연규철팀장 : 예전에 도자기축제에서 주차요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주차요금 내는 거 보고 뭐 이런 축제가 다 있냐면서 나가더라고요. 주차요금이 비싸지도 않았어요. 물건사면 무료였고요. 그런데도 항의가 많았죠. 저희 쪽으로도 연락 와서 그 쪽도 주차요금 받을 거냐 하시는 분도 계셨고. 무료라고 하니 그렇게 해야 옳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만규교수 : 이훈교수님 말씀대로 ‘축제사랑비’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예전에 성주참외축제 갔었는데, 그 셔틀버스기사가 굉장히 잘해요. 운행거리는 2~3분이지만 그 사이에 인사하고 어디가면 맛있고 어디가 싸다는 설명을 해주니까 차비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정신 소장 : 참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제가 탔던 셔틀버스 기사분이 종점이 어딘지, 여기가 어디 정류장인지 말씀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외지인 하차할 터미널을 지나쳐 다시 축제장으로 한 바퀴를 더 돌기도 했어요.

연규철팀장 : 좋은 지적입니다.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환교수 : 저는 우리나라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로, 축제가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과연 무슨 축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만 해도 방문객의 계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몸이 불편하신 분부터 꼬마들까지 다 와요. 상황실에 잠깐 있는 동안 불평불만이 쉴 새 없이 쏟아져요. 그 방문객들의 불평을 다 소화하자면 이건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축제는 내 몸을 던지며 대동난장을 즐겨야 제 맞인데 그분들은 쾌적한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모를 키우면 어렵고 동호인 모임으로 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낮이 되니까 차양막이 나오는데 이게 마당의 분위기를 확 무너뜨리는 겁니다요. 방문객의 요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데 그러다보니 축제성이 계속 훼손됩니다. 다음으로 대동난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가장 좋은 시기는 밤에 어두워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은 여섯시면 어두워지지만 대신 아주 추워요. 만약 그런 분위기를 살리려면 10월 초에 축제를 열어야 합니다. 낮에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다가 밤에 한바탕 대동난장으로 마무리지어야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어렵죠. 앞서 설봉공원의 한계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농촌분위기가 안 나올 뿐더러 가을 경치를 보여주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농촌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자채방아마을과 연계시켜 보았습니다. 그때는 밤까지 기다리는 손님이 적어서 바로 폐지되었는데, 지금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험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장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천쌀밥입니다. 쌀은 분명히 이천 쌀인데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주막거리에서 분위기가 안 나와요. 반면에 이천쌀밥 이천명 이천원은 분위기에 휩쓸려 맛이 더 납니다. 여기서는 어렵겠지만 김제시에서는 시장님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짓도록 특명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직영식당은 물론이고 읍면 식당의 음식까지 다 맛있어졌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높이려면 몽골텐트 걷어내고 대신 천막을 친 후 거기서 놀부밥 상처럼 소반에 차려주는 식사도 좋겠다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날씨가요. 악천후 때는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요.

배만규교수 : 저는 주막거리가 협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문화마당을 비워내고 거기다가 주막거리가 들어가기는 어려울까요?

연규철팀장 : 재작년에 본의 아니게 식당을 돔 속에서 운영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음과 환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이훈 교수 : 저도 그때 식당에 갔었는데 너무 시끄럽고 지금 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럼 어떨까요?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는 돔 텐트의 옆 가림막을 내리고 비가 안오면 가림막을 올리면 공기가 통하잖아요.

정신 소장 : 경남 산청도 그런 식이었는데 밥 먹을 맛 안 나던데요.

배만규교수 : 안동도 완전 천막은 아니었는데 축제동안 잘 흘러갔거든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2000원짜리 밥도 있어야하고 편하게 먹는 그런 쌀밥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수범교수 : 저는 주왕산을 갔다 왔는데 관광버스가 미어터지더라고 요. 재밌는 요소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요. 이천은 오면서 항상 느끼지만 접근성이 좋아요.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앞으로 기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제를 매년 변화를 주기만 해도 사람은 몰려들 것입니다. 해마다 특별한 주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홍보에도 좋겠네요.

이훈 교수 : 쌀축제를 설봉공원에서 하면 쌀이나 농촌문화와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농촌분위기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안정되어있으므로 농촌문화라는 주제성만 부각시키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입구부터 벼단을 쌓는다든지 해서 사람들에게 논에 왔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설치미술이 필요합니다.

연규철팀장 : 연계관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안 가세요. 사실 저도 다른 축제가도 연계관광 안가거든요. 하지만 금산 같은 경우는 가요. 마을로 가서 인삼을 캐고 거기서 사면 품질도 좋고 값도 싸니까요. 하여간 사람들이 연계관광 버스는 잘 안타요. 귀찮으니까요. 그럼에도 연계관광을 개발시켜 봐야하겠지만, 정작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뭘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수범교수 : 그런 연계관광은 시연밖에 안되겠죠.

연규철팀장 : 농촌나드리에서 ‘피그마을’을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는 돼지 박물관인데 거기서 돼지가 묘기를 부려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섭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오고 돼지를 껴안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재방문이 가능한 거죠. 2011년에 개장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런 것이 연계관광이 되느냐 고민해봐야죠. 그리고 야간프로그램은 정말 어렵습니다. 요새 밤에는 꽤 추워요. 아예 한 겨울에 하는 축제는 손님들이 따뜻하게 입고오지만 요새는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낮에는 약간 더운 편이에요. 그래서 옷을 안 챙겨오는데, 막상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밤까지 있으려고 하지 않죠. 바로 이런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훈 교수 : 그렇죠. 연계관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간프로그램은 방문객의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들에게 야간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면, 추운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땐 행사장에서 담요를 팔면 되겠죠. 결국 사람들이 밤까지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비가 오면 우산을 팔고, 추우면 담요를 팔면 되요. 다른 나라도 그래요. 미국 버닝

맨 축제장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낮부터 털옷을 팔아요. 낮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밤까지 즐기려고 다들 털옷을 사죠.

이수범교수 : 쥐불놀이 같은 것은 어떨까요. 추울 때 농촌문화하면 불놀이죠. 우리들 모두 어릴 때 다 했었죠. 제일 재미있는 게 불장난인데 시골이라면 불장난이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도심이라 어렵겠죠.

연규철팀장 : 여기서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이수범교수 : 그렇겠죠. 여기 야간프로그램으로 가장 좋은 건 불놀이인데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면 어쩔 수 없죠.

오순환교수 : 초창기에는 축제장의 동화마당에 벵단으로 의자를 만들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벵단, 진드기, 쥐 문제 등을 들고 나오면서 없어졌죠. 김제지평선축제는 벵단을 전부 소독해서 의자로 쓰지만, 이천에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더 보장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지진호교수 : 논산 딸기축제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공원의 시설 자체는 좋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맞지 않았습니다. 축제를 위한 별도의 전용공간이 필요해요.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먹을 수 있는 화롯불 형식도 괜찮겠습니다.

오순환교수 : 오늘 여러 전문가 분들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말씀 덕분에 내년에는 더 나은 이천쌀문화축제가 탄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반관광객의 생각과 바람

한정연

이천쌀문화축제 홈페이지 방문후기

딸아이가 좋아하는 이천 쌀문화축제를 올해도 다녀오리라 마음먹고 스케줄을 잡았다. 오후에 가보니 주차를 하고서 한참을 걸어야 해서 일찍이 출발하였다. 도착하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벌써 행사장 앞 주차장은 꽉 차서 패스, 패스 하는 신호를 보내고.. 무척 일찍 오셨구나. 하면서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보니 착한 운전마일리지 접수 홍보차 나와 계셨다. 설명을 들으니 필요한 것 같아서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풍년마당본부로 향했다.

쌀눈이와 같이 사진도 찍고, 돌아서니 옛장수 복장을 하시는 분이 엿을 주셨다. 아이가 먹어 보더니 입에 달라붙지 않고 맛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엿을 사들고 가자는 말과 함께(아이가 입이 짧아 잘 먹지 않는데, 사주세요 하는 말은 참 드물게 함).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이천시 향토음식 연구회활동사진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떡이 맞나?” TV화면 속의 떡 그림이 이곳에 있구나 하면서 먹어보고픈 마음이 든다. 특히 자색고구마 떡케이크는 어찌 모양을 냈을까 신기했다. 또한 발효음료 시음회에서는 함초와 조식잠을 처음 접하면서 익숙치 않은 음료 맛에 우리의 촌스러움을 한탄하면서 가족 모두 웃었고, 이천쌀밥 명인전은 오후에 시작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찍이 나오셔서 준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하시구나’ 생각하였다. 아직 3시간이나 더 남았는데. 그리고 커다란 가마솥이 올해도 변함없이 떠~억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필코 그 밥을 사먹어 보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뽕튀기 무료체험에서는 비싼~ 이천쌀로 만든 쌀밥튀김을 무한 리필로 나누어 주셨다. 한 공기 먹고, 다시

먹고, “이천이 아닌 곳에서는 그러한 튀김 무한 리필이 가능하지 않지”라고 딸아이에게 설명도 하였다.

우리가 튀밥을 손에 들고 가는 모습을 보신 남성분들이 조심스럽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았다. 한국말로 뽕튀기 무료 체험이라는 글씨 밑에 Free라고 한 글자 말만 적어 놓으면 좋을 것을 하는 생각도 들었다. 햅쌀장터에서 딸아이는 정미소 앞에서 신기한지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바라본다. 지난해에는 흰쌀이 아닌 다른 쌀들을 사와서 한동안 색깔별로 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웃음 지었고, 다시 오니 추억이 다르다면서 이야기 하니 그 또한 즐거움이었다. 휘날리는 머플러가 예뻐서 다가간 쪽빛나라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에게 시력 정화를 시켜주는 안대가 필요하여 구입하고, 잊혀져가는 천연염색도 관심을 가져주어서 좋았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훗날 딸아이가 유학생이 되었을 때 한국고유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 막힘없이 이야기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찾기를 잘 하였다’라는 생각을 했다. 한번 갔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니.

그리고 가파른 돌계단이 눈에 띄어서 올라가보았더니 시립박물관이었다. 샌드아트로 이천의 지명유래와 조선시대의 옛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배우고 싶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체험 부스에서 샌드아트를 활용한 작품 만들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물관 안에서 이천의 옛이야기와 옛 노래코너에서 한번 썩 눌러보고, 들어보면서 느긋하게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오다 보니 기획전시실까지 쪽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가의 빛 전을 관람하고, 다양한 도자기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시 축제장으로 내려오니 무지개가래떡 만들기를 하고 계셨다. 외국인이 사진 찍는 모습도 보면서 흐뭇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옆에서 고등학생 정도 보이는 학생이 자원봉사 옷을 입고 설명 하는 모습이 보였다. 초등생인 딸아이랑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 바라보는 사실만으로도 교육이 되어서 좋았다.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다양하게 봉사활동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의 장을 넓혀 준 시간이었다.

조금 더 돌아다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손에 가래떡을 들고 계셨다. 녀석 좋은 나는 ‘같이 나눠 먹어요’하고 말하니 인심 좋게 잘라 주셨다. 그러다 떡 만들기 할 때에 사진 찍던 외국인을 봤는데 그들은 빈손으로 계셨다. 예구, 녀석하면 드리고픈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돌아다니다 보니 외국인분들이 많이 행사장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떡 만들기에 줄서서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같은 색 옷을 입고 계시거나, 암튼 방문객이 아닌 쌀문화축제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줄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배려 차원에서 ‘어느 공간은 외국인을 위한 자리로 배려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행사장을 지난해에 찾고 다시 찾았다. 조금 아쉬운 점은 행사장에서 조금 더 확장하여, 도자기 공방을 찾아가서 오전 체험을 하고 오후에 축제장을 찾는 코스를 만든다면 도자기 공방 홍보랑, 쌀문화축제 홍보랑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족이 자주 찾는 공주는 사이버 시민 제도가 있어 혜택이 주어지고, 김장투어 행사 할 때도 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공주를 구경시켜 주면서 농촌의 식재료 판매에 큰 도움이 되는 모습을 체험하는 형태이다. 공주시의 팸투어 처럼 움직이는 축제 행사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았다(물론 행사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 받는 일은 필수가 되겠지요). 그리고 행사장 팻말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

내년에 다시 찾자고 가족들이 이야기 하면서 내려 왔다. ‘내년에 어떻게 변해 있을지’하는 설레임 자칫 ‘변한 것 없다’라고 실망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삼세번 하자고 이야기 했다.

최민구

서울특별시 거주

혹시 관광프로그램(버스)로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보면 서울의 경우 시청, 교대 등에서 출발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별도 운영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금액적으로 맞지 않아 운영이 안되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 오전 출발, 저녁때 오는 버스가 행사기간동안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셔틀버스 타는 곳에 대한 안내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터미널에 내려서 파riba게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조금 헤맸습니다. 지나가는 분께 물어봤는데 잘못 알려줘서 다시 물어보고 가까이 있는데도 길에서 시간 소비를 했습니다.

해당 행사장 마을 입구에 시간대별 행사 안내표와 체험 부스 앞에 주제 안내표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팜플렛에 시간표가 있어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마을 행사도 더 홍보가 될 듯합니다. 쥔 체험의 경우, 그냥 처음에 제안해 주시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것도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러하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은 본인 선택인지라 다른 분들은 저와는 다른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강조한 것이니 만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좀더 실감나고 알찬 체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煎)파는 곳의 경우, 예전 주막 형태를 재현하고, 인절미는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조금 작게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제6편

이천쌀문화축제의 회상과 기대

이천쌀문화축제의 회상과 기대

이천쌀문화축제. 이제부터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그 이상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쌀의 본고장 이천을 뛰어넘어 쌀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산업적 접근도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이천쌀문화축제를 만들거나 지켜본 사람들의 경험을 모으고자 한다. 또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모으고자 한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여기서 모은 각종 경험과 시각을 분석하여 보다 새로운 이천쌀문화축제를 준비하고자 한다.

내부 관계자

유상규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2013년 1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지방축제의 수는 752개이며 미등록 축제를 합하면 약 1,200여 개가 된다고 한다. 그 중에 정부에서 선정한 2013 문화관광축제의 수는 모두 42개(유망 22, 우수 10, 최우수 8, 대표 2)이며 그 중에 이천쌀문화축제는 올해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위상이 한 단계 향상된 가운데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농경문화의 백미인 ‘이천쌀’을 소재로 하여 우리 민족의 근본인 ‘농경(쌀)문화’를 즐겁고 흥겹게 프로그램화하여 참여한 농업인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도농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대동놀이축제로 특화시켜 발전해 왔으며 매년 관광객들로부터

터 사랑받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지난 10. 30일부터 11. 3일까지 5일간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맛스러운 내음이 너울~ 흥겨운 어깨는 둥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펼쳐졌다. 축제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은 총 110여 가지로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에 풍요의 땅 이천에서 즐겁고 흥겨운 체험놀이를 통해 가족친지와 함께 정겨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연출하였고, 생명의 씨앗인 이천쌀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이천쌀을 비롯한 풍부한 먹거리(농산물)를 흥겨운 장터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제는 대성황을 이루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나흘간 51만 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쌀을 비롯한 이천 농특산물의 판매금액도 12억 2,360만원으로 전년보다 18.3%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효과도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축제장을 찾아 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흡족해 하며 전년보다 한층 더 향상된 축제였다는 칭찬과 평가를 해 줌에 따라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간의 피로도 말끔히 가시는 듯하다.

이천쌀문화축제가 최우수축제로 발전하기까지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부대행사의 하나로 시작된 이천햅쌀축제는 장소가 없어 신문면 수남리 논바닥에서 첫 행사를 치렀다. 첫 행사에서 예상외의 반응을 얻게 되는데 힘입어 그 동안 매년 가을에 실시하던 농업인축제를 이천햅쌀축제로 전환하면서 정례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업비 5,000만원(농협지원금 2,000만원 포함)으로 시작한 햅쌀축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중 정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축제 개최 3년차에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받음으로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예비축제 3회, 유망축제 2회, 우수축제 5회를 거쳐 2013년에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또한 고비가 있었다. 2003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설봉공원에서 열리는 관계로 햅쌀축제는 현재 시청 자리인 행정타운주차장의 열악한 조건에서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개막식을 하는 날 새벽에 돌풍이 불어 설치해 둔 부스가 바람에 쓰러져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간신히 개막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축제평가단에게 부정적 반응을 심어주게 되었고 다음해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비관적인 분위기로 흘렀다.

이때 햅쌀축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게 되었고, 따라서 ‘햅쌀축제’란 쌀 한 가지의 소재만으로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에 따라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경문화를 포괄하는 ‘이천쌀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4년 문화관광축제를 신청하였고 담당실무자를 이해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궁하면 통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했나! 이러한 노력 끝에 그 해 예비축제의 지위를 어렵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이때가 최대의 위기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이 오늘의 이천쌀문화축제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천쌀문화축제는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승리에 취해 자만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이천쌀문화축제는 참여형 킬러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또한, 이천농산물(쌀)과 농경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농산가공제품 및 축제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축제를 통해 생산과 가공, 체험·관광이 융·복합된 농식품의 6차산업화의 성공적 모델로 만들어 갈 때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쌀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이천쌀문화축제 백서발간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를 넘어 대표축제를 지향하는 이천쌀문화축제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천쌀문화축제가 최우수축제로 발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금번 백서발간을 맡아 수고해 주신 오순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금까지 쌀문화축제를 사랑하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유관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백서발간에 즈음한 소회를 마친다.

홍찬의

농촌지도자인천시연합회 회장

가을이 깊어 갑니다. 일년 내내 농사에 눈 코 뜰새 없이 바빴지만 수확이 끝나가는 요즈음 포근한 설봉산을 배경으로 잔잔한 호숫가를 마주하며 자리 잡은 이천쌀문화축제 현장에 와보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다운 축제장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느새 쌀문화축제가 시작 된지도 15회를 맞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축제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은 세련된 듯 재미있으며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족하여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간 이토록 훌륭한 우리 이천시의 자랑거리인 이천쌀문화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자리 매김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전 현직 시장님과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해 오신 관계기관, 공무원, 농업인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초기에 쌀문화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논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비가 올까봐 많은 걱정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가슴 뭉클하게 기억 합니다.

이천쌀문화축제장의 구성 내용은 풍년마당을 시작으로 햅쌀거리,

주막거리, 농경마당, 햅쌀장터, 문화마당, 동네마당, 놀이마당, 기원마당, 문화마당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쌀문화축제 현장의 구성은 나름대로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축제의 목적이 쌀의 홍보이고 이천시 농업인들의 잔치이며 적극적인 홍보의 장이므로 이천쌀의 차별화와 우수성에 대해 이천쌀의 우수성 홍보실을 개설하여 운영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경쟁력이 심해지고 건강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참작하고 한, 중 FTA체결을 앞둔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이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시키려면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시장과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분석하고 이천쌀의 차별화와 안전한 먹거리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 포장지 개발연구, 기능성 쌀 연구 등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더한다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햅쌀 장터의 운영은 전적으로 농업인들로 구성해서 운영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설봉 호수가 금빛으로 물결이 출렁이며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은행잎이 휘날립니다. 다시 한 번 이천쌀문화축제가 더욱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그간 애써 오신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을 비롯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환

모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들이

농업의 무한한 가치를 잇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쌀을 들 수 있습니다.

못사람들은 말로는 쌀은 생명이고 쌀은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근원이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 이래 국가와 사회에서 이렇게 쌀이 천덕꾸러기로 몰린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식량이 없으면 굶거나 식량을 가진 나라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식량안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로 겨우 22.6%에 불과합니다.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은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곡물은 쌀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쌀을 지키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1996년 임금님표 이천 쌀 상표 개발과 등록을 하였고, 예로부터 전해온 이천 자재쌀의 명성을 되찾고자 1999년부터 농업인축제를 시작한 후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5회 쌀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2012년 제14회 축제까지 5회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 되었으며, 금년에는 최우수축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또한 축제 전문 잡지인 참살이가 선정한 국내 축제 20선 가운데 특산물 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이천쌀문화축제는 단순히 쌀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쌀을 소재로 한 농경문화를 대동놀이로 특화하고, 유치원 꼬마부터 어르신까지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문화 프로그램 및 먹거리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명실 공히 국민 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매년 이천쌀문화축제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매년 같은 생각으로 고민 하곤 합니다. 축제장 공간 구성에 있어 축제

이름에 걸맞게 햅쌀 장터가 축제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잘 운영되어 오다가 해가 가면서 설봉호수 주변 도로로 내려가더니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자 급기야 설봉공원 한구석 끝 주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모처럼 쌀 축제장을 방문해서 진짜 임금님표 이천쌀을 구입하러 오신 손님들 중 한마디씩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쌀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햅쌀 장터가 구석에 있어 찾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함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일례로 도자기 축제에서는 도자기가 중심이 되듯이 내년 쌀문화축제에서는 이천 쌀이 그 이름에 걸맞게 축제의 중심에 우뚝 서서 그 명성에 맞는 위치를 찾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이천쌀문화축제가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 까지 이천시와 추진위원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과 이천 시민들의 많은 관심에 박수를 보내면서 임금님표 이천 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축제로 더욱 발전하기를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써 소망합니다.

조명호

이천문화원 원장

이천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토양 그리고 벼의 생육조건에 가장 알맞은 기후를 지닌 고장이다.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이천에서 생산된 쌀의 품질은 명실공이 전국 제일로 널리 알려졌다. 올해로 벌써 15회에 이르는 이천쌀문화축제가 다른 곳이 아닌 이곳, 이천에서 펼쳐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는지 모른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2013년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외국인 6,070명을 포함한 50만1천명의 관람

객이 방문했고 이로 인해 이천은 약 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던 이천쌀문화축제의 시작을 처음부터 지켜본 이천 시민으로서 오늘날의 성공이 더할 나위 없이 감개무량하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의 이천쌀문화축제가 있기까지 수고한 행사관계자와 수많은 이천시민의 노력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천쌀문화축제의 시작은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천쌀의 뛰어난 품질은 진즉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임금님표 이천쌀’이 탄생하면서부터이다. 이천쌀이 임금님 진상미였음에 착안하여, 당시로서는 선구적으로 이천은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를 만들어 타 지역 쌀과 차별화 하였다.

이후에도 이천의 농업인들은 최고의 이천쌀을 생산하고 또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하여 이천쌀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쌀로 입지를 다졌다. 이천의 농민들은 그렇게 한 해 동안 논밭에서 흘린 땀과 결실을 자축하고자 그들만의 축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1999년 제1회 이천농업인축제라 불린 이천쌀문화축제의 전신이었다.

그 이후 이름 그대로 논바닥에서 소박하게 치른 2001 이천햐쌀축제는 이천 농민들의 한바탕 잔치마당이었다. 그런데 막상 축제를 시작하고 보니 예상보다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비록 규모는 초라했지만 ‘쌀’을 주제로 한 축제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이천쌀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무궁한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설봉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한 제4회 이천햐쌀축제는 더욱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탈곡체험, 방아찰기, 새끼꼬기, 가마니지게지기 등 다채로운 코너를 준비했으나 한편으론 무언가 빠진 것 같은 아쉬운 점

이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쌀’은 있지만 ‘쌀문화’는 없는 말 그대로 ‘햐쌀축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쌀 판매와 단순 체험행사에서 벗어난, 이천의 농경문화를 담은 무언가가 더 필요해 보였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이듬해 2003년 치러진 제5회 햐쌀축제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말았다. 당시 행정타운 부지에서 치러진 축제는 해마다 바뀌는 장소와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혼선을 빚었다. 물론 추운 날씨 탓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외부 관람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관람객은 지역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축제장 동선이 잘못되어 관람객이 큰 혼란을 겪었으나 주최 측에서는 장소가 협소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애매한 설명만 반복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천의 문화예술 단체의 참여가 부족하여 그때까지도 이천의 농경문화를 축제에 녹여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행사장 중앙무대와 솜씨자랑 무대가 인접해있어 한 곳에서 공연을 할 경우 한쪽은 아예 공연을 못할 지경이었다. 사소한 듯 보이지만 이 또한 전문적인 문화기획자인 문화예술단체의 참여가 부진했던 탓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하였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축제는 2004년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다. 기존의 ‘햐쌀축제’라는 이름 대신 ‘제6회 이천쌀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한 축제는 드디어 ‘쌀’과 함께 이천의 ‘문화’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돌아해보면 문화원장으로서 우리 이천문화원이 진정한 ‘쌀문화’축제로 거듭나는 중요한 격변기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다른 무엇보다 가슴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당시 18회를 맞이한 설봉문화예술제는 하부행사였던 도자기축제를 이미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내 독립시킨, 명실상부한 이천의 대표 문화 축제였다. 이천문화원이 주관하는 설봉문화예술제는 다양한 세부행사로 구성되는데 이중 몇 가지 행사를 쌀문화축제장에서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천쌀문화축제에 지역문화를 덧입히고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였다.

이천문화원은 2004년 제2회 학생풍물경연대회를 이천쌀문화축제 기간에 개최하였다. 이천쌀, 이천 농경문화를 설명하는데 이천의 농악이 빠져서야 되겠는가. 이천시 관내 10개팀, 144명의 학생이 열린 풍물공연을 펼친 학생국악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문화 전수의 장이 되었고, 이천쌀문화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전통풍물 특유의 신명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호평을 받았다.

쌀문화축제 풍년마당에서 열린 허수아비 가족축제도 빠뜨릴 수 없다. 허수아비 가족축제는 가족 단위로 구성된 48개팀이 오순도순 허수아비를 만들며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대회로, 이렇게 각자 가족의 개성을 담아 만들어진 허수아비는 쌀문화축제장에 전시되어 축제장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이 또한 허수아비라는 농경문화의 산물을 이천쌀문화축제에 결합하여 좋은 시너지효과를 거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밖에도 한국민속연보준회와 이천문화원이 함께 주관한 제1회 이천시장배 전국연날리기 대회, 국악퓨전 콘서트 공감21 공연 등 2004년은 이천쌀문화축제 발전의 큰 개가를 올린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설봉문화제의 다양한 행사가 이천쌀문화축제 기간에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쌀문화축제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공적 안착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봉문화제의 일부 행사를 쌀문화축제 기간에 함께 치를 필요는 없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올해까지 이천쌀문화축제장에서 치러진 허수아비가족축제를 내년부터는 이천 모가면에 새로 개관한 농업테마파크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테마파크가 훌륭하게 조성되었지만 아직까지 초창기이다 보니 아직 홍보가 부족하여 이 좋은 공간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항상 안타깝던 차였

다. 허수아비 가족축제에 참가한 가족들이 아름다운 농업테마파크에 모여 함께 허수아비도 만들고 자유롭게 둘러앉아 준비한 도시락도 맛있게 먹으면서 이곳을 천천히 둘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지하다시피 이천쌀문화축제는 다른 지역이 너무도 부러워하는 이천의 크나큰 자산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의 성공에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항상 쌀문화축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길을 걸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기억해야 한다. 초심을 잃는 순간, 이미 축제는 쇠퇴하기 마련이다. 이천쌀문화축제는 품질 좋은 이천쌀을 주제로 이천의 문화를 입힌 이천의 축제여야 한다.

김선우

한국미술협회 이천시지부장

- 가을걷이 축제로 성장한 이천쌀문화축제 -

나눔과 풍요의 계절, 넉넉함과 정이 넘실거리는 계절에 열리는 ‘이천쌀문화축제’는 대한민국 전통적인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소재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행사장에 가득하다.

지역축제가 그 지역의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15년이란 시간동안 갈고 다듬어진 ‘이천쌀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후 첫 번째 행사로 개최되어 그 의미가 새로웠다. 문화관광축제는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평가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홍보와 축제마케팅 등을 지원 받는다.

우리의 전통농경문화와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999년 이천농업인축제로 출발, 2001년 이천햐쌀축제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2004년부터는 ‘이천쌀문화축제’로 열리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러 농경문화의 백미인 가을걷이 축제로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최고의 축제로 성장하였다. 시민회관 광장에서 자그마하게 출발하여 2003년 예비 지정축제로 선정된 이후 유망지역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단계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의 축제는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 지속가능한 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

2013년 현재 정부에 보고된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2,429개로 알려져 있다. 모두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객을 유도하고는 있으나 몇몇을 제외한 다수의 축제들이 저평가되어 주민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서 있는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문화자원의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하나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다듬기 위해 축제의 형태를 빌어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판단되겠지만 축제를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얻고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 산업, 경제 등 지역사회의 상호의존관계에 충돌함이 없이 충분히 배려하여 그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일회성축제가 아닌 향후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발로 볼 때 ‘이천쌀문화축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성장을 했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쌀 전면수입 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다.” 등등 쌀을 중심으로 걱정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게 현실적인 화두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성과위주의 평가들이나 상황들을 기반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향후 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대를 이루어 축제의 지속적인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해 낭비성 예산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관점 이외의 긍정적인 이점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축제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성공적 요인들이 지역에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접목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장기틀이 마련될 때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씩 정리되어 축제의 필요성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무형의 가치로 평가 받아야 할 이천쌀문화축제 -

이천쌀문화축제가 현재의 최우수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대치는 어느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인다. 하지만 대표축제 지정 이후의 축제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고 이천의 발전 동력에 얼마나, 어떻게 흡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든다.

내외국인 방문객 수 증가, 햅쌀판매 상승 등 행사 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재의 수치적인 상황만으로 단순하게 이천쌀문화축제의 가치를 예단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판단이며, 평가이다.

이천쌀문화축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축제를 통한 이천쌀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와 「이천」이라는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천쌀문화축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폭넓게 바라보는 넓은 의미의 평가가 있어야 그 가치가 정확하게 산정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가 소중하게 평가받을 때 향후 축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물론 축제를 통한 도시경쟁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지속적인 발전이 거듭될 것이다.

이천쌀문화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 축제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인 '제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여성 소비자가 뽑은 2013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축제 전문 잡지인 참살이가 선정한 국내 축제 20선 가운데 특산품 부문에서 1위, 세계축제협회가 인정하는 피너클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축제의 성공을 통해 「이천」이라는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15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일구어 낸 이천쌀문화축제는 먹거리인 쌀을 통해 전통적인 농경문화를 축제로 승화시킨 모범사례임에는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이천쌀문화축제가 유형의 자산을 뛰어 넘어 무형의 가치로 이천의 발전 동력에 어떻게 기여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냐에 집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영봉

이천뉴스 대표

대한민국 농경문화와 대동놀이를 대표하는 이천쌀문화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치러진 이번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는 기존 축제일정을 하루 연장해 5일간 설봉공원에서 진행됐다. 전통문화와 농경문화를 대동놀이와 민속놀이 체험형태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천쌀문화축제는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천쌀문화축제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예비지정축제로 2년, 유망지역축제로 3년, 5년 연속 우수지역 축제로 지정되는 등 10여 년간 예비축제와 유망축제를 거쳐 우수지역 축제로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최우수축제를 눈앞에 두고 5년 동안 우수축제로 머물면서 정체를 거듭하던 이천쌀문화축제가 지난해 12월 드디어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최우수축제로 결정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최우수축제로 성장한 이천쌀문화 축제는 2013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한편 2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과 세계축제협회가 주관한 피너클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5년 축제를 개최하는 동안 11년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예비축제와 유망축제, 우수축제를 거쳐 최우수축제로 성장한 이천쌀문화축제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과 농경문화 체험, 다채로운 공연, 먹거리, 즐길거리로 관람객들의 오감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천쌀문화축제는 가을 수확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을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축제로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의 길을 들어서게 된다.

가을걷이에 대한 감사와 진상행렬, 임금님표 이천쌀과 농경문화의 백미인 가을걷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된 추수감사제와 임금님 진상행렬은 이천쌀문화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지개 가래떡을 관람객들이 함께 만들고 이를 나누어 먹는 한편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가마솥에 밥을 짓는 가마솥이천명이천원 행사는 이천쌀문화축제를 대표하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됐다.

또한 풍년마당과 농경마당, 기원마당, 놀이마당, 문화마당, 동화마당 등 마당별로 진행된 대동놀이와 민속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진 이천쌀문화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모토로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를 관광객들에게는 최고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오감을 자극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이천쌀문화축제는 그동안 끊임없는 성장을 거듭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최우수 축제가 되기까지 10여년이라는 세월동안 꾸준히 변화하면서 성장을 꾀한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뿐 아니라 농업인,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문화단체 등 이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발전하는 축제의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 이천쌀문화축제가 최우수 축제를 넘어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쏟아 부었던 열정 이상의 또 다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당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먹거리, 볼거리 등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협쌀장터를 통한 이천지역 농산물 판매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협소한 축제 장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단풍과 호수가 어우러진 설봉공원은 초창기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충분한 규모였으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한 쌀문화축제를 담기에는 규모가 협소하다는 것이다.

또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형태이면서 대표축제로 성장한 김제 지평선축제를 넘어야 한다. 김제지평선축제의 경우 넓은 벽골제 들판에 해마다 인프라를 넓혀가면서 축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고 있으나 이천 설봉공원은 해마다 축제인프라를 만들고 없애고 다시 만드는 소모적인 축제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협소한 장소와 지속적인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설봉공원이 아

닌 새로운 축제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이천쌀문화축제 만을 위한 상설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제가 진행될 때는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이천쌀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모가면에 조성된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정말 아쉽다. 처음부터 쌀축제를 염두에 두고 보다 규모 있게 단지를 조성했다면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쌀문화축제를 담아내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거나 농업테마공원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협소한 축제장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갑수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천시지회장

늦가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설봉공원에서 매년 이천쌀문화축제가 열린다. 설봉산에는 오색단풍이 물들고 호숫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매년 풍년잔치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색깔을 뽐내며 환하게 웃어준다.

변함없는 친구와도 같은 설봉공원에서 흥과 멋이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 해마다 쌀축제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와 편안함이 묻어난다. 사람들은 행사기간 내 한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쌀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이천쌀문화축제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고 결국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쌀축제를 함께 즐기고 신명이 난다는 것을 뜻함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통해 우리의 자랑 임금님표 이천쌀이 세계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걷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천쌀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임금님 진상행렬이 화려하게 서막을 알리며 제일 먼저 추수감사제를 지낸다. 사물놀이의 휘모리장단에 맞춰 굿거리를 풀어내고 액을 물리치며 제례를 올려 농부들의 소원을 빌고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풍년기원을 하면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천쌀로 지은 맛있는 고사떡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이천 명품쌀이 말해주듯 農者天下之大本이라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듯, 일 년 사시사철 정성으로 농사를 잘 지어 추수를 하고 이 거둬들인 곡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맛있는 밥 이천쌀 찰진 맛으로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대형 가마솥에 이천명분의 밥을 지어 이천원에 한 끼를 후하게 먹을 수 있는 밥맛은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가 밥이 맛있다고 어디 가서 이런 밥맛을 느낄 수 있을까 한마디 한다. 어느 식당에서 먹는 밥맛보다도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가마솥에서 나오는 하얀 김이 구수한 맛을 풍기니 절로 밥맛이 좋을 수밖에.. 쌀축제에서 단연 자랑거리 1순위가 가마솥 밥이 아닐까.

또한 화덕 위에 장작불을 때어 이천 쌀로 가장 맛있는 밥을 짓는 명인을 선발하는 ‘이천쌀밥명인전’은 단순한 밥 짓기의 기술보다는 밥 짓는 사람의 심성을 보는 것 같아 더욱 감동적이다.

축제에서 먹을거리와 더불어 볼거리가 많고 흥을 돋우는 것이 또한 공연이다. 마당놀이문화로 각 마당에서는 다양한 공연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마당에서 어깨춤을 등실등실 추며 가족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모습에서 훈훈함이 절로 묻어난다. 쌀축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하다는 것이다. 관광객도 물론 많지만 이천에 거주하는 각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줄다리기 라든지 거북놀이보존회 등 주민참여가 많다보니 참여한 사람 주변인들이 거의 매일같이 와서 함께 축제를 즐긴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민 모두가 홍보대사이고 네트워크의 결정체인 셈이다.

특히 다양한 외국관광객들이 이천쌀축제에 와서 우리 고유의 맛과 멋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전통문화를 널리 세계로 알리는 역할을 이미 톡톡히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실제 전통혼례를 체험하면서 인터넷으로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쌀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관광객이 이미 문화전도사임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공연을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가 하나 되어 문화공동체로 자리 매김 될 때 이미 축제는 성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기까지의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간 축적된 역량으로 차별화된 테마와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최우수축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구성으로 쌀문화축제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따듯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기획과 운영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인간적인 냄새가 훨씬 풍기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천의 모든 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인 햅살장터에서 이천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먹거리를 팔고 삼삼오오 손에 가득 농산품을 사가지고 행복한 상차림으로 가족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즐겨워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자체가 행복이며 이천쌀문화축제의 기억이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이천의 문화와 놀이, 경제 산업으로서 이천쌀과 특산물이 세계로 널리 뻗어나가 지역경제시장의 활성화로 이천농업인들의 경쟁력이 단연 최고임을 보여주고 농업인들의 삶 자체가 이천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처럼 자부심과 넉넉함으로 오래도록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

연구철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팀장

1999년 농업인의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행사를 시작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의 농촌체험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10개 읍면동에 개발 운영하면서 쌀의 중심지 이천에서 쌀을 소재로 하는 축제를 만들어 도시 소비자를 비롯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햅곡식이라는 신선함과 풍성함을 함께 전하는 의미로 ‘이천햅쌀축제’를 처음 기획하게 되었다.

햅쌀축제는 쌀을 생산하는 논배미에서 개최하는 것이 운치도 있고 도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장이 될 것이고,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오게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쌀이 생산되는 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01 이천햅쌀축제’를 개최할 당시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은 3천만원. 5일간의 행사를 하기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했는데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지원 받아 5천만 원으로 축제를 만들었다.

축제 개최 2년여 만인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입성하게 되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육성하는 문화관광축제는 모두 42개로 이를 등급별로 분류하면 대표축제 2개, 최우수축제 8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2개로 이천쌀문화축제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대동놀이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축제 초창기 파란 가을 하늘 같이 그렇게도 높게만 보이던 최우수축제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보통 문화관광축제는 시군청의 관광과 주관으로 행사를 운영하는데 42개 축제 중 유독 이천쌀문화축제 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는 축제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15년간 기획 운영

해온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쌀문화축제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즐거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농경문화의 기초는 대동놀이이기 때문에 축제장에 와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시간대별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아닌 공간별 운영방식을 채택하였고, 공간을 11개 마당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호간 경쟁심을 유발하면서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축제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사갈 거리가 있어야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체험 위주의 축제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이끌어 내었다.

쌀을 주요 축제상품으로 올려놓기 위한 과정으로 2005년에 2천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짓기 위해 최고로 큰 솥(직경 1.6m, 높이 1.7m, 무게 320Kg)을 특별 제작하여 ‘가마솥밥이천명이천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열화와 같은 반응에 12시와 오후 2시, 하루에 두 번 밥을 푸게 된 인기 만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2천명이 나누어 먹는 ‘무지개가래떡’만들기, 가래떡에 호박, 흑미, 쪽 등 천연색소로 색을 입혀 오색가래떡을 탄생 시켰으며, 쌀밥을 제일 잘하는 명장을 선발하는 ‘이천쌀밥명인전’, 세계에서 쌀을 재배하는 나라들이 참가해서 각국의 전통 쌀 요리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시식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는 ‘세계쌀요리경연’은 누구나 흥미로워 하며 기다려지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천 거북놀이는 현재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1년에 몇 차례 공연행사만 하던 것을 쌀문화축제를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가 되어 가고 있으며,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화합의 협동심을 발휘하는 ‘용줄다리기’와 ‘햅쌀대동놀이’는 행사장내에 모든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춤추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끼를 발산

하도록 진행하였다.

모든 축제가 TV, 라디오, 신문이나 잡지를 통한 다양한 광고나 홍보를 하지만 사람들의 입소문만큼 좋은 홍보는 없는 것 같다. 구전에 위한 홍보를 위해서 관광객이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축제장을 나올 때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였다. 축제장에서 기분을 잡치는 경우는 식당과 판매장에서의 바가지요금일 것이다. 우리 축제장에서는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해 놓았으며, 햅쌀장터의 쌀 판매가격도 시중 가격보다 5~7천원 싸게 판매하도록 하였고, 모든 농산물의 택배는 무료 서비스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천쌀문화축제가 가장 자랑하는 프로그램은 햅쌀장터 운영이다. 단순히 쌀을 파는 것이 아니라 쌀이 나오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고 옛날 장터와 같이 소비자가 쌀을 확인한 후 구매토록 하여 이천쌀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이천쌀문화축제를 처음 개최한 2001년에 방문객은 14만7천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50만1천명으로 340% 상승하였고 외국인도 2001년에 57명에서 2013년 6천명으로 외국인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 외국인들이 한국의 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확실한 문화관광축제로 입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지역경제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보면 축제 초기인 2001년 68억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392% 상승한 205억 원으로 놀라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

쌀문화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여행업체들에게 설명회를 가졌던 일, 국내 각종 축제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하였던 일,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하고도 쉬지 못하고 축제를 기획 운영해 왔던 일,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안겨 주었던 몇몇 사람들, 처음으로 문화관광축제 신청서를 내기 위해 애쓰던 일 등

힘겨웠던 일이 많았지만 이천쌀문화축제는 위대한 이천 시민과 공직자가 자기 일 같이 발 벗고 나서서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낸 산물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이제 더 큰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어메니티를 더 개발하고 대동놀이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쌀이나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융복합 6차 산업으로의 농식품개발, 소비자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농촌체험관광의 장으로, 향수를 달래는 마음의 고향으로,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교유의 놀이와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천쌀문화축제를 연구개발하면서 초창기부터 함께 축제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용인대학교 오순환교수와 이천시민은 물론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들소리, 극단갯돌, 극단 청계, 거북놀이보존회, 얼쑤, 이천예총, 상미아트, TSM, 삼성전기, 데모스, 축제전문 참살이 등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외부 전문가

이수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 경영학부 교수

내가 이천쌀문화축제를 처음 본 것은 당시 문화관광축제 등급이 ‘유망’이었던 2007년 10월 27일 설봉공원이었다. 설봉공원은 이미 도자기축제로 인하여 나하고는 구면인 장소였는데 이곳에서 쌀문화축제를 한다니 당시 장소를 알고 있던 나로서는 축제를 제대로 할까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그 당시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으로서 이천쌀문화축제를 평가하러 가는 장소가 설봉공원이다 보니 농촌지역이 아닌 공원에서 농촌문화를 바탕으로 농촌의 정서를 반영한 놀이축제를 한다고 하니 지역의 특성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압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설봉공원 입구에 도착하면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조금도 농촌의 정서를 느끼기에는 거리가 있었다.

일단 축제장에 들어오면서 축제에 몰입하면서 잊었던 농촌의 문화와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설봉공원은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적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은 공간을 마당이라는 더 적은 공간으로 나누어서 각 마당에서 독특한 농촌문화를 재현함으로써 참가자가 본인도 모르게 마당놀이에 몰입하게 구성된 것이 농촌문화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백미였다고 회상하는데, 내가 처음 보았던 당시 축제 프로그램들도 큰 줄기에서는 지금의 이천쌀문화축제와 많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다. 풍년마당, 쌀문화 한마당, 시골장터 한마당, 짚풀문화 한마당, 동화마당, 기원마당 및 난전 등의 구성은 지금과 큰 틀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번 2013년에 개최되는 이천쌀문화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최우수’등급으로 개최되는 첫해로서 얼마나 변모했는가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2007년 이후에도 몇 번 이천쌀문화축제를 보았지만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서 개최되는 것이어서 축제의 규모와 완성도에 대한 기대였다고 할 수 있었다.

2007년도 이천쌀문화축제가 유망등급 때부터 유지해온 마당중심의 프로그램배치는 지금 2013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축제의 일관성과 인기 프로그램들이 이어오면서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제의 등급이 오르면서 수도권 방문객의 참가가 늘어나면서 축제장의 규모도 확장되었고 프로그램도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확장 규모에 비교하여 훨씬 많이 늘어난 방문객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방문객의 불만족 요인을 어떻게 대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축제의 등급이 오르고 수도권 방문객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방문객의 참여로 축제프로그램의 다양성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야간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대안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천쌀문화축제의 개최 시기가 10월말에서 11월초인데 주간과 야간의 온도차가 심하여 야간 프로그램의 도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봉공원이 도심에 위치하여 불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점이 풀기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이천쌀문화축제가 15년을 이어오면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는 가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천시가 쌀 산업과 쌀 문화, 도자기산업과 도자기문화를 결합하여, 지역특산품과 지역문화, 예술을 결합한 축제 모델을 개발한다면 더욱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천시가 이천쌀문화축제의 역할과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천시의 도자기 축제와 쌀문화축제에 대한 발전전략에 대한 심사숙고사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개최시기와 축제에 대한 지원 같은 사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최적의 교통 요충지에서 농촌문화를 재현하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노장년층에게는 과거의 회상을 젊은 세대에게는 교육의 장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천쌀문화축제가 많은 발전과 명성을 얻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생각한다. 이천쌀문화축제가 구현해야 할 최종단계는 풍년축제로서의 대동놀이로 승화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장소적인 제약으로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천쌀문화축제를 참가하는 방문객들에게 주차와 같은 문제 등으로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축제가 발전할 수 있고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전략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이천쌀문화축제는 전체적인 형식과 틀이 매우 안정된 체제를 보이고 있다. 상품판매를 축제장 후면으로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제판매 점들이 경쟁적으로 부스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당 축제는 ‘페어(fair)’가 아닌 ‘축제(festival)’로 정착되고 있었다.

또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 수가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행사장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시청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셔틀을 운행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였다.

그리고 축제방문객이 이천쌀을 많이 구매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축제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이미 대표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을 비롯하여 축제장소로 쓰이는 설봉공원의 가을정취가 축제분위기와 잘 어우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촉진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도 있었다. 첫째로 주제성을 강화하면 좋겠다. 현재 ‘맛스런 내음이 너울~, 흥겨운 어깨는 등실~’이라는 문구는 주제라기보다는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대신 프로그램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주제관을 만들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그해의 주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분위기의 강화가 필요해 보였다. 비록 축제장소인 설봉공원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당 축제의 핵심인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의 이전이 어렵다면 축제

장의 분위기를 농경문화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소품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벼단을 쌓아 놓거나 입구에서부터 벼단으로 장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혹은 농경문화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탑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이천쌀문화축제가 최우수를 넘어 대한민국대표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고민해보아야 하겠다. 첫째는 국제마케팅의 강화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실제 외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홍보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다양한 방식의 SNS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혹은 여행사와 제휴하여 마케팅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야간프로그램이나 마무리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축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놀거리를 준비하여 참가하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좀 더 역동적인 놀이요소를 접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공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축제장 앞의 설봉호수를 활용하거나 축제장 뒤편의 ‘이천 세라피아’ 공간 및 전시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도자기와의 관계설정도 필요한데, 세라피아 공간과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이천도자기페스티벌과 이천쌀문화축제를 시기적으로 같은 계절에 중복 개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천쌀문화축제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문화관광축제 졸업을 대비하여 자체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통해 축제의 점검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진호

전양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지난 수천 년. 쌀은 한반도에서 우리와 애환을 함께해 온 민족우량재이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쌀은 생존이요, 생명의 젖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 이후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식생활문화가 바뀌면서 쌀은 현대인들에게 주변자로 머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듯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쌀만큼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주연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바램이다. 그러한 바람을 토대로 이천시의 문화관광자원을 버무려 탄생한 것이 바로 이천쌀문화축제이다. 이천 쌀은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맛이 우수하고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축제가 이곳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천 쌀문화축제는 이미 이천지역의 토착문화로서의 당위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몇 년 전 내가 이천 쌀문화축제장을 처음 찾았을 때 여느 축제장에서는 좀처럼 보지 못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것은 쌀농사가 노동집약적인 일이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협동심을 축제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녹여 멋진 대동제를 연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이 축제를 기획한 사람은 농민과 쌀 생산의 과정적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축제장 곳곳에 배치된 작은 공간마다 공연자와 관광객이 한데 어울려 모두 ‘우리’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기계문명 시대에 ‘우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다. 그 순간 관광객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 모처럼 축제장인 설봉공원을 찾았을 때의 첫



느낌은 ‘쌀문화축제’를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장소로서는 지나치게 도시화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축제가 과거에 비해 세련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 졌지만 마치 나무색을 칠한 시멘트 의자에 앉는 듯한 분위기였다고나 할까?

유사한 테마의 김제지평선축제는 이천쌀문화축제장처럼 공원에서 공연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메뚜기 잡기, 타작, 미꾸라지 잡기 등 대부분의 체험프로그램은 축제장 인근의 논에서 실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농경문화의 사실적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즉, 김제지평선축제에서는 농경문화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올해 이천쌀문화축제는 아쉬움을 많이 주고 있다. 잘 닦여진 도로와 각진 텐트보다 먼지 나는 흙길과 짚풀 움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신명나는 대동제만으로도 이천쌀문화축제는 관광객들에게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계문명에 순치된 현대인들은 결과는 달리 속으로는 기계음 울리고, 잘 포장된 아스팔트위의 축제보다는 인간의 감성을 느끼며 황토 맨발길의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축제를 동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과 내용은 현대적으로 진화하되,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숨은 뜻을 진정으로 헤아릴 줄 알게 된다면 이천쌀문화축제는 그 신명과 ‘우리’가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 중심의 축제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배만규

국립안동대학교 유럽문화관광학과 교수

쌀은 우리에게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었으며, 우리 삶의 축적인 우리다운 문화를 이루는 토대가 되어 왔다. 예로부터 쌀 하면 경기미, 경기미하면 여주와 이천을 떠 올렸다. 특히 이천은 도자기와 함께 임금님께 진상하던 이천쌀이 유명하며, 그리하여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다. 또한 이천에서는 이와 같은 쌀의 명성을 활용하여 쌀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였다.

쌀은 여든여덟 번의 손을 거쳐야 하는, 힘든 노동을 수반하면서도 오랜 기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귀한 존재였다. 그러기에 쌀을 생산하는 농부는 천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고귀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 따라서 이천에서는 1999년부터 이천농업인축제를 개최하였을 것이다. 2001년부터는 이천농업인에서 이천협쌀로 방향을 전환하고 2004년부터 오늘과 같은 이천쌀문화축제로 확대 개최되고 있다.

이천쌀문화축제의 유명세는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즉, 이천의 특산물인 쌀을 소재로 농경문화를 대동놀이로 특색화한 점, 체험을 겸비한 농·특산물 판매와 임금님표 이천 쌀 홍보성과 등으로 지난 3월 ‘2013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참살이 선정 가볼만한 축제 중 특산물축제 부문 1위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 결과 이천쌀문화축제는 올해로 개최된 지 15회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42개 밖에 없는 문화관광축제 그 중에서도 최우수축제에 선정되었을 정도로 성공적인 축제이다. 이는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고, 저마다 쌀을 사고, 즐겁게 축제장에서 노는 모습들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축제가 표방하는 대동놀이의 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천쌀문화축제장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축제 방문객들이 넘쳐나고, 쌀을 사기 위해 흥정하는 모습이 있으며, 지역농특산품을 구경하며 때로는 맛보기도 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있다. 쌀밥카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가마솥밥을 짓는 명인이 되기 위해 명인후보자들이 가마솥으로 밥을 짓고, 방문객들은 이천명가마솥에서 갓 지은 쌀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있다. 주막거리에서는 축제장이라는 약간은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즐기려는 듯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과장된 몸짓으로 떠들썩하게 약주를 마시는 사람들, 조금 과하게 마신 어르신들의 흔들거리는 몸짓 등 축제분위기가 물씬 풍겨난다.

이 모든 것이 이천쌀문화축제가 지닌 축제성일 것이다. 이럴 때는 체면치레한다고 입고 온 점잖은(?) 의복을 걸친 게 축제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 같아 오히려 원망스럽다. 생면부지인 남이지만 일상을 내려놓고 같이 둘러앉아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누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입맛만 다시며 카메라 셔터만 눌러댔다. 다시 생각해도 아쉽다.

이천쌀문화축제에서는 농경문화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북놀이, 용줄다리기, 쌀밥명인전, 햅쌀대동놀이, 600m 무지개가래떡, 이천명 가마솥 등 이천과 이천 쌀문화축제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이천의 지명을 활용한, 이천명 가마솥에서 지은 쌀밥을 ‘이천명 이천원’에 먹는 가마솥밥은 줄을 서고 서도 먹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런 이천쌀문화축제가 이제 문화관광 대표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겠지만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하여 지금보다 내용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쌀문화축

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축제장을 풍경마당, 문화마당, 놀이마당, 햅쌀장터와 난장, 농경마당, 기원마당, 주막거리, 쌀밥카페, 동화마당으로 구획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농경마당보다는 ‘쌀문화체험마당’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쌀문화체험마당에서는 쌀의 시작인 벼씨 고르기에서부터, 모내기, 피뽕기, 메뚜기잡기, 추수하기, 감사제 지내기, 쌀 음식 시식하기 등 쌀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주동선을 미리 설정한 후, 동선을 따라 농경마당에서 체험한 쌀의 일대기와 쌀이 먹을거리로 활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천쌀문화축제와 유사한 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김제지평선축제가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수리시설인 벽골제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시초를 표방하고 있다면 이천쌀문화축제는 말 그대로 쌀문화로 집약되어야 한다. 즉, 이천쌀문화축제는 농경문화나 도작문화를 표방하기 보다는 쌀의 다양한 먹을거리 활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농경보다는 쌀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축제의 컨셉, 주제, 프로그램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쌀은 서민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김치와 고추장으로 비벼먹던 것은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 또는 잡곡밥이었다.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이천명 이천원을 대체할 수 있는 쌀밥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천쌀문화축제의 개최시기가 10월 하순에 있어 저녁이면 기온이 떨어져 방문객들이 추위 때문에 일찍 귀가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저녁시간대에 방문객들이 축제장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문화마당에 햅쌀마당의 기능을 부가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현재 방문객들의 이용이 그리 많지 않은 문화마당은 어느 정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 저녁시간에도 이용이 가능

하다. 문화마당 내의 계단식 스탠드를 없애고 인형극은 마당극 형태로 진행하고, 저녁에는 삼삼오오 가족 또는 소그룹 단위로 둘러앉아 화롯불에 고구마, 감자, 콩, 계란 등을 구워먹을 수 있게 하거나, 이천 햅쌀을 압력밥솥으로 밥을 해도 가마솥밥 못지않은 맛을 내므로 햅쌀밥을 지어 문화마당 한 편에 마련된 밀반찬 난전에서 밀반찬을 구입하여 먹도록 한다면 쌀문화축제에 적합한 공간과 프로그램의 발굴, 방문객들의 체류시간 연장과 수입 증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농촌을 걱정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예전부터 우리의 쌀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는 그저 흘러가는 뉴스가 아니었다. 변화되어 가는 식생활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천시와 이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천쌀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이천 쌀 나아가 우리 쌀이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먹을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다.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고 이천쌀문화축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오훈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진보하는 축제

이천은 중부내륙지역으로 예부터 산 좋고 물이 좋아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들었다. 특히 이천쌀은 희다 못해 푸른 기가 돌며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밥맛이 좋기로 명성이 난 특산품이라 조선시대에는 음력 6월 보름이면 왕에게 진상품으로 바쳤다고 한다.

이천 쌀문화축제는 이런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천지역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나는 시기에 맞춰 홍보 목적으로 관련 축제를 앞 다투어 개최되다 보니 베끼기식 빈약한 콘텐츠들로 채워져 있다. 이천 쌀문화축제도 초기에는 특산품판매에 중심을 두다가 이제는 축제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다행이다.

축제의 본질은 지역주민들의 신명풀이이자 일탈의 즐거움이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이러한 축제의 본질을 잘 구현하고 있는 축제이다. 외지의 관광객들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놀이판이 펼쳐져 더욱 신이 났다. 축제의 신명과 일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몸으로 체험하면서 열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더욱 유쾌하였다. 더 덩실 춤을 출 수 있는 난장을 펼쳐놓았고 막걸리주막에서 주모들이 펼치는 노래곡조가 흥에 취하게 만든다.

지속 가능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쌀문화축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장점들은 많이 있다. 첫째, 이천 쌀문화축제는 즐길 거리가 많다. 행사장에서는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쌀밥명인전, 이천명분 가마솥 밥 짓기 등 요리체험과 마당놀이,

쌀 주머니 받기, 햅쌀 대동놀이와 같은 다양한 전통체험을 만끽할 수 있었다. 특히 쥔공예체험, 모내기체험, 벼 탈곡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이색적이고 교육적이다.

둘째, 이천쌀문화축제는 먹거리가 많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이천쌀로 만든 최고의 음식들과 단돈 2,000원이면 맛있는 이천쌀밥을 대접한가득 먹어 볼 수 도 있으며, 축제장 곳곳에서 뽕튀기, 엿, 떡, 두부 등 전통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00명 가마솥 밥 프로그램은 이천밥맛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가마솥에서 지어지는 모습과 시식하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 등 이벤트성과 매력성을 뽐내고 있다.

셋째, 이천쌀문화축제는 살거리가 많다. 이천 쌀문화축제는 햅쌀장터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축제장에 축제를 즐기고 쌀을 구입하면 무료로 택배를 보내주기 때문에 쌀 구입에 전혀 부담이 없다. 다만, 축제행사장중 공간이 가장 먼 곳에 위치해있어 다소 분리된 감이 있고, 단순히 판매장소로 활용하기보다는 시골장터처럼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미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편, 이천 쌀문화축제는 지역축제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인사를 소개하는 개·폐막식 무대가 없다. 단지, 임금에게 진상하던 이천 쌀의 위상을 알리는 ‘임금님 진상행렬’과 한해 풍년과 넉넉한 추수를 베풀어 준 자연과 땀 흘린 농민에게 감사를 표하는 추수감사제가 재현될 뿐이다.

그리고 이천쌀문화축제는 특산물 아가씨를 선발하거나 주민노래자랑을 펼쳐 보이는 등의 가요제가 없다. 추억의 7080라이브공연 등 추억의 음악여행 중심으로 늦가을의 풍취를 더해줄 뿐이다. 이처럼 이천쌀문화축제는 격식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축제로 나아갈 것이다.

일반 방문객

박찬혜

용인시 처인구 거주

산과 들판은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 예쁘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저는 단풍 구경은커녕 자취방에서 형광등 불빛만 받으며 시들시들 시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엄마가 이천에서 쌀 축제를 하는데 같이 구경 가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단번에 콜! 했죠^^ ‘근데 잠깐, 이천이 쌀로 유명한 건 알았는데 축제라고? 흠... 뭐 별거야 있겠어?’ 저는 그냥 엄마랑 바람 쐬러 나간다 생각하고 축제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용인에서 두 시간 남짓 달려 설봉공원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차량과 인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호숫가의 풍경에 짜증나기보다는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길가에 겨우 차를 대고 엄마랑 걸어오면서 설봉공원 호숫가를 배경으로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 엄마 뱃살이 줄어줄 거라고 기대했으나 이게 웬걸? 햅쌀장터에 들어가자 다양한 이천시의 농산물에 눈이 휘둥그레 해지고 엄마랑 저는 보쌈과 버섯, 차, 고구마 등을 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식품이 정말로 싱싱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것을 사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구경을 해보려 하는데! 다시 눈앞에 펼쳐진 건 기다랗게 늘어선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보니 무지개가래떡 행사장이었습니다! 색색깔로 끊임없이 나오는 가래떡! 이것도 기필코 먹고 가리라 엄마와 저는 조용히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래떡이 완성되고 만세삼창이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떡이 게 눈 감추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도 팔뚝만한 길이의 떡을 낚아챘죠. 엄

마랑 맛있게 먹고도 푸짐하여 주변에 못 받으신 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나눔에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왕 먹기 시작한 거 이번에는 가마솥 밥을 맛보러 왔습니다. 어른 네 명이 들어가도 될 거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솥을 보고 한번 놀라고, 새로 담근 아삭한 김치와 고추장만 곁들여도 맛있는 이천 쌀밥 맛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또 먹고 싶네요^^

배도 채웠겠다, 이제 다양한 축제마당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도 쌀당첨을 위한 스탬프 쿠폰 하나씩 집어 들고 각 마당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화마당에서는 흥부 놀부 인형극 관람을, 놀이마당에서는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을. 즐길만한 각종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이천시 유치원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준비한 전시 작품들도 보며 이천 시민들 모두가 이 축제를 위해 참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축제를 보러 온 많은 유치원생들, 외국인 관광객들, 중고등학생들을 보며 이천쌀문화축제가 지역축제 중에서는 꽤 잘 알려져 있나보구나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엔 농경마당으로 가봤는데 팔씨름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상품권을 주더군요. 저희 엄마 그 사실을 알고서는 다음 참가자 호명 시 “너 팔씨름 잘하지 않냐”며 냅다 저를 떠미셨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지만 일단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저의 상대는 중국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손에 자꾸 힘을 주며 긴장하고 있었지만 저는 웬지 이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렵지 않게 이겼는데 사회자 분께서 많이 먹고 힘내라며 배 교환권 대신 돼지고기 교환권을 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엄마의 웃음은 더욱 끊이지 않으셨고 상품권을 더 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죠.

잠시 후 놀이마당에서 난타공연이 끝난 후 작은 팔씨름 대회가 펼쳐졌는데 저희 엄마, 또 저를 떠미셨습니다. 엄마의 즐거움을 위해서라

면! 미안한 맘이 들었지만 할머니들도 가뿐히 이기고! 드디어 결승상대를 만났는데, 팔뚝부터 정말 튼튼하시고 풍기는 포스가 남다른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힘줘볼 새도 없이 두 번 연속 픽픽 쓰러졌죠. 비록 졌지만 이번에는 배 교환권을 탔습니다! 신나서 상품을 교환하고 엄마랑 차에 미리 옮겨왔습니다. 장터에서 차까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희 엄마 배도 점점 훌쩍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쌀 당점을 기대하며 도장을 다 모은 쿠폰을 들고 문화마당으로 갔는데 아쉽게 당점은 되지 않았지만 상품권을 받았기에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의 또 다른 명물 도자기를 보러 도자기 박물관에 가서 구경도 하고 기념품으로 예쁜 반지도 사서 돌아와보니 기원마당에서는 김치의 일생이라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앉아서 구경하는 내내, 보는 사람도 흥이 나게 해주는 배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관객들까지 무대로 나와 신명 나는 강강술래 한판이 벌어졌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손을 잡고 한데 어울려 뛰노니 정말 축제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신이 나셨는지 다른 사람 눈치 안보고 춤을 추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회자 분께서 각종 상품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또 신나서 돼지고기, 배, 꽃과 교환해서 받아오고 이천의 맛있는 쌀도 잊지 않고 구입해서 차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별 기대 없이 엄마를 따라 축제에 갔던 건데 생각지도 않게 두 손 가득 풍성함을 얻고 엄마와 즐거운 하루를 보내서 감사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투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신 이천 시민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엄마가 바로 다음날에 또 가자고 하실 정도로 신이 나셨는데 내년에도 다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땐 이번에 사지 못한 여러 농산물도 더 구입해야겠습니다. 또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이천 곳곳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농경체험

프로그램(부래미마을 딸기농장체험, 도자기마을, 천연염색 등)에도 관심이 생겨 엄마랑 가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숙

대구광역시 증리동 거주

제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축제 구경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지난달에는 팔공산 승시축제에 다녀왔고 이번 달은 이천쌀문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사위가 경기도로 발령이 나면서 딸이 지난 달 초에 대구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축제도 보고자 1박 2일 일정으로 이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천은 초행길이라 모든 것이 다 새로웠고, 특히 이천쌀문화축제가 유명하다고 해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남편, 딸, 손녀와 저. 이렇게 네 명이서 축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천에 도착한 후 딸네 집에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바로 설봉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설봉공원의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단풍, 산들바람, 쪽빛 하늘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었습니다. 설봉공원의 비경에 온가족이 한참 동안이나 넋을 놓고 있다가 축제장에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 팜플렛을 받아서 거기에 적힌 대로 차례대로 한곳씩 구경을 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특색의 마당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햅쌀장터와 쌀밥카페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천쌀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던 터라 햅쌀장터에서 이천쌀과 사과, 고구마

를 구입하였습니다. 직접 만든 가래떡을 나누어주는 행사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녹색과 분홍색의 가래떡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가래떡 크기도 커서 두개를 먹고 나니 배가 든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을 발견하여 물어보니 밥 먹는 줄이라 하였습니다. 2천원을 주고 식권을 세 장 구입해서 우리도 줄을 선 다음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행사였습니다. 하얀 쌀밥에 고추장, 김치를 대접에 담아서 주는데, 이천 쌀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는 그 맛이 축제의 즐거움이고 멋이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은 후 쌀밥카페를 구경하며 인절미도 구입하고, 손녀를 위해 쌀과자도 구입하였습니다. 쌀문화축제답게 쌀로 만든 다양한 음식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축제장에서 세 시간 정도를 구경하다가 설봉공원에서 가까운 곳에 맛있는 쌀밥집이 있다고 하여 저녁 먹으러 그 곳으로 갔습니다. 쌀이 맛있으니 밥도 맛있고, 밥이 맛있으니 반찬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천쌀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이천에서 1박 2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천쌀로 밥을 해 먹으니 식사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천쌀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후 이천쌀문화축제가 생각이 나서 홈페이지에 갔다가 반가운 마음에 방문후기를 남깁니다. 내년에는 사위와 사돈 내외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좋은 구경도 하고, 쌀과 과일 등 맛있는 먹거리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내년 축제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이천 쌀밥을 먹으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박지혜

고양시 일산동구 거주

이천쌀문화축제는 올해를 맞이해 무려 15번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브랜드 파워 1위를 자랑하는 이천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하고 있는 이천의 마스코트 도자기 동상 앞에서 개구쟁이처럼 장난도 치고 사진도 찍어보고 입구 바로 앞쪽에서 동화마당-험쌀거리-쌀밥카페 등 오른쪽으로 돌기로 했습니다.

호호~ 저는 한복입어보기 체험도 해봤어요^^ 머리까지 쓰니 제법이죠? 재밌는 체험이지만 어떨 때 입는 옷인지, 옷은 어떻게 입는 건지 설명이 미흡한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천쌀문화축제를 관람하러 온 것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판매 중인 각종 기구들도 구경하구요. 계속 쉴 새 없이 움직여서 놀리고 있는 호박엿까지~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인형공연도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걸음 가보니 인절미를 바로 만드는 곳도 있었네요. 바로 맛도 보고 구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만드는 과정이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있다 보니 좀더 신선하고 식감도 좋은 맛이었던 것 같네요^^

한곳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해보니 긴 줄을 서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앗 이건 뭐가요. 거대한 밥솥~~ 앞쪽에 붙어있던 명패를 다시 보니 이천명 이천쌀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더라구요. 지금은 쌀은 다 푸고, 남은 누룽지를 나눠주는 건가 봐요~~~ 밥솥에 남은 누룽지를 삼으로 뜨는 모습.. 뜨억~ 엄청나죠?

너도나도 줄을 서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에는 종종 눈살 찌푸려지고 정신없는 일들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현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 찍는 그 와중에 어느새 줄을 서서 누룽지를 받아오신 어머니. 이천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참말로 쫄득하고 맛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수많은 부스들이 있었는데요. 라이스클레이 쌀로 어떻게 클레이를 하는 건지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진 것도 보고~

요즘 한참 인기 있는 효소까지~!!! 여기 있는 효소는 몇 십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쌀도 털어보았는데요. 아래 발판이 있어서 밟으면 통이 돌아가서 통에 뽕뽕하게 걸려있는 것으로 쌀이 털리는 구조였어요. 저는 처음 해보는지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쭈욱 가다보니 가장 끝쪽에 위치한 햅쌀장터가 눈에 보였어요. 햅쌀장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쌀도 팔고 다른 농작물도 판매를 하더라구요.

쌀을 팔면 시장터가 될 줄 알았는데 꽃들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둔 부스도 너무 예뻐요~ 사장님 대신에 쳐다보고 있는 허수아비도 정말 멋지죠? 쌀은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햅쌀이고 이곳의 쌀을 구입할 수 있으니 좋아요. 저도 이번에 텃밭에서 자란 수세미로 수세미를 만들어 봤었는데 이렇게 색까지 입혀놓으니 정말 곱더라구요.

이 매장에서는 희한한 쌀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누룽지향 찹쌀, 당뇨에 좋다는 녹원찹쌀, 혈압에 좋다는 적토미까지 검은 쌀만 먹어봤던지라 색도 곱고 몸에도 좋다니 녹원찹쌀로 2kg 구입도 했습니다. 쌀이 정말 검지요? 저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실제로 이런 샘플을 꽃아놓은 곳이 몇 군데 더 있었네요.

장터를 둘러보며 쌀을 6kg이나 구입했더니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아까 보이던 호수로 나왔습니다. 아래쪽에는 산책코스도 마련되어 있으니 시간 나시는 분들은 데이트코스으로도 제격일 듯^^

엄은주

이천시 신둔면 거주

흥에 겨운 우리나라 사람들의 情

2013년 11월 3일 운동 삼아 올라간 설봉산에선 제 15회 쌀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남편 손 꼭 잡고 병약해진 몸을 다 잡겠다고 운동을 시작한다고 올랐던 설봉산에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흥겨운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축복 받은 땅 이천은 풍요롭고 기름진 땅 덕에 수많은 축제를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엔 도자기 축제장을 경험했지만 실망감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이런 축제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난 이천 쌀축제를 반갑게 맞이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던 축제.. 무조건 물건만 팔면 되는 축제 아닌 판매장이 되어버린 변질된 모습을 지난 번 도자기 축제에서 느꼈기에 큰 기대감 없이 걷게 된 축제장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번잡하고 많은 사람들 얼굴에 떠 있는 미소는 다른 축제장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었어요. 참여 부스도 많았고 물건 하나를 팔아도 내가 장사 수완에 넘어가 사는 그런 느낌은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즐기면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서 먹는 즐거움이 얼굴 가득히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 부부도 어느새 떡 하나 입에 물고 아이들을 위해 그 흥겨움에 취해 엿도 사고 인절미도 사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리가고 어느새 나도 축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네요. 장승을 올린다면 기원제를 드리고 콩 주머니를 바구니에 담는 것도 내가 하고 있더라구요. 맘은 많이도 잡을 듯 했는데 겨우 한 개를 머리에 올리고 그래도 얼마나 웃었는지 남편과 눈동자를 맞추며 웃었던 게 얼마만인지.. 행복한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네요.

땀을 흘려서일까? 시원한 막걸리 생각에 휘이 돌아보니 울려 퍼지는 태평소 소리에 향긋한 막걸리와 부침개 냄새에 끌려 들어간 주막터는

이미 판매 완료로 잠시 후 펼쳐 질 거북놀이에는 무료로 막걸리를 주신다고 김치를 담고 계셨네요. 아쉬운 생각에 뒤 돌아 나서는 데 토야상 앞에서 벌어진 막걸리 판에 거북 놀이패인 듯한 아주머니의 구성진 뱃놀이가 락에 가던 길 멈추고 서서 나도 모르게 ‘어여디야 어여디야’ 추임새에 어깨춤을 추는 내 모습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그 아주머니 모습이 그리도 아름다운지 가던 길 멈추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박수를 치고 태평소 할아버지가 노래를 하시네요.

모든 이가 즐기는 그런 축제가 진정한 축제장이고 어느새 들려있는 찹쌀봉투랑 고구마랑 달걀이랑 버섯이랑 집에 와보니 이리 언제 샀는지 참 어이없는 웃음이 배시시 흘렀네요. 그래도 몇 시간 먼저 아이들과 올라가지 못한 게 미안할 만큼 이번 축제는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대 성황이었다고 느꼈네요.

요즘 유행하는 그 말 ‘느낌 아니까’ 내년엔 더 풍요롭고 화사한 축제를 기대한다는 그 부탁을 드리면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감하신 조직위 임직원 여러분과 자원봉사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언론 보도기사

MBC TV

2013. 11. 1. 이브닝 뉴스

임금님 쌀로 유명한 이천, '쌀문화 축제' 한창...관광객 '복적'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 이천 하면 임금 수라상에 오를 만큼 품질 좋은 쌀로 유명한데요. 수확철을 맞아 쌀 문화축제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경기도 이천의 한 공원.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신명난 잔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와 (박수소리)”

삼백 킬로그램이 넘는 무쇠 가마솥 뚜껑을 열자, 모락모락 희뿌연 김과 함께 뽀얀 쌀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60kg,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은 이천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아 밥알이 참 맛있네!”

따뜻한 쌀밥 위에 갓 버무린 겉절이를 얹고 쓱쓱쓱.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웁니다.

◀INT▶ 이순화/인천시 부평구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쌀도 밥을 먹어보니 너무나 맛있어요.”

오색 빗갈 가래떡을 뽑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길이는 무려 6백 미터지만,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오는 떡이 마냥 신기한 듯 지켜봅니다.

“떡치며 내는 아이들의 기합소리”

아이들은 생전 처음 떡메로 인절미를 만들고, 탈곡기로 벼 이삭을 훑어보기도 합니다.

◀INT▶ 이운섭/이천 남초등학교 2학년

“처음 해봐서 신기했고, 쌀로 인절미를 만드니까 재미있고”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이천쌀문화축제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며, 행사 기간 동안 6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경기신문

2013. 10. 31. 기획특집 기사 및 사진 인용



경기신문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포토뉴스

지면보기

피플

전체기사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스포츠 | 경기 | 인천 | 포커스인수원 | 사람과사회 | TV연예

홈 > 뉴스 > 기획특집

기획특집

한솔 가득 구수한 밥내음 솔솔~ 임금님도 부러워할 흥겨운 잔치

‘이천쌀문화축제’ 3일까지 설봉공원
올해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 선정 쾌거
600m 무지개가래떡 만들기·쌀밥명인전
민속체험 행사 등 볼거리·먹을거리 풍성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



승인 2013.10.31 전자신문 24면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가 ‘맛스런 내음이 너울~ 흥겨운 어깨는 등실~’이라는 주제로 지난 30일 화려한 막을 열고 오는 3일까지 5일간 우리나라 쌀 생산지의 중심인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개최된다.

이천쌀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축제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2013년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우리나라 고유의 농경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의 장이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나라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다.

축제 첫날인 지난 30일에는 임금에게 진상하던 이천쌀의 위상을 알리는 ‘임금님 진상행렬’이 이천 시내부터 행사장까지 장대하게 이어져 개막을 알렸다. 진상행렬이 끝난 후 한 해의 풍년과 넉넉한 추수를 있게 해준 자연과 땀 흘린 농민에게 감사를 표하는 추수감사제가 재현됐다.

이어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무지개가래떡만들기’ 행사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자와 진행자가 협동해 약 600m 길이의 무지개가래떡을 끊기지 않게 뽑아 모양을 유지하며 탁자 위에 늘어놓는 행사로서, 무지개색을 입힌 가래떡이 지그재그로 늘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과거 축제 개막일에만 시행됐던 ‘무지개가래떡만들기’ 행사가 관람객들의 성원으로 올해는 축제 기간 내내 진행돼 관람객에게 큰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화덕 위에 장작불을 때어 이천쌀로 가장 맛있는 밥을 짓는 명인을 선발하는 ‘이천쌀밥명인전’ 역시 축제기간 내내 진행된다. 4명의 참가자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결해 일일명장을, 마지막 날 최고의 명장을 선발한다.

밥맛뿐만 아니라, 밥짓기 기술, 밥짓기 절차, 밥을 짓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까지 심사평가 과정에 포함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학의 전문분야 교수를 초청했다.



마지막 날에는 최고명인으로 뽑힌 참가자에게 명인패를 수여하며 각 날의 명인전 선발 후에는 관람객에게 참가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천 쌀밥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행사로는 외줄타기, 고무신투호, 짚공예 등이 준비돼 있으며, 축제장 내 햅쌀장터와 주막거리에서는 이천쌀로 빚은 막걸리와 임금님표 이천쌀, 농특산물이 판매돼 산지 가격으로 구매 후 무료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터뷰>

조병돈 이천시장

“국제 축제 발돋움… 최고의 쌀, 먹고 보고 즐기세요”

Q 이천시 농업의 현황 및 특징은.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쌀, 햇사레 복숭아 등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갖춘 명품 농업물 생산지이자 높은 경쟁력을 갖춘 청정 농업도시입니다.

다. 특히 명품 쌀의 고장으로, 해마다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천쌀은 소비자 선호도와 브랜드 가치에서 늘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천쌀의 총 재배면적은 8천716ha로서 전국(849천ha) 대비 1%, 경기도(90천ha) 기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재배품종은 추청입니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3만4천144t(10a당 495kg 기준)이며, 지난해 도내 10a당 생산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천쌀은 임금님께 진상하던 전국 최고의 쌀로서 깨끗하고 무기성분이 풍부한 지하수가 있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이 없는 청정 자연조건이 우수한 쌀 생산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쌀에 대한 농업인들의 큰 자긍심과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이 이천쌀을 최고의 명품 쌀로 성장시켜 왔다고 봅니다.

Q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은.

먼저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성과로는 2010년 장호원읍 진암리에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복숭아 재배농가의 안정된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해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월동에는 시설채소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 농협연합사업단을 구성,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정된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올 연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장아울렛에 임금님표 이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매장(330㎡)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곳을 통해 관광객들이 착한 가격에 맛있는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Q 이천쌀을 소개한다면.

이천쌀은 이천의 많은 특산물 가운데 쌀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쌀은 이천농업의 블루오션이며, 이천 농민의 자부심이자 이천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농업시장 개방과 쌀소비 감소 등 위기는 도처에 있으며, 아무리 뛰어난 품질의 쌀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으면 외면 받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TV, 라디오, 버스랩핑, UCC 등을 통해 임금님표 이천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천쌀은 각종 대외평가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농출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한 파워브랜드 7년 연속 1위,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대상 3년 연속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Q 이천쌀문화축제의 성공요인은.

최고의 쌀을 갖고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를 엮어 먹고, 보며, 즐기는 축제가 바로 이천쌀문화축제입니다. 저는 축제를 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고품격 상품으로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지역 축제의 본질이자 지향점이라고 봅니다. 또 방문객들이 작은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58회 IFEA(세계축제협회) 총회’에서 이천쌀문화축제가 응모한 6개 부문 전 분야에서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를 수상했습니다. 정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 세계 30개국 1천500개 이상의 축제가 출품돼 피너클 어워드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중 우리 이천쌀문화축제가 금상·은상·동상을 휩쓸었습니다.



이제 이천쌀문화축제는 국내를 뛰어넘어 국제행사로 발돋움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축제가 이천 설봉공원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3일까지 계속되는 축제에 가족과 친구 또 연인과 찾아오면 후회 없는 나들이가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

2013. 10. 28. C6 기사

2000인분 가마솥밥, 무지개 가래떡… 쌀문화 축제보러 이천으로 오세요

경기 이천시가 주최하는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오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이천 설봉공원에서 개최된다. ‘맛스런 내음이 너울~ 흥겨운 어깨는 등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천쌀문화축제는 2008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지정됐다. 올해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경 1.6m, 높이 1.7m, 무게 320kg의 대형 가마솥에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지어 2000명에게 2000원에 판매하는 ‘가마솥밥 이천명 이천원’과 2000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의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행사 등이 있다.

이천쌀로 쌀밥을 가장 잘하는 명장을 선발하는 ‘이천쌀밥 명인전’, 쌀을 재배하는 나라의 전통 쌀요리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시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세계 쌀요리 경연대회’, 이천쌀로 만든 떡을 나누어 먹는 ‘쌀떡찰떡콩떡’, 관광객과 지역민이 화합의 장을 만드는 ‘용줄다리기’ 등도 펼쳐진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우리 쌀의 우수함과 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세상에 두루 알리는 데 이천쌀문화축제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최병일 여행·레저 전문가

이천설봉신문

2013. 11. 7. 기사

이천쌀문화축제 지역경제 '호자'

국내·외 관람객 50만1,700명 다녀가

햄살, 지역 농·특산물 등 12억3,600만원 매출 올려



외국인도 하나 된 이천쌀문화축제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로!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축제'인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문화관광체육부 '최우수' 축제로 내실을 자랑하는 이천쌀문화축제는 전통농경문화를 현대축제로 계승·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축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기며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교류의 장이자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나라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맛스런 내음이 너울~ 흥겨운 어깨는 뭉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600m 무지개가래떡, 2천명 가마솥밥, 명석만들기, 새끼꼬기, 쫄면감기 등 그 어느때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곁들여져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열렸다.

또 지난해보다 3만여명 증가한 50만1,700명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이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천여명이 증가한 6,070명이 방문해 이천쌀문화축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아울러 햄살 5억5,800만원(전년 대비 11.4% 증가)의 판매를 비롯해

지역 농·특산물 등 총 12억3,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이번 축제는 임금에게 진상하던 이천쌀의 위상을 알리는 '임금님 진상 행렬'이 이천 시가지를 거쳐 축제가 열리는 신탄공원까지 행렬이 장대하게 이어지며 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이와 한 해의 풍년과 넉넉한 추

수를 있게 해 준 자연과 농민에 감사를 표하는 추수감사제가 열려 전통농경문화를 생생하게 재현해 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600m 무지개가래떡,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등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이 같이 어우러져 떡과 비빔밥을 나눠 먹으며 이천 햄살의 진가를 맛보는 기회가 됐다.

농화바당에서는 가족인형극 등 어린이에게 축제에 대한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 주는 추억을 선사했다.

이밖에 용출다리기, 농심품년큰잔치, 쌀요리 경연대회, 용마북놀이, 가마니지게기, 벼탈곡해할, 모내기체험, 거북놀이, 풍물놀이, 이천쌀법명인전, 소원지스기, 외줄타기 체험, 풍년놀이, 이천시민쌀노래자랑, 타악퍼포먼스 등 먹거리·즐거거리·볼거리 등 3박자를 두루 갖추며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았다.

한편 이번 축제는 도시민과 학생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하여 모든 세대가 우리의 전통 농경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는 평이다. <관원일보 8면>

홍진락 기자

11월 7일 수능 이천지역 4천500여명 응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7일 전국 65만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다.

경기도는 수능 297개 시험장 설치고 종각고

52개교, 고등학교 245교에서 16만8천98명의 수험생이 응시, 제39시험지구인 이천지역에서는 6개학교에서 총 4천5백여명이 응시했다.

이천쌀문화축제 지역경제 ‘효자’
 국내·외 관람객 50만1,700명 다녀가
 햅쌀, 지역 농·특산물 등 12억3,600만원 매출 올려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축제인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문화관광체육부 ‘최우수’ 축제로 내실을 자랑하는 이천쌀문화축제는 전통농경문화를 현대축제로 계승·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축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기며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교류의 장이자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나라 전통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맛스런 내음이 너울~ 흥겨운 어깨는 등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600m 무지개가래떡, 2천명 가마솥쌀밥, 명석만들기, 새끼꼬기, 짚신감기 등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곁들여져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열렸다.

또 지난해보다 3만여 명 증가한 50만1,700명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이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천여 명이 증가한 6,070명이 방문해 이천쌀문화축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아울러 햅쌀 5억5,800만원(전년대비 11.4% 증가)의 판매를 비롯해 지역 농·특산물 등 총 12억3,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이번 축제는 임금에게 진상하던 이천쌀의 위상을 알리는 ‘임금님 진상행렬’이 이천 시가지를 거쳐 축제가 열리는 설봉공원까지 행렬이 장대하게 이어지며 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 한 해의 풍년과 넉넉한 추수를 있게 해 준 자연과 농민에 감사를 표하는 추수감사제가 열려 전통농경문화를 생생하게 재현해 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천쌀문화축제 성료

가을의 풍성함과 흥겨운 볼거리 가득



이천경찰서가 축제기간 동안 112 이동파출소를 운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물론 축제장 내 각종 범죄 발생에 적극 대응했다. 사진은 112 이동파출소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포돌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전통화 채찍



이천쌀문화축제의 개막을 축하하며 시투덕을 지르고 있다.



세계 쌀요리 경연대회



600m 무지개 가래막 만들기



외줄타기 공연

특히 600m 무지개가래떡,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등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같이 어우러져 떡과 비빔밥을 나눠 먹으며 이천 햅쌀의 진가를 맛보는 기회가 됐다.

동화마당에서는 가족인형극 등 어린이에게 축제에 대한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 주는 추억을 선사했다.

이밖에 용줄다리기, 농심풍년큰잔치, 쌀요리 경연대회, 용마름엮기, 가마니지게지기, 벼탈곡체험, 모내기체험, 거북놀이, 풍물놀이, 이천쌀밥명인전, 소원지쓰기, 외줄타기 체험, 풍년놀이, 이천시민쌀 노래자랑, 타악퍼포먼스 등 먹거리·즐길거리·볼거리 등 3박자를 두루 갖추며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았다.

한편 이번 축제는 도시민과 학생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하여 모든 세대가 우리의 전통 농경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는 평이다.

홍진탁 기자

농민신문

2013. 11. 6. 지방소식 기사

흥겨운 노래경연 ‘이천 농심풍년큰잔치’ 열려 “농협·농업인 하나로 뭉친 화합의 장” 10개 지역농협 대표 참여



이천농심풍년큰잔치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한기수씨(오른쪽 두번째)를 조병돈 이천시장(맨 왼쪽), 이광세 설성농협 조합장(왼쪽 두번째), 전한식 NH농협 이천시지부장(맨 오른쪽) 등이 축하하고 있다.

“한바탕 노래로 스트레스를 확~ 날려 버렸습니다.”

경기 이천쌀문화축제가 시작된 10월30일 저녁 6시. 설봉공원 특설 무대에는 ‘전국노래자랑’에 버금가는 흥겨운 잔치가 열렸다. 이천의 10개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툽가수’ 열명이 특유의 창법으로 기량을 뽐냈고, 지역농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열띤 응원과 재치있는 현수막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NH농협 경기 이천시지부(지부장 전한식)가 주관한 ‘농심풍년큰잔치’는 그렇게 시작됐다.

9월 전국다문화가족합창대회에서 당당히 전국 2위(금상)를 차지한 이천 부발농협 다문화가족팀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경연 무대는 그야말로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됐다. 각 농협의 대표 가수가 나올 때마다 조합장과 임직원, 조합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가 멋진 응원전을 펼쳤다.

대회 처음부터 자리를 함께 한 조병돈 이천시장도 매번 무대에 올라가 흥겨운 춤사위로 힘을 보탰다. ‘잠깐만요~ 윤숙언니 노래 한곡 듣고 가실게요~’ 등 농협에서 마련한 재치있는 다양한 응원 현수막도 행사의 재미를 더했다. 그렇게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경연은 어울림의 잔치가 됐으며, 한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기수씨(59·설성농협)는 “1등을 해서 정말 기분 좋다”며 “무엇보다 농협과 농업인이 하나되고 화합하는 장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임금님표 이천쌀’의 풍년농사를 일궈준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했다.

전한식 지부장은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품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농업인·농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유건연 기자 sower@nongmin.com

뉴시스

2013. 10. 6.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 외국인 초청 벼베기 체험



【이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6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자채방 아마을에서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앞두고 외국인 초청 벼베기 체험 행사를 갖고 있다.

mania@newsis.com

연합뉴스

2013. 9. 24. 보도기사

‘이천쌀문화축제’ 세계축제협회로부터 인정



모락모락 2천명분 가마솥 밥

(이천=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이천쌀문화축제'가 제58회 IFEA(세계축제협회) 총회에서 응모한 6개 전부문에서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문별 수상내역은 이천쌀문화축제 메인행사인 '가마솥밥~2000명! 2000원!'이 이벤트와 축제 포스터 분야에서 금상, TV광고 등 3개 분야에서 은상, 배너 분야에서 동상을 각각 차지했다.



600m 무지개 가래떡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58회 총회에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1천500여개의 축제가 출품돼 피너클 어워드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피너클 어워드는 IEFA가 각 국의 축제발전을 위해 1987년 도입한 상으로 이벤트,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부문별로 시상한다.

앞서 이천쌀문화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최 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한편 이천시는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설봉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kcg33169@yna.co.kr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이천시(2000), 『이천쌀의 우수성과 성가 제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이천시.
- 경기신문, 2013.10.31. 기획특집기사.
- 농민신문, 2013. 11. 6.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 2006.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3~2012.
- 연합뉴스, 2013. 9. 24.
- 이천군(1984), 『이천군지』, 이천군.
- 이천설봉신문 2013. 11. 7 특집기사(화보)
- 이천시청 홈페이지, 2013. 11.
- 이천쌀문화축제 홈페이지, 2013. 11.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연도별 『이천쌀문화축제 평가보고서』, 2004~2012.
- 이천햐쌀축제추진위원회, 『이천햐쌀축제 평가보고서』, 2003.
- 이춘녕(1994), 『쌀과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경제신문, 2013. 10. 28.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MBC-TV, 2013.11.1. 이브닝뉴스.

epilogue...

2001년

어느 여름날

내 고향 모가면 원두리 원두막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해 가을 햅쌀축제를 열었다.

매일매일 수남리 논바닥에서 ‘하늘바라기’ 하였다.

행여나 비가 오면 논바닥에서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날이 도왔다.

2013년

어느 늦가을

설봉공원 축제장은 국내외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를 실감하였다.

이제 하늘바라기는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로 나가고 싶다.

또 다시 힘을 모아 그 날을 만들자.

“I ♥ 이천쌀문화축제~”

오순환 (용인대학교 교수)

이천쌀문화축제백서

비매품

2013년 11월 30일 발행

지은이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펴낸이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펴낸곳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8-52
 전화 031-644-4125
